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7호 7월 1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9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 7 호 (164)

1959년 7월 15일

내 용

—◇—

사회주의적 축산업 건설을 위하여 전 당의 력량을 동원하자

지난 6월 말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축산업의 력사적 락후성을 시급히 청산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게 그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 당의 힘을 동원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혁명적 고조를 계속 견지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높은 배려로서 일관되였다.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금후 수년 간에 각종 축산물의 인구 1인당 생산량도 세계 선진 국가들의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한 일련의 결정적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축산 문제는 오늘 비단 농업 부문 일'군들의 과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 당과 전체 인민이 동원되여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의 하나이다.

왜 오늘 축산 문제가 이처럼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는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당 제 3차 대회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해결하여야 할 기본 과업으로 제기하였던 모든 문제들은 불과 3년도 못 되는 기간에 해결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와 근로자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가 튼튼히 구축되였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위대한 혁명 과업이 성과적으로 끝났다.

이에 기초하여 생산력은 력사상 류례없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알곡 문제의 기본적 해결, 직물을 비롯한 각종 생활 필수품의 생산 증대, 광범한 주택 건설 등으로 우리 인민의 생활은 일찌기 볼 수 없던 정도로 윤택하여졌다.

그러나 축산업의 락후성으로 인하여 3차 당 대회가 제시한 기본 과업의 하나인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의 해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축산물에 대한 인민의 수요는 아직 원만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수입이 급격히 증대된 현 조건하에서 그들에 대한 축산물의 공급이 원만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여기에 바로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현 시기 이 문제 해결에 특별한 배려를 돌리고 있으며 전 당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써 이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금번 전원 회의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축산업의 락후성은 오랜 력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극히 유리한 자연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과거 장구한 봉건 통치와 일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으로 인하여 축산업은 인민 경제에서 가장 락후한 부문으로 남아있었다.

우리 농촌은 그 자들의 가장 가혹한 략탈 대상으로 되여 있었으며 압박과 착취를 받을 대로 다 받은 농민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빈궁하였다.

혹심한 기아선상에서 신음하던 농민들은 가축을 기를만한 밑천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가중되는 략탈과 착취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일부 농민들까지도 그에 대한 의욕과 관심을 가질 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력사적으로 축산에 대한 토대가 없었다. 축산 시설은 물론 사양 관리 방법, 종축 개량 및 수의 방역 등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보잘 것 없었으며 농민들 속에서는 축산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어 농촌 경리 발전에서 축산업이 가지는 의의조차 옳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물려 받은 이러한 유산이 지금까지 축산업 발전에 일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 후 당은 우리가 물려 받은 이러한 유산을 청산하고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큰 관심을 돌렸으며 이에 따라 축산업은 급속히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3년 간의 전쟁에 의하여 우리의 축산 토대는 다시금 완전히 파괴되였다.

당은 전쟁 시기 적들의 만행에 의하여 파멸 상태에 처한 축산업의 토대를 복구하기 위하여 그 어려운 시기에도 거액의 국가 자금과 방대한 자재, 로력을 투하하였다.

전후 당 중앙 위원회 제 6차 전원 회의, 1954년 11월 및 1955년 12월 전원 회의들은 전후의 복잡한 조건하에서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어려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당의 정확한 제 대책에 의하여 벌써 3개년 계획말 1956년에 이르러서는 전쟁 전 1949년에 비하여 소는 126%, 돼지는 108%, 면양 및 산양은 6.9배로 각각 장성되였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들어 서면서 축산업은 더욱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57—1958년 2년 간에 젖소는 3.3배, 조선소는 1.4배, 돼지와 가금은 각각 2배로 장성하였으며 축산물 생산량도 현저히 증대되였다.

특히 1958년 10월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는 우리 나라 축산업을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서게 하였다.

회의가 있은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국영 농목장들과 농업 협동 조합들의 축산 토대가 현저히 강화되였으며 도시 및 로동자 지구 주민들에 대한 축산물 공급 기지가 확고히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에 대규모적 통연 및 옹기 종합 농장과 23개의 가금 목장들이 신설 확장되였으며 1958년 9월부터 1959년 3월에 이르는 7개월 간에 농업 협동 조합들의 중요 가축 공유화 비률은, 돼지는 25%로부터 51%로, 소는 88%로부터 100%로, 큰 암탉은 2%로부터 14%로 각각 장성되였다.

거의 빈터 우에서 축산업을 발전시켜 온 우리의 투쟁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원래 여지없이 락후하였으며 그나마 전쟁으로 인하여 혹심한 피해를 입었던 축산업을 전후 불과 4—5년 간에 전쟁 전 수준의 2—3배로 장성시킨 이것은 실로 놀라운 기적적 성과이다.

이 성과는 오직 농촌 경리 내부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농업과 경공업의 동시적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축산업 발전에 거대한 력량을 집중하여 온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달성한 이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나라 축산업은 근로자들에게 많은 육류, 우유, 계란을 공급하여 주려는 당의 배려와 요구에 비하여 볼 때 아직 멀리 뒤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당의 축산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적지 않은 결함들과 부족점들도 발로되였다.

우리 나라 축산업의 현 락후성은 농업성을 비롯하여 일부 지방 당 및 정권 기관들과 농촌 경리 부문 일부 지도 일'군들이, 오랜 력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축산업의 락후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를 퇴치하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옳게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축산업을 차요시하면서 당의 축산 정책에 형식적, 소극적으로 대하여 온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그들은 축산업에 대한 농민들의 낡은 생각,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며 축산업이 가지는 정치 경제적 의의와 그의 유리성을 농민들에게 해석 침투시키는 정치 사업을 극히 미약하게 진행하였으며 공고한 사료 기지의 조성, 종축 사업의 개선, 수의 축산 시설의 정비, 축산 지식과 경험의 보급 일반화, 기술 기능 일'군의 양성 등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

를 구축하기 위한 당 정책 관철에로 광범한 대중을 옳게 조직 동원시키지 못하였다.

만일 농업성을 비롯하여 모든 농촌 당 단체들과 정권 기관 지도 일'군들이 당의 요구에 충실하게 국영 농목장 및 농업 협동 조합들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개선 강화하였더라면 우리는 축산업 발전에서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하였을 것이다.

당 결정에 끝까지 충실하고 당 정책 관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국영 평양 농장과 평남도 신양군, 황북도 신평군 내의 많은 농업 협동 조합들의 경험은 바로 이것을 확증하여 준다.

현실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들을 탐구 동원 리용하여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직 지도하지 않으며 다만 호소와 호령, 형식적인 지도로써 성과만 기다리는 등 관료주의적으로 일하는 지도 일'군들이 사업한 곳들에서는 례외없이 일이 잘 되지 않았다.

이런 데서는 축산 계획이 지대적 특성과 가능성에 기초한 과학적 타산없이 작성되였으며 축산업 발전의 기본으로 되는 사료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이 극히 미약하게 진행되였으며 축산 시설과 사양 관리 및 종축 사업 개선을 위한 당의 모든 대책이 매우 불만족스럽게 집행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 나라 축산업의 급속한 앙양을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전원 회의는, 이와 같은 결함들을 더는 지속시킬 수 없으며 허용할 수 없다고 신랄히 비판하고 새 요구에 적응하게 축산업 발전에서 일대 혁신을 가져 오기 위한 금후 투쟁 과업을 제시하였다.

* *

오늘 우리 나라에서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는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비롯하여 남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인정하던 모든 일을 훌륭히 해결하여 온 우리에게 있어서 축산업 발전 문제가 돌파 못할 난관으로 될 수는 없다.

알곡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면 또 이 문제의 제기가 시기 상조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알곡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였을 뿐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된 농업 협동 조합들과 국영 농목장들의 축산 토대가 일층 강화되였으며 축산업을 포함한 농촌 경리 전반을 기계화할 수 있는 강력한 중공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현 조건하에서 우리는 축산업의 력사적 락후성을 단기간 내에 청산하고 발전된 사회주의적 축산업을 능히 건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원 회의는 이 모든 조건에 의거하여 축산업을 대담하게 발전시킬 것을 호소하였다.

회의는 축산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방의 모든 가능성을 리용하여 사료 기지를 조성하고 사료 원천을 비롯한 자연 경제적 조건들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우에서 그 지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각종 가축들을 사양하여 다양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다》(결정서)고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이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가장 선차적으로, 그리고 중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업으로서 사료 기지를 공고히 조성하고 사료 생산을 백방으로 증대시킬 것을 제기하였다.

왜냐 하면 몇 마리 안 되는 가축을 기르던 과거 개인 경리 때와는 달리 대규모 공동 축산업이 창설되고 가축 두수가 급격히 증대된 오늘의 조건하에서 이에 상응하는 공고한 사료 기지를 가짐이 없이는 축산업을 한 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사료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여기에 축산업의 장래가 달려있다.

전원 회의는 사료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였는바 이 문제 해결의 기본 방도는 《2모작을 광범히 실시하여 알곡을 비롯한 주작물의 수확고를 계속 높이면서 후작, 전작 및 간혼작으로 사료 작물을 대대적으로 재배하는 데 있다》(결정서).

경지가 제한되여 있고 방목지가 적은 우리 나라 조건에서 이것은 사료 문제 해결의 유일하게 옳은 길이다.

그러나 과거 논밭에 관개를 하지 못하고 매년 혹심한 자연 재해를 극복할 수 없었던 때에는 밀 면적을 확장할 수도 없었으며 농촌에 협동화가 실현되지 않고 현대적 농기계가 없었을 때에는 로력이 많이 드는 2모작을 광범히 실시할 수 없었다.

오직 당의 수리화 정책에 의하여 80만 정보의 관개 면적이 확장되고 당이 제시한 집약 농법이 광범히 실시되고 있는 오늘,우리는 알곡 생산을 부단히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사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확고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

사료 생산을 위한 2모작 도입에서 가장 큰 예비는 밀 재배 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밀은 밀대로 먹고 그 후작으로 옥수수와 콩을 재배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전원 회의는 최근 년간에 밀 재배 면적을 30만 정보 이상에 도달시킬 과업을 제기하였다.

지난 해 국영 중화 농장과 황남도 옹진군 원사 농업 협동 조합을 비롯한 많은 농목장,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밀밭에 후작으로 옥수수를 재배하여 정당 40—60톤의 씰로스를 생산하였다. 이것은 당이 제시한 사료용 맥류 후작 옥수수 재배의 유리성을 충분히 실증하여 준다. 확장되는 밀밭 후작으로 이렇게 옥수수와 콩을 재배하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정당 35—40톤의 청예 사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정당 1—1.5톤의 돼지고기를 능히 생산할 수 있다.

전원 회의는 이 밖에 논과 목화, 담배, 고구마 등을 이식할 밭에 전작으로 보리, 완두 등 사료 작물을 재배하여 축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봄철 사료를 해결할 것을 제기하였다.

황북도 봉산군 지탑 농업 협동 조합에서 금년에 20정보의 논에 봄'보리를 전작으로 재배하여 정당 15톤의 청사료를 생산한 경험 등은 이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 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논은 벼를 수확한 후 이듬 해 모를 낼 때까지 약 6개월간 리용되지 않고 있는바 바로 금번 우리 당의 대책이 가지는 의의는 논의 생산적 예비를 적발 동원시킨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책은 축산업은 산간 지대에서만 할 수 있고 평지대에서는 사료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낡은 보수주의 사상을 분쇄하고 평지대에서도 얼마든지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주었다.

2모작 체계의 광범한 도입은 실로 우리 나라 경작 체계에서 일대 전환으로 되며 그것은 우리 나라의 알곡 생산 기지를 강화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공고한 축산물의 생산 기지를 창설함으로써 우리 나라 농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전망을 열어 주었다.

모든 농업 협동 조합들과 국영 농목장들에서는, 2모작 도입의 의의와 유리성을 리해하지 못하고 《지질과 기후가 맞지 않는다》느니, 《경험이 없다》느니 하면서 당 정책 관철을 저애하는 보수주의, 소극성, 교조주의 등 각종 낡은 사상적 표현들과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전개하면서 지대적 특성에 알맞게 당이 제기한 2모작에 의한 사료 재배를 광범히 실시하기 위한 새로운 길로 대담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하여 《2모작에 의한 사료 재배 총 면적을 1960년에는 30만—40만 정보로, 3—4년 내에는 50만—60만 정보까지 확장》(결정서)할 것이며 사료 작물에 대한 비배 관리를 잘하고 심경, 밀식하고 다량 시비함으로써 사료를 전작에서는 1.5—2톤 단위, 후작과 사료전에서는 5—6톤 단위 이상 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당면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맥류의 후작 옥수수와 콩을 제때에 질적으로 파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례년에 없이 대풍작을 이룬 밀과 보리를 시급히 거두고 지체없이 후작 옥수수를 파종하도록 할 것이며 동시에 간혼작으로 콩을 박고 계속 비배 관리 사업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그의 수확고를 일층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가을밀 파종 면적을 최대한 확장하며 논밭 전작과 간후작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매개 조합들과 농목장들에서는 우선 적지 조사 사업을 시급히 진행하여 금년 가을부터 밀 재배 면적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선차적으로 해결하면서 논과 밭의 전작 재배 면적을 확정하고 그에 배치할 작물을 규정하며 우량 종자 확보, 자급 비료 생산 등 이를 보장하기 위한 물질 기술적 조건들을 예견성있게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모작의 경험과 기술을 보급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농촌 경리 분야에는 방대한 과업들이 수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만큼 지도 일'군들은 사업에서 선후차를 옳게 가리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반드시 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특별히 류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원 회의에서는 생산하기 헐하고 저장하기 쉬우며 가축들이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가 높아 비육 속도를 높이며 알곡 사료를 대신할 수 있는 씰로스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가시킬 것이 강조되였다. 금년에 씰로스를 충분히 장만하고 그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 금번 전원 회의 결정 실천에 큰 도움을 줄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농업 협동조합들과 국영 농목장들에서는 가축 년말 확보 두수를 정확히 예견하고 해당한 씰로스 생산 계획, 탕크 설치 계획, 로력 계획을 세우며 씰로스 생산 시설들을 갖추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모작의 광범한 도입과 관련하여 당면 걸리는 것은 농촌 로력 문제이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집약 농법의 대대적 도입과 관련하여 로력 사정이 매우 긴장되여 있는데 여기에 2모작까지 하게 되면 파종, 수확, 운반, 탈곡 작업들이 배로 증가되는 조건하에서 로력 문제가 특히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2모작을 광범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단기간 내에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전원 회의는 이 절실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전 국가적, 전 사회적 력량을 집중하여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최단 기간 내에 실현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우리에게는 농촌 경리의 기계화에서 일대 전진을 이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지어져 있다.

농촌 경리의 수리화, 전기화와 함께 기계화를 추진시켜 온 당의 정책에 의하여 농촌에는 이미 5,300 여대(15마력으로 환산하여)의 뜨락또르와, 화물 자동차를 비롯하여 각종 현대적 농기계들과 수많은 모터, 발동기들이 있으며 우리의 중공업은 이의 공급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간 오지까지 전기가 들어가 있다. 이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리용하면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기만 한다면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급속히 실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후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2모작이며 이를 해결하자면 기계화가 요구된다. 금번 전원 회의에서는 축산업의 기계화를 농산 작업의 기계화와 호상 밀접히 련결시켜 해결할 것을 제기하였는바 우리는 여기서 2모작의 광범한 도입이 농산 작업의 기계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축산업과 함께 농촌 경리 전반의 발전을 가일층 촉진시키는 결정적 고리로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

《2모작에 있어서는 최근 년간에 파종, 수확, 운반, 탈곡 등 중요 작업을 전반적으로 기계화하며 축산 작업에 있어서는 우선 사료의 수확, 절단, 분쇄, 가공 등 작업을 기계화할 것이다》(결정서). 농촌 경리의 기계화 작업 수준이 아직 현실적 요구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는 오늘 이를 급속히 해결하자면 우선 농촌에 방대한 량의 뜨락또르, 자동차, 련결기, 동력 및 축력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씰로스 꼼바인, 씰로스 절단기, 만능 분쇄기, 고속도 분쇄기, 착유기 등 각종 기계들을 시급히 생산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역축 두수와 동일한 량의 우차를 장만하며 모든 우차에 베아링을 달아 능률을 배로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게 해결되여야 한다.

전원 회의는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도록 각 성(국)들과 산하 공장, 기업소들이 이에 소요되는 각종 대형 기계, 정밀 기계를 비롯한 기계 자재들을 생산 공급하는 전 군중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강조하였다.

각 성(국)들에서는 설계를 선행시키고 제품의 질을 보장하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생산 공급하도록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한편 성(국)들은 산하 공장, 기업소들에서 공작 기계의 새끼치기 운동을 통하여 제작된 기계들로 매개 군에 1개 이상의 농기계 공장을 차려 주어 여기서도 다종 다양한 농기계, 농기구들이 생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위력한 사회주의 공업의 지원하에 농촌 경리의 기술 혁명이 촉진될 이 과정을 통하여 로농 동맹은 더욱 불패의 것으로 공고화될 것이며 농촌에 건설되는 공장들은 앞으로 더욱 큰 공장으로 발전하여 농촌 지대의 튼튼한 기술 기지로 될 것이며 농업 로동을 공업 로동에 접근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수행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사업은 성(국)들의 방조에만 의존하여 진행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전원 회의는 《각 도 농기계 종합 공장들의 시설을 확장하고 축산 기계 생산 직장을 신설하며 각 시, 군에 축산 기계를 포함한 농기계 제작 및 수리 공장을 신설 확장하여 축산 기계에 대한 지방의 수요를 해결할 것》(결정서)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국영 농목장들과 농업 협동조합들에서도 이미 달성한 성과와 축적한 경험에 기초하여 자체로 만들 수 있는 농기계, 농기구들을 제작 리용하며 《창의 고안 운동을 더욱 광범히 전개하여 실정에 적응하게 축산 작업의 중 소 기계화를 적극 추진시킬 것》(결정서)이다.

다음으로 회의에서는 축산 부문 기술 인재의 양성 사업을 강화하며 축산에 대한 전 인민적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이는 축산업이 새 발전 단계에 들어 섬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해결되여야 할 문제의 하나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인민이 축산에 대한 지식과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부문 기술자가 매우 부족한 것은 현재 축산업 발전에서 결정적 장애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려 받은 축산 기술의 력사적 락후성을 최단 기간 내에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사료는 어떤 것이 얼마나 요구되며 가축들이 병드는 까닭은 무엇이며 그를 어떻게 치료하여야 하는가 등등 모든 축산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하며 기술 일'군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면서 축산 기술 교육망의 확장, 단기 강습, 견학 조직 등 모든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축산 기술 토대를 시급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축산업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종축 사업을 개선하고 종축 체계를 확립하며 지방 자재를 광범히 리용하여 축사를 비롯한 축산 시설을 적극 건설 정비하며 수의 위생 방역 사업을 강화함과 함께 축산물의 수매 및 공급 사업을 개선하는 등 일련의 문제 해결에도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 ※

우리 당이 제시한 축산업 발전의 웅대한 과업을 실현하는 것은 극히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인민들에게 축산물을 풍족하게 공급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커다란 전환을 가져 오게 할 것이며 산간 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촌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에로의 전진 운동을 가속화함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진적인 사회주의 축산업을 건설하는 어려운 과업은 전 당이 동원되여 긴장된 로력 투쟁을 전개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각급 당 단체, 정권 기관 및 농촌 경리 부문 지도 일'군들은 이를 똑똑히 인식하여야 하며 단순한 행정적 방법만으로 성과가 달성되리라고 기대하는 그릇된 관점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오랜 력사적 락후성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아직 축산업 발전이 갖는 의의와 유리성을 옳게 리해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 축산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로잡아 주는 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축산업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의 성과적 수행 여부는 당의 축산 정책을 광범한 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키며 그들을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는 정치 사업과 일'군들의 지도 사업에 달려있다》(결정서).

각급 당 단체들은, 광범한 조합원 대중과 축산 부문 일'군들은 물론 전체 근로자들에게 전원 회의 결정을 깊이 해석 침투시켜 그들이 당의 의도와 요구를 깨닫고 당 축산 정책 관철에 사상적으로 동원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원 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보수주의와 소극성, 공명주의, 형식주의, 개인 리기주의 등 낡은 사상의 표현들과 견결히 투쟁하는 것이다.

지난 시기 농업성의 일부 책임적 지도 일'군들을 비롯한 보수주의자, 소극 분자들은 오랜 동안 축산 부문에서 낡은 기술과 방법을 고집하면서 당 정책 관철을 이모 저모로 저애하였다.

일을 해보지도 않고 그 가능성 여부부터 의심하며 가능성이 실증된 다음에도 대담하게 실천하려 하지 않는 보수주의와 소극성, 당의 축산 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의 본질을 모르며 단순한 호소에만 그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형식주의적 사업 방법, 성과를 허위적으로 과장하고 결함을 은폐하려는 유해로운 공명주의적 경향은 철저히 극복되여야 한다.

우리는 금번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보장하기 위한 지도 사업을 특히 주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각급 당 단체들과 농업성을 비롯한 지방 정권 기관 지도 일'군들은 구체적인 조사 연구 사업을 진행한 기초 우에서 사료 기지의 축성과 셀로스 생산 강화 대책, 각종 농기계 생산의 대대적 추진 대책, 축산 시설의 확장 대책으로부터 가축 사양 관리의 개선, 수의 방역 사업과 기술 인재 양성 대책 등 모든 것을 빈틈없이 강구하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향들을 적시에 바로잡아 주도록 실속있는 지도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아직 일부 농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개인 리기주의의 잔재가 축산업 발전의 장애로 되고 있는 사실을 간파하지 말아야 한다.

동물을 다루는 축산업은 가축에 대한 특별한 애호와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각급 당 단체들은 전체 농민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 사업을 인내성있게 진행함으로써 공동 가축을 되는 대로 다루는 현상을 일소하고 농민들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가축을 소중히 여기고 알뜰히 다루며 한 마리의 가축이 병들어도 이를 가슴 아파하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축산업의 력사적 락후성을 청산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 축산업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맡겨진 영예로운 과업이다.

이 과업은 반드시 해결되여야 하며 또 우리는 능히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전 당의 력량을 동원하여 사회주의적 축산업 건설에 모든 힘을 바침으로써 금번 회의가 제기한 력사적 과업 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현 시기 전기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중요 과업

리 근 모

최근 진행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인 진척에 상응하게 현 시기 전기 공업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명확한 목표와 방침을 제시하였다.

력사적인 제 1차 5개년 계획의 빛나는 완수와 때를 같이 하여 열린 금번 전원 회의에서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결정적 고리의 하나인 전기 공업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가일층의 촉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갖는다.

전기 공업이 갖는 중요성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나라를 고도로 발전된 공업과 부유하고 문화적인 완전히 전기화된 농촌을 가진 사회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기 공업의 발전이 선차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수풍 발전소 복구 개건 공사 준공식에서 한 연설》).

우리 당은 전력이 가지는 인민 경제적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전기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항상 인민 경제의 다른 부문에 선행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여 왔다.

특히 전후 시기에 당은 전기 공업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전후 5년 간에만도 전력 공업 건설에는 1억 2천 800만 원의 자금이 투하되였으며 총 능력 136만 키로와트의 발전 설비들이 복구 개건되였다.

이리하여 1958년 전력 생산량은 1953년에 비하여 7.5배에 달하였으며 전쟁 전 수준을 127%로 증가하였다.

전력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한 1958년 10월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 결정이 채택된 후 전력 증산과 절약에서 일정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에서는 전 인민적 운동으로 800 여개소의 소형 발전소들이 건설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 새로이 창설된 전기 기계 공업은 벌써 1958년에 전쟁 전 수준에 비하여 7.9배로 장성하였으며 대형 변압기, 전동기들을 비롯한 수 많은 전기 기자재들도 생산하였다.

우리의 전기 공업은 화학, 금속, 기계 제작 등 기간 공업의 전력에 대한 수요는 물론 공업 전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켰으며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80만 정보의 논 및 밭 관개에 필요한 양수 동력과 설비를 보장하였다.

이와 같이 전기 공업은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여 왔으며 증대되는 전력 수요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앙양에 따라 전력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는 더욱 크게 장성하고 있으며 전력 공업의 발전을 다른 인민 경제 부문에 더욱더 선행시킬 절실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본 과업으로 하고 있는 재

1차 5개년 계획을 공업 총 생산액에서 성과적으로 완수하였다.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완수는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킬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확대, 강화하며 우리 나라에서 최근 6—7년 내에 수행될 강령적 과업을 기한 전에 완수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또한 우리는 명년에 보다 큰 승리를 달성할 준비를 하며 인민 생활을 더욱더 향상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전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장성되고 있다.

우리는 금년 1년 동안에 공업을 근 2배로 장성시키기 위하여 창엄한 증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나라 전력 총 생산량의 약 45%를 소비하는 화학 공업을 발전시키며 특히 2차 5개년 계획에서는 더욱 대규모적으로 급격히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화학 공업에 못지 않게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금속 공업 특히 전기 제철, 전기 제강 등을 가일층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는 명년 8. 15까지 농촌의 전기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계속 농촌 경리의 전기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즉 농촌들에서 100%로 전기 조명을 실현하며 기경, 파종, 추수, 탈곡 등 전야 작업 전반에 걸쳐 기계 체계를 광범히 도입하는 동시에 축산에서 사료 절단, 착유 등 모든 작업에 기계화를 도입하며 이를 전기 동력으로 돌리려고 한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철도의 전기화도 완성시켜야 한다.

우리는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더 많은 기업소를 건설하여야 하며 기존 기업소들을 개건 확장하고 기계화, 자동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동시에 우리는 문화 혁명의 과업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을 살기 좋은 문화 주택과 문화 시설이 구비된 사회주의 락원으로 만들어야 하며 가까운 장래에 인민들이 랭장고, 세탁기, 텔레비죤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인 전기 기구들을 갖추고 살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국이 통일되는 그 때에, 여지없이 파괴된 남반부의 경제를 짧은 기간 내에 복구 건설할 데 대한 문제도 미리 예견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들은 모든 산업을 움직이는 기본 동력인 전기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 앞에는 전력 생산을 더욱 급속히 증가시키며 전기 공업을 새로운 발전 단계에 올려 세워야 할 절박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현 모멘트에 있어서 우리 당이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성숙된 중심 문제의 하나로서 인민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템포에 적응하게 전기 공업을 선행시킬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오늘 우리는 당이 제시한 200억 키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데 대한 전망적 과업을 앞당겨 완수함으로써 급격히 증대되는 전력에 대한 인민 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이 전망적 과업은 인민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현의 충분한 가능성을 타산하고 있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는 큰 강들과 수많은 중소 하천들이 있는바 이미 조사된 것만 하여도 500만 키로와트 이상에 달하는 수력 자원이 있으며 지세도 수력 발전에 유리하게 형성되여 있다.

또한 화력 발전에 리용할 수 있는 연료 원천을 비롯하여 풍력, 조수력 발전소들을 건설할 수 있는 동력 원천들이 있다.

우리는 이 유리한 조건들을 리용하여 전력 생산을 더 높일 수 있는 튼튼한 중공업 기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기간 전력 생산과 건설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과 수많은 기술자, 숙련 로동자들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동원하여 전기 공업을 가까운 장래에 200억 키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하며 급격히 증대되는 전력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 *

《오늘 우리 나라 전기 공업 발전의 중심 방향은 현존 동력 기지를 일층 공고히 하며 수력 발전소 건설과 화력 발전소 건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며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집중하면서 중 소 규모 발전소 건설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는 데 있다》(전원 회의 결정서).

전원 회의 결정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력 공업의 발전을 인민 경제 타 부문에 선행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설비들을 잘 복구 정비하며 그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존 설비를 완전히 복구 정비한다면 수력 발전 능력 10만 4,000키로와트, 화력 발전 능력 3만 7,000키로와트의 발전 능력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현존 발전소들을 높은 효률로써 운전하며 수력 구조물의 루수를 방지하고 도중 취수 설비를 복구 확장하는 것으로만 하여도 년간 3억 키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증산할 수 있다.

이것은 실로 부령 발전소와 같은 발전소를 3개소나 건설하여 얻어지는 막대한 전력량에 해당한다.

때문에 오늘 현존 전력 설비를 완전히 복구 정비하며 그의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것은 증대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새 발전소 건설에 못지 않게 중요한 과업이다.

당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루차 강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부문 내 일부 일'군들은 현존 동력 기지 강화와 복구 정비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과소 평가하며 전력의 증산을 건설에만 의존하려는 데로부터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결함들을 발로시키고 있다. 그들이 당 정책을 옳게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복구 정비 사업은 많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면밀한 조직 지도 사업이 보장되지 못하였다. 결과에 지난 기간 복구 정비 사업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였으며 건설물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였다. 복구된 일부 수력 구조물들에서는 물이 새며 발전 설비들은 자기의 생산 능력에 의한 출력을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

1959년 첫 4개월 간만 하여도 설비의 불비와 무질서로 인하여 87건의 전기 사고를 발생시켜 인민 경제 각 부문에 2천 600만 키로와트시의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그러므로 전기 설비들의 생산 잠재력을 의연히 낮게 평가하는 그릇된 관점을 철저히 극복하고 《현존 동력 기지를 일층 공고히 하는 것은 발전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국가적 투자를 적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전력을 인민 경제 각 부문에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대책이다》(전원 회의 결정서).

현존 동력 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 한편 이미 각 지방에 건설된 중 소형 발전소들을 완전히 정비하고 그의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발전소의 운영을 정상화할 것이 긴급히 요구된다.

현존 설비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그를 극력 절약함으로써 장성하는 전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계속 우리 앞에 남아있는 긴절한 과업이다.

만일 우리 나라에서 년간을 통하여 소비하는 전력을 1%만 절약하여도 이는 금강산 발전부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전력 절약 투쟁——이는 전력의 증산이나 건설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의를 갖는 애국적 운동이다.

이것은 전력 건설에 지출되는 투자를 절약케 하며 보충적 투자없이 증대되는 전력 수

요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전력 절약 투쟁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호소하여 왔으며 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도 일'군들은 전력 료금이 생산 원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하여 또는 우리 나라에는 《전력이 풍부하다》고 하면서 전기를 허다히 랑비하는 현상을 지속하고 있다.

성진 제강소에서는 강괴 톤당 전력 소비 기준을 1958년에는 124.5%로, 금년 1.4 분기에는 142.3%로 각각 초과하였으며 천내리 쎄멘트 공장에서도 금년 1.4 분기에는 쎄멘트 톤당 전력 소비 기준을 147%로 초과하였다.

이와 같이 무책임하게 전력을 랑비하는 현상은 파거 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을 망탕 쓰던 낡은 사상 잔재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극복함이 없이는 제아무리 훌륭한 조직 기술적 대책도 성과적으로 집행될 수 없으며 그 어떤 합리적인 제도와 통제 수단도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현실은 일'군들이 전기를 랑비하는 습성을 버리고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제품의 단위당 전력 소비 기준을 현저히 저하시키며 전력의 도중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인내성있게 전개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월별, 분기별 전력 소비 계획을 시달하고 그의 실행 정형을 정확히 평가하며 상벌 제도를 확립할 데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례컨대 기업소에서 전력 소비 원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생산 계획 수행을 평가하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전기 절약을 위한 투쟁에서 일'군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성과를 확대하는 중요 조건의 하나이다.

현존 전력 사용 료금 제도는 전력을 많이 쓰면 쓸수록 키로와트시당 전력 가격이 낮아지게 되여 있는데 이것은 생산자들로 하여금 전력 절약에 대한 자극을 충분히 받을 수 없도록 불합리하게 제정되여 있다. 따라서 전력을 절약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전력 사용 료금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이 요구된다.

전기 절약의 예비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직장, 학교, 인민반 등 도처에서 높은 애국적 열성 밑에 전기 절약 투쟁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생활화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앙양에 따라 최단 기간 내에 전력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가할 데 대한 과업은 다만 현존 동력 기지를 강화하는 것만으로써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현 시기 전기 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가장 긴절한 과업의 하나는 최단 기간 내에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발전소들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건설하는 문제이다.

전력 건설에서는 《발전소 및 송배전망을 우리 나라의 자연 지리적 특성과 인민 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적응하게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건설의 선후차를 옳게 규정하고 중점적으로 건설》(전원 회의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발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전력에 대한 증대되는 수요를 제때에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당면하여 우리는 이미 완공 단계에 들어선 독로강 발전소의 조업 개시를 촉진시키며 운봉 및 강계 청년 발전소 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그의 완공을 더욱 앞당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당은 이와 동시에 서두수 발전소를 건설하며 가까운 장래에 보천보 발전소 건설에도 착수할 새로운 과업을 제시하였다. 오늘 당은 유리한 자연 지리적 조건에 기초하여 수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시키면서 이에 화력 발전소 건설을 합리적으로 배합시키는 대책을 취하고 있다.

당은 우리 나라에 풍부한 연료 원천에 립각하여 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시키고 있는바 그것은 건설 기간이 짧으며 자금이 적게 들고 동력을 다방면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한다.

현 시기 발전소 및 송배전망 건설에서 주요하게 제기되는 과업은 건설물의 질을 제고하면서 건설 속도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모든 발전소 건설장들에서는 건설 속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가설 공사를 시공에 선행시키며 기자재 공급을 제때에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발전소 건설장들에서는 준비 공사를 철저히 진행하지 않는 데로부터 공사를 지연시키는 엄중한 현상을 발로시키고 있다.

전기성 제 3 건설 트레스트가 담당한 연두평 언제 건설에서는 지난 기간 동기 콩크리트 타입 작업을 위한 가설 공사를 기본 공사에 선행시키지 않았으며 그를 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결과 지난 1.4 분기만 하여도 무려 20일간이나 작업을 멈추게 하였다.

이와 류사한 현상들은 강계 청년 및 운봉 발전소 건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 속도 제고에서 각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미 당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부재를 규격화하고 건설에서 조립식 방법을 광범히 적용하며 건설 작업에서 기계화 수준을 높이는 문제이다.

건설 작업에서의 기계화 수준 제고는 방대하게 요구되는 로력을 절약하며 건설 속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전력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조사 설계 사업을 질적으로 보장하며 시공에 반드시 앞세우는 것이 극히 필요하다. 새로운 전력 건설에 있어서는 특히 자원의 종합적 리용에 커다란 주의를 돌리여 한 그람의 중기도 한 방울의 물도 헛되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전기 공업 앞에 제기된 당면 과업을 성과있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력 공업 발전의 결정적 고리인 전기 기계 공업을 더욱 급속히 확대 강화할 데 대한 문제가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전기 기계 공업의 발전없이는 전력 공업 발전을 선행시킬 수 없으며 나라의 전기화의 실현도 상상할 수 없다.

전기 기계 공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는 현존 설비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일부 설비를 확장 또는 신설하여 전력 소비 기계를 생산하는 단계로부터 전력을 생산하는 대용량 기계 생산 단계로 발전시켜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우리는 2—3년 내에 40만 키로와트의 능력을 가진 서두수 발전소의 발전 설비를 비롯한 총 60만 키로와트의 수력 발전 설비와 24만 키로와트 이상의 화력 발전 설비를 생산하여야 한다.

이것들은 우리가 아직까지 만들어 보지 못한 새로운 기계들이며 높은 기술을 요하는 현대적 기계 설비들이다.

물론 이러한 설비들을 우리의 손으로 제작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이룩한 물질적 토대에 기초하여 그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근로자들의 창조적 지혜를 적극 발양시킨다면 능히 해결할 수 있다.

대대적인 새 발전소 건설과 전기 기계의 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 인재를 대량적으로 양성하는 문제가 급속히 해결되여야 한다.

❋ ❋

현 시기 전기 공업 발전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이 모든 과업들의 성과적 수행 여부는 당이 전기 공업 부문 앞에 제기한 제반 정책을 광범한 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키며 그들을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는 정치 사업과 일'군들의 지도 사업에 달려있다.

실천적 경험은 지도 일'군들과 대중이 당의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의 관철을 위하여 한결같이 동원되는 그 때에는 성과가 달성되며 그렇지 못한 때에는 침체를 가져 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정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전기 공업 부문 기업소들과 건설장들

이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새것에 민감하고 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우수한 일'군들로써 간부 대렬과 핵심 진지를 꾸리며 당 단체들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각별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기 공업 발전에서 일대 비약을 가져 오게 할 금번 전원 회의 결정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서는 일을 구체적으로 조직해 주고 사업 조건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이 선차적으로 중요하다.

방대한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며 높은 기술을 요하는 전기 기계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보지 않은 생소한 일이다. 우리들은 대단한 결심을 갖고 이에 달라 붙어야 하며 일부 일'군들 속에 남아 있는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현존 동력 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며 전기 기계 공업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광범한 인민 대중들 속에 전기에 대한 과학 지식을 적극 보급하는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는 것이 극히 필요하다.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긴급히 해결하여야 할 이 력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예롭고 보람찬 일로 된다.

각급 당 단체들은 전기 공업 발전이 가지는 정치 경제적 의의를 근로자들 속에 침투시킴으로써 그들이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들을 타개하고 전기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분야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도록 조직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투기성, 소극성을 극복하고 당의 수산 정책을 관철시키자

김 성 록

지난 6월 11일 강원도 수산 부문 당 열성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높은 기술적 토대 우에서 심해 및 원해 어업과 중 세소 어업을 옳게 배합하며 천해 양식과 담수 양어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수산업에서 계절과 흉풍에 구애됨이 없이 도처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동시에 가공품의 생산을 가일층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수산업에 대한 일관된 기본 방침이다.

당 중앙 위원회 1957년 4월 전원 회의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침에 근거하여 지난 기간 수산 부문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조선(造船) 공업과 어구 자재 생산 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초하여 수산업의 기본 생산 수단들인 어선, 어구 등은 급속히 장성되였다.

그리하여 1958년에 수산 부문은 1949년에 비하여 2.7배나 더 많은 기계선을 가지게 되였으며 수배에 달하는 어구들을 갖추게 되였다. 이 밖에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각종 규모의 통조림 공장, 랭동 공장, 훈제품 및 련제품 가공 공장들이 건설되였다.

수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축성 강화됨에 따라 수산물 생산량은 급속히 장성하였는바 1958년에 1949년에 비하여 어획고는 실로 250%에 달하게 되였으며 인구 1인당 어획량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수산업은 1957년 4월 전원 회의 이후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민 경제의 다른 부문에 비하여 매우 뒤떨어지고 있으며 날로 장성하는 인민들의 수요에 수응하지 못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거듭되는 배려에 의하여 부단히 장성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수요는 오늘 육류, 우유, 계란 등 축산물과 함께 더 많은 수산물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은 축산업과 수산업을 최단 기간 내에 추켜 세워 육류와 어류를 풍족하게 공급할 것을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 시기 수산업의 급속한 발전, 이것은 제 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의 하나인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보다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요구는 경공업과 농업에 더 많은 원료와 가축 사료 및 어비를 공급하기 위한 과업과 관련하여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 시기 수산업을 급속히 추켜 세워야 할 다른 필요성은 해안 지대 인민들의 생활을 더 빨리 향상시키는 문제와도 관련되여 있다.

이러한 긴절한 요구로부터 김 일성 동지는 강원도 수산 부문 당 열성자 회의에서 수산업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우리 당의 수산 정책을 관철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교시하였다.

우리에게는 현실의 요구에 적응하게 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이 구비되여 있다.

그것은, 우선 우리 나라의 3면이 풍부한 수산 자원을 가진 바다로 둘러 싸여 있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수산업을 가일층 발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당 중앙 위원회 1957년 4월 전원 회의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당 결정들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에서 제시된 수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과 방도가 있으며, 이 부문 일'군들이 당 정책에 근거하여 수산업을 개진시키려는 열성이 또한 높아졌다.

그런데 어찌하여 수산업은 이와 같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요구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 결정이 정확히 관철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산 부문의 각급 기관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함이 부족하였으며 조직 사업을 잘 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수산 부문 내에 일시 잠입하였던 반당 종파 분자들과 일부 불건실한 자들은 당 수산 정책을 시비하며 의식적으로 외곡하여 집행함으로써 커다란 해독을 끼쳤으며 그 여독은 아직 철저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기 청진 수산 사업소 내의 로동자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수상 동지가 표시한 대로 1,000 마리의 고래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고 포창을 제작하며 포수를 지원하여 나섰을 때 당시의 일부 불건실한 지도 일'군들은 《고래 1,000마리를 잡으라는 것은 고래를 많이 잡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금년에 300마리만 잡으면 된다》고 하면서 포경 어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외곡하였다.

중 세소 어업과 심해 어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의 수산 정책에서 일관된 기본 방침으로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세소 어업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느니, 《어로 조직이 복잡하다》느니 하면서 당 정책에 대하여 외면하는 일'군들도 있었다.

당이 하라는 대로 일한 곳들에서는 모두 일이 잘 되고 계획이 초과 완수된 반면에 이와 같이 당 정책을 시비하며 외곡한 자들이 《지도》한 곳들에서는 계획을 계속 미달하게 되였다.

또한 《당 정책을 잘 실행하지 않은 것은 투기성을 계속 버리지 않고 중 소 어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데서, 심해 어업에 대하여 구호로만 웨치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데서, 또한 양식 사업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김 일성, 《수산업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투기성, 이것은 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우리 당의 정책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성과 계획성을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 경리와 배치되는 낡은 사상 잔재이다. 투기성의 해독적 후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금년도 1.4 분기에 함남도 광천군 봉화 수산 협동 조합에서는 적은 목선들을 가지고 자망 연승 등 중 세소 어업을 쉴사이 없이 광범히 진행함으로써 1,150여톤의 각종 수산물을 생산하여 자기 계획을 200% 이상 실행한 반면에 그와 린접하고 있는 룡대 수산 사업소에서는 6척의 기선과 수십척의 목선 등 배 이상의 설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 세소 어업을 홀시하고 큰 고기떼만 기다린 결과 같은 기간에 불과 553톤의 물'고기밖에 잡지 못하여 자기 계획을 65.1%로 미달하였다. 또한 함북도 김책시 은호 수산 협동 조합에서는 연승 작업을 비롯한 각종 중 소 어업을 진행하며 기망 회수를 높여 금년 1.4 분기 계획을 123%로 초과하였으나, 《세소 어업은 왜놈이 잘한 것이다. 우리는 아직 기술이 부족하므로 시험적으로 해야 한다》고 운운하면서 세소 어업을 조직하지 않은 청진 수산 사업소 일'군들은 상반년 계획을 엄청나게 미달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투기성은 수산물 생산에 크나큰 해독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적지 않은 일'군들은 대어군이 회유하는 계절적인 어기만을 노리면서 《일확 천금》을 꿈꾸고 있다.

수산 부문에서 당 정책이 정확하게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투기성과 함께 이 부문 일'군들 속에 뿌리박혀 있는 소극성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의 수산 일'군들은 마치 대해를 정복하는 기세로써 용감하게 진출하여 주인을 기다리는 고기를 대량적으로 잡아야 하겠다. 깊은 곳에 나아가 잡고 들어 오는 것을 마주 나가 잡고 들어 온 것을 잡고 나가는 놈을 따라가 잡으며 이것도 소규모적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대규모적으로 많이 잡아야 하겠다》(《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292—293페지)고 교시하였다.

당 정책에 충실한 우리의 수산 일'군들은 이 교시를 실천하여 심해와 원해에 적극 진출하며 출어 일수와 기망 회'수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어획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사철 계속 많은 고기를 잡아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일'군들 중에는 심해와 원해에는 나가지도 않고 연해에서 계속 맴돌이치고 있는 현상들과 심지어 《일기 불순》을 구실로 출어를 기피하는 소극적인 현상들까지 존재하고 있다.

심해 어업에서 적극성과 소극성은 다음과 같은 대조적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함남도 전진 수산 사업소 내 일'군들은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의 기간에 심해선 1척당 평균 어획고를 248.7톤으로 보장하였으나 그보다 심해 자원이 풍부한 어장을 가까이 가진 단천 수산 사업소는 심해선 1척당 평균 어획고가 119톤에 불과하였다. 전진 수산 사업소 일'군들이 성과를 달성하게 된 비결은 어디 있는가? 그들은 금년 1월에만 하여도 출어 일수를 25일 이상 보장하면서 200—300메터의 심해에 적극 진출하여 기망 회'수를 부단히 높임으로써 건당 생산량을 136.6톤에 달하게 하였다. 반면에 단천 수산

사업소 일'군들은 소극성에 사로잡혀 같은 기간에 출어 일수를 20.8일밖에 보장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해에 진출하지 않고 근해에서만 돌고 있은 결과 기망 회'수는 평균 4.1회, 건당 생산량은 66.4톤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일부 수산 일'군들은 《심해에는 고기가 없다》는 부당한 구실하에 대담하게 심해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수산 부문에서 소극성은 비단 심해 작업과 적극적인 출어전을 하지 않는 데서 뿐만 아니라 선박 수리 기일을 지연시키는 데서, 새 어장을 대담하게 개척하지 못하며 양식 사업과 담수 양어 사업을 경시하는 데서도 표현된다.

일부 조선소들과 선박 수리 공장 일'군들은 선박 수리 기일을 왕왕 2—3개월 간씩 지연시키는 것을 례사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산 과학 기술 일'군들은 해양 조건의 변동 상태, 해류의 이동과 같은 연구 사업에 적극 나서지 못하며 과학적인 탐색 사업도 없이 《정어리떼가 나타나지 않는다》, 《고등어떼가 오지 않는다》고 앉아서 읊고 있다.

담수 양어 사업에서도 소극성이 퇴치되지 못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체 농업 협동 조합들이 금년 내에 56억 마리의 새끼고기를 확보하여 논판들과 저수지들에 방류하기로 된 계획은 지난 6월 20일 현재 불과 20%밖에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 당 수산 정책이 불만족하게 실천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수산 지도 일'군들이 관료주의적으로 사업하며 보수주의와 경험주의에 사로잡혀 발전하는 현실을 바로 보려 하지 않으며 계속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낡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과 관련되고 있다.

수산 부문의 적지 않은 일'군들은 밑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귀담아 듣지 않고 아무런 과학적 타산도 없이 관료주의적으로 사업을 내려 먹이고 있다.

강원도 수산 관리국의 전 지도 일'군들은, 문천 수산 사업소 로동자들이 당의 붉은 편지를 토의하면서 200건의 호망을 생산에 도입할 것을 결의하고 해당한 자재를 요구하였을 때 관료주의적으로 100건을 삭감하여 버렸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0건에 해당하는 자재도 7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보장해 주었다. 또한 경험주의와 관료주의에 물젖은 일부 수산 일'군들은 정치 사업을 통하여 대중을 교양하고 설복하는 것이 아니라 욕설로써 자기의 사업을 대치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이 수산업이 계속 타 부문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으며 당 중앙 위원회 1957년 4월 전원 회의 결정이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부문 지도 일'군들 속에 투기성, 소극성, 경험주의, 관료주의 등의 낡은 사상과 낡은 사업 방법이 지속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그러면 어찌하여 수산 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극복되지 못하고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가?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수산 부문 내에 당적 사상 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날 수산 부문에 잠입하였던 반당 종파 분자들이 뿌려 놓은 사상적 여독은 아직까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수산 부문 일'군들 속에서는 당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혁명적인 전개력과 당성이 충분하게 발양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성 내 일부 책임 일'군들을 비롯한 산하 기관, 기업소 내 적지 않은 일'군들은 아직도 당 결정을 형식적으로 대하며 해당한 정치 사업과 조직 사업을 옳게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데로부터 당 수산 정책, 특히는 1957년 4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이 근로자들 속에 깊이 침투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지방 당 단체들과 수산 부문 내 당 단체들 앞에 제기되는 과업은 우선 4월 전원 회의 결정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침투하고 그의 실행 대책을 구체적으로 토의하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4월 전원 회의 결정은 낡아진 것이 아니다. 그 결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아직도 우리의 중요한 과업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수산 부문 내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4월 전원 회의 결정이 어떻게 집행되였는가, 안 된 것은 무엇이며 그를 집행하기 위하여 어떤 고리를 틀어 잡을 것인가 등 구체적인 문제를 토의함과 동시에 주요하게는 4월 전원 회의 결정 재토의 사업 행정을 통하여 투기성, 소극성,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경험주의 등 낡은 사상들과 종파 여독을 극복하고 수산 부문에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수산 부문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성 단련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 것과 함께 간부 사업을 개선 강화함으로써 수산 일'군들의 대렬을 질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또한 당 단체들은 수산 부문 내 전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어로 로동자들 속에 남아있는 낡은 습성을 철저히 근절하고 그들로 하여금 당 수산 정책을 관철하는 것이 자기 앞에 부과된 가장 고상한 혁명 임무라는 것을 자각케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어로 일'군들 속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개인 리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강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수산 로동자들이 국가와 사회 재산인 어선과 어구들을 잘 관리하며 사나운 바다에서 전개되는 긴장된 투쟁에서 서로 도와 주고 서로 의지하는 동지적 기풍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전원 회의 결정 재토의 과정에서 이러한 대책들이 취해짐으로써만 수산 부문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며 낡은 사상과 낡은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타파하고 우리 당의 수산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다.

또한 현 시기 당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산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일층 강화하는 것은 이 부문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수산 부문 내 당 단체들은 온갖 예비를 동원하여 각 도들에서 어망과 와이야 로뿌 등 각종 어구 자재들을 충분히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공장들을 급속한 시일 내에 신설 확장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또한 수산 부문에서 어렵고 힘든 작업의 기계화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국 산하에 종합적인 기계 공장들을 설치하며 매개 지역에 선박 수리 공장 또는 수리 쩨흐들을 신설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강력히 전개하여야 하는 바 이것은 선박 수리 기일을 단축하며 년중 280일 이상 출어를 보장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수산 부문에서 기술적 혁신을 일으킴에 있어서 기술 기능 일'군 양성 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전망성 있게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조직하며 특히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수산 부문에 광범히 진출하고 있는 청년들을 이 사업에 적극 망라시켜야 한다.

수산 부문에서 보수성과 침체를 배격하고 이 부문 사업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새 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을 대대적으로 바다에 진출케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매개 당 단체들은 청년들로 하여금 이 부문에서 모든 사업의 앞장에 서서 새로운 방법, 적극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더 많이 잡도록 그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백방으로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수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투쟁이 비단 수산 부문 일'군들이나 해안 지대 주민들에게 국한된 사업으로 되어서는 커다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수산 부문 내의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물론, 모든 지방 당 단체들과 정권 기관들이 당 수산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사업을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수산업이 전 당적인, 전 인민적인 사업으로 되며 수산업에서 소극성과 투기성, 경험주의와 관료주의가 극복될 때에만 당 중앙 위원회 1957년 4월 전원 회의 결정은 철저히 실행될 수 있으며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사철 고기를 잡으며, 집단적으로도 잡고 분산적으로도 잡으며, 원해에서도 잡고 연해에서도 잡으며,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으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식으로 쉼새없이 모든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원만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혁명적 열정과 과학적 타산

김 관 영

7월 9일부 《로동 신문》에 게재된 황남도 신천군 인민 위원회 사업에 관한 자료는 우리들에게 심중한 교훈을 준다.

신천군 인민 위원회는 금년도에 집약 농법을 광범히 도입하여 벼 생산고를 작년도 실수확의 6배(금년도 국가 계획의 2.5배)로 제고할 것을 《타산》하였다. 이리하여 자급 비료는 70리나 떨어진 산간 지대에 가서 부식토를 긁어 모아 논에 정당 100톤씩 내기로 토의하였다. 이 때 일부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은 수송 문제를 구체적으로 타산한 후 사업에 착수하자고 십분 정당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군 지도 일'군들은 《어쨌든 수집하여 놓고 보자》고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일축하여 버렸다.

이리하여 지난 3월 초까지 군내 15개 리에서 연 10만 여명이 꼬박 동원되여 42만 여톤의 부식토를 산 가운데 수집하여 놓았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보니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운반하는가에 걸렸었다. 개략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이것을 70리 밖에서 운반해 오자면 군내에 있는 자동차, 우차 등의 모든 운수 수단을 전적으로 동원한다 치더라도 무려 6년 9개월은 걸려야만 하였다. 이리하여 결국 수 많은 로력이 동원되여 수집한 부식토 42만 여톤 중에서 운반해 온 것은 2,000톤밖에 안되게 되였다.

그러한 결과 어떻게 되였는가? 군내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집약화 농법의 요구에 맞게 충분한 자급 비료를 시비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적지 않은 면적에 백파를 하는 엄중한 사태까지 빚어내였다. 그리고 다수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로력의 긴장성으로 말미암아 심경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으며 군'적으로 전체 논 면적의 70%에 계획했던 랭상모도 34%밖에 도입하지 못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자급 비료의 다량 시비와 심경이 보장되지 않은 조건하에서 많은 면적에는 밀식도 제대로 도입할 수 없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가운데서 나타난 부분적인 결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에서 최근 시기 우리 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열정에 과학적 지도를 따라 세우는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 과업이며 이 과업의 조속한 해결이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견지함에 있어서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그러면 대중의 혁명적 열정과 과학적 타산의 결합——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해 보기로 하자.

인민 대중이 력사의 의식적인 창조자로 진출하는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는 그 변혁의 심도와 속도가 심각하면 할수록 대중의 혁명적 열정은 비상히 앙양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천리마 운동은 그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 사실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대중의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 열정도 그것이 객관 조건에 대한 과학적 타산과 예견을 가진 치밀한 조직 지도 사업과 밀접히 결합됨이 없이는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할 수 없으며 사업에서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대중의 혁명적 열정과 과학적 타산을 서로 결합하는 것은 맑스주의의 고유한 특징이다.

웨. 이. 레닌은 일찌기 다음과 같이 썼다: 《맑스주의는, 객관적 사정의 분석과 객관적 진화 행정의 분석에 있어서의 완전한 과학적인 랭정성이 대중들…의 혁명적 정력, 혁명적 창발성, 혁명적 주동성이 갖는 의의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인정과 훌륭히 결합되여 있는 점에서 기타 모든 사회주의적 리론들과 구별된다》(전집, 제 13권, 조선문 판, 28페지—— 방점은 필자의 것).

맑스주의의 이러한 특징은 맑스주의 그 자체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온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는 혁명적 과학이다. 이것은 세계를 개조하는 과학인 것만큼 비상히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엄밀한 과학성에 의거하고 있다. 혁명성과 과학성은 맑스주의에 있어서 불가분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일부 일'군들은 대중의 혁명적 열정과 객관 조건에 대한 과학적 타산 간의 이러한 변증법적 관계를 잘 모르고 있다. 우리 일'군들의 이러한 약점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저해를 주고 있다.

일부 일'군들은 객관 조건에 대한 과학적 타산이 중요하다 하여 객관 조건을 절대화하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굴복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곤난한 조건만을 보면서 지어는 그것을 더 과장하여 생각하며 이미 발생되였거나 발생되면서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보지 못하며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열정을 보지 못한다. 이것은 과학적 태도가 아니며 혁명 정신과도 위반된다.

이러한 태도는 지난 기간의 일련의 사상 투쟁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로 극복되였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낡은 사상 의식의 표현인 것만큼 이미 완전히 청산되였다거나 앞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당이 축산업을 결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의 기본 고리로서 2모작에 의한 사료 문제의 해결을 제기하자 농업성 내의 일부 지도 일'군들은 《기후가 맞지 않는다》느니, 《지질이 적당치 않다》느니, 《경험이 없다》느니 하면서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모두가 객관 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지 못하며 사업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난관들을 극복 타개하려는 투쟁 정신이 부족하며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열정을 보지 못하는 보수주의 사상이다.

다른 한편 또 일부 일'군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혁명적 대고조의 물'결을 타고 그에 현혹되여 객관 조건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잘 타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객관 조건이란 아무 것도 아니며 대중의 혁명적 열정만 있으면 극복 못할 조건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모험주의로 나아간다. 바로 이러한 실례를 우리는 신천군 인민 위원회의 사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곳 지도 일'군들은 군내 농업 협동 조합원들의 혁명적 열정이 고도로 앙양되였으니만치 무엇이든지 《호소》만 하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함이 없이 마구 내려 먹였다. 그러한 결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여 결국 금년도의 알곡 생산에 적지 않은 저해를 주게 되였다. 객관 조건에 대한 과학적 타산이 없이 되는 대로 일하며 《허풍치기》를 좋아하는 그릇된 작풍도 적지 않게 이러한 관점과 관련되여 있다.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은 혁명적 열정만 강조하고 객관 조건을 무시하거나 이와 반대로 객관 조건만을 강조하고 혁명적 열정을 무시하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편향을 다 같이 반대한다. 우리가 보수주의, 소극성을 반대하는 것은 객관 조건에 대한 과학적 타산을 홀시해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라는 것은 결코 열정과 욕망 하나만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 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은 일정한 법칙에 의하여 호상 련관되고 호상 제약되면서 운동하고 있다. 맑스주의자들의 실천적 활동의 의의는 객관 세계의 이러한 법칙을 정확히

인식 파악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세계를 개조하는 데 있다. 따라서 매개 지도 일'군들은 세계를 개조하려는 높은 혁명적 열정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객관 조건에 대한 과학적 타산의 태도도 가져야 한다. 이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함에 있어서 첫째 가는 요구로 된다.

매개 지도 일'군들에게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혁명적 열정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명적 열정은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나 그것을 집행할 때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실제 사업 행정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보다 복잡하며 이러저러한 곤난과 애로들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떠한 곤난에 부닥쳤을 때 지도 일'군 자신들이 그 앞에 굴복하여 의기 소침해진다면 그것은 전체 사업 행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열정까지도 저하시킨다.

매개 지도 일'군들의 혁명적 열정은 객관 현실에 대한 과학적 타산의 태도와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

과학적 타산은 실정에 대한 정확한 료해를 전제로 한다. 실정에 대한 정확한 료해란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료해가 아니라 바로 구체적인 료해, 깊은 료해, 명백한 료해를 의미한다. 실정에 대한 이러한 료해가 있어야만 자체 실정에 적응한 옳은 대책을 수립하고 당 정책을 정확히 관철할 수 있다. 이러한 료해가 없이는 당 정책 관철에서 형식주의, 교조주의를 면할 수 없다.

과학적 타산은 현존 조건에 대한 단순한 《타산》이 아니라 내부에 잠재하고 있는 모든 예비와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타산을 의미한다. 이것은 당 정책 관철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당 정책 관철에서 보수주의자들은 《객관적 조건》, 《공칭 능력》, 《수'자》 등에 매여 달려 실행 곤난을 운운하면서 모든 예비와 가능성들에 대하여서는 눈을 감는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과학적 타산이 아니며 실정에 대한 몰리해이다. 이와 류사한 현상들이 현재도 일부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일'군들은 기계를 비롯한 모든 조건들을 우에서 해결해 줄 것만을 기다리면서 자기 공장, 자기 지방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현실에 대한 과학적 타산과 인연이 없으며 따라서 곧 시정 극복되여야 한다.

객관 현실에 대한 과학적 타산은 현재에 대한 옳은 리해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견성도 의미한다. 미래에 대한 과학적인 예견성은 사업 집행 행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난관과 새로운 문제들을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한다. 만일 이러한 예견성이 없다면 난관이나 새 문제에 부닥쳤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며 자신심을 상실하며 소극적인 립장을 취하면서 대중을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줄기차게 조직 동원하지 못하게 된다. 예견성있는 타산은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매개 지도 일'군들은 과학적 타산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지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과학적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선후차와 그의 중심 고리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에는 우리가 반드시 틀어 쥐여야 할 중심 고리가 있다. 이 중심 고리를 풀으면 이여의 모든 고리들은 자연히 풀리며 따라서 그 국면은 타개되고 새 국면이 전개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중심 고리를 포착하지 못하여 여기 저기에 력량을 분산시키거나 중심 고리를 잘못 잡아 력량을 그릇 조직 동원한다면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에로 돌아 가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지도 일'군들은 사업의 선후차와 그의 중심 고리를 정확히 포착하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는 데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 당은 최근에 진행된 6월 전원 회의에

서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기본 고리로서 기계화 작업에 의한 2모작의 광범한 실시로 사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를 제시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 축산업은 공고한 사료 기지를 조성함이 없이는 발전시킬 수 없다. 왜냐 하면 종전과 같은 밥찌끼나 농업 부산물만을 가지고는 대규모적 축산업이 요구하는 사료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지가 제한되여 있고 방목지가 적은 우리 나라에서 사료 기지를 조성하자면 2모작을 광범히 실시하는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2모작에 의한 사료 문제의 해결——이것은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튼튼히 틀어 쥐여야 할 기본 고리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2모작에 의한 사료 문제의 해결은 파종, 수확, 운반, 탈곡 작업 등이 배로 증가되므로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이에 선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관철하여 나라의 기계 공업의 토대를 축성한 오늘에 와서 2모작 문제를 제기했으며 가까운 년간에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할 구체적인 방도도 제시하였다. 총괄적으로 말하여 기계화 작업에 의한 2모작의 광범한 실시로서 사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것은 오늘 우리 나라의 실정하에서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기본 고리이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언제나 유물 변증법적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 사업의 선후차와 해당 단계에서의 중심 고리를 정확히 타산하고 그것을 인민 대중의 혁명적 열정과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항상 빛나는 승리를 거두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힘은 바로 이와 같이 대중의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 열정에 과학적인 지도를 밀접히 결합하는 데 있다. 만일 우리의 지도 일'군들이 맑스주의 유물 변증법의 원칙을 철저히 체득하고, 바로 우리 당 중앙 위원회가 항상 그러한 것처럼 혁명적 열정을 고도로 높이고 객관 조건에 대한 과학적 타산의 태도를 견지한다면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 높은 혁명적 고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세계를 개조하려는 우리 맑스주의자들의 과학적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학습은 당 사업이다

오 윤 수

우리 당은 현 시기에 일'군들의 학습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면서 학습을 바로 당 사업으로 간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의 학습 문제——이것은 결코 우연하게 제기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이 오늘날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지 않고는 더는 추진되기 어려운 그런 높은 단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실로 일'군들의 학습은 현 시기 우리 사회, 우리 혁명을 더한층 비약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김 일성 동지는 《하루에 3—4시간씩 꾹꾹 의무적으로 공부하라. 공부 안 하고는 경제를 운영할 수도 없고 사회 발전을 촉진시킬 수 없다》(《함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고 교시하였다.

일찌기 쏘련에서도 10월 혁명 후 얼마 안 되던 1923년에 레닌은, 훌륭한 쏘베트 국가 기관을 건설하는 데는 《문화》, 《지식, 교양, 훈련》의 요소들이 필요한데 쏘련의 근로자들속에 이것이 극히 적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들의 국가 기관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다음과 같은 과업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첫째로 배워야 하며 둘째로 배워야 하며 세째로 배워야 하며 또 그 다음에…우리들의 과학이 실지로 우리들의 살이 되고 피가 되여 완전히 그리고 참으로 사회 생활의 구성 요소로 되게하기 위하여 그것을 검열하여야 한다》(1923년제 론문, 모쓰크바, 조선문 판, 52—53페지, 《적게 해도 좋으니 잘 하라》, 방점은 필자의 것).

우리들도 오늘 지도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또 배워야 하며 그것도 바로 실제 사업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일'군들은 아직도 《사업이 바쁘다》 하여 학습을 잘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말로는 한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어떤 사업을 물론하고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동원되지 않고는 일이 잘 될 수 없다. 학습도 례외로는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일'군들이 학습하지 않고는 자기 사업을 더는 보장할 수 없고 따라서 학습은 절박한 당적 과업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기만 한다면 사태는 달라질 것이다.

혁명적 리론이 없이는 혁명적 실천도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 것을 창조하는 사업이며 사회와 세계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사회와 세계를 모르고는 그것을 개조할 수 없다. 생산을 하는 데는 자연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와 세계를 개조하는 데는 사회 과학의 지식이 없이는 안 된다. 맑스—레닌주의의 위력의 원천의 하나는 리론과 실천의 통일에 있다.

모든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무기를 튼튼히 틀어 쥐고 그것을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데서만 백전 백승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를 개조하는 혁명 사업에 참가하는 전체 공산주의자들, 당원들에게 있어서도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소유하는 것은 의무로 되며 필수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이상은 누구나 다 승인하는 사실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 력사도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언제나 맑스—레닌주의 과학에 엄격히 의거하여 그것을 우리 혁명의 구체적 정세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매 계단, 매 시기마다 우리 인민의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향도하고 있다.

우리 일'군들은 당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교양 받으며 실천을 통하여 배움으로써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중속에서 당 정책을 구현하는 자기 사업을 기본적으로 원만하게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혁명적 실천과 일'군들의 리론적 준비 간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조성되였다. 현실의 발전은 우리 일'군들의 리론적 준비를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조성된 새로운 환경은 모든 사업에서 천리마의 속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지에 사회 발전의 속도는 하루가 20년에 해당한다. 우리의 경제, 문화 생활에는 매일과 같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며 해결을 요구한다. 당은 부단 혁명의 방침을 견지하면서 계속 새로운 과업들을 제기한다. 이것은 우리 혁명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다. 제기되는 새로운 과업들은 주먹치기나 수공업적 방법으로는 그 실천을 지도할 수 없는 그러한 과업들이다.

그런데 일부 일'군들은 당이 제기하는 과업들을 제때에 옳게 받아 물지 못한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일부 일'군들은 당 정책을 본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며 하부 실정도 잘 료해하지 못하고 사업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며 형식주의, 교조주의에 빠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되는가, 문제는 그들이 잘 모르는 데 있다.

그들은 당 정책의 본질을 모르며 그 기초에 놓여 있는 유물 변증법의 원리들과 우리 나라의 전반적 정세를 잘 모르며 자기 지방의 구체적 형편도 잘 모르고 있다. 그들은 알고 있다고는 하나 막연하게 알고 명확하게는 모르며 일반적으로만 알고 구체적으로는 모르며 얕게 알고 심오하게는 모르고 있다.

막연한 지식으로는 오늘 사업을 지도할 수 없다. 우리들이 만약 당 정책을 옳게 받아 물지 못하며 잘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첫째로 학습하여야 하며 둘째 세째로도 학습하여야 한다. 학습하지 않고는 형식주의, 교조주의를 퇴치할 수 없으며 현실의 요구에 지도 사업을 따라 세울 수 없다.

우리들의 임무는 당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선차적으로 당 정책을 학습하여야 하며 우리의 현실, 우리 당의 투쟁 력사를 연구하여야 한다. 당 정책은 맑스—레닌주의 원칙들을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때문에 당 정책과 당의 투쟁 력사를 심오하게 본질적으로 리해하자면 우리는 반드시 맑스—레닌주의 원칙들, 특히 유물 변증법의 원리들을 연구하고 체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하자면 무엇보다도 독서하여야 한다. 우리는 물론 강연도 들을 수 있고 강습도 받을 수 있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 일'군들은 일하면서 학습하여야 하는만큼 학습의 기본 방법으로 되는 것은 독서에 의한 자체 학습이다.

독서에서 우리는 지식을 얻는다. 지식이란 결국 경험을 일반화한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총화하여 지식을 넓힐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제한된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물론하고 수백 수천만 대중의 경험, 당의 투쟁 경험, 선진 국가들의 경험에서 배워야 하는바 이것은 주로 서적을 통해야 한다.

우리는 독서를 통하여 선진 사상, 선진 과학, 기술을 배우며 정치적 시야를 넓히며 사고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독서는 우리들이 자체로서 체험할 수 없는 풍부하고 폭 넓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사업에서 우리들을 크게 도와 준다. 맑스를 위시하여 력사상의 대사상가, 대과학자, 대작가들은 례외없이 대독서가들이였다.

독서하는 데는 물론 방법이 문제로 될 수

있다. 독서가 실제 사업, 실천의 목적과 유리되여 다만 독서를 위한 독서로 된다면 그것은 시간을 랑비할 따름일 것이다. 지식이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실제 사업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자면 독서하는 태도에서부터, 자기 사업을 개선하며 크게는 세계를 개조하는 데 복무하려는 명백한 목적 지향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독서에서 얻는 지식을 바로 실제 사업에서 써보고 검열하며 공고히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도 일'군들은 독서할 뿐만 아니라 글도 많이 쓰고 대중 앞에 자주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을 쓰고 출연하는 것은 대중을 교양하고 설복하는 방도로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상과 지식을 정돈하고 확고히 하며 명확히 하는 좋은 방도로도 된다.

학습하자면 물론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부 일'군들은 《사업이 바쁘다》, 《시간이 없다》 하면서 사실상 학습을 태공하고 있으며 자기는 안 하면서 하부에만 독촉하고 있다.

우리들의 사업이 최근 시기에 특히 바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자기의 지식 수준을 높여 사업을 개선하려는 굳은 결심이 있다면 과연 학습할 시간을 얻어 낼 수 없겠는가. 결심이 있고 열성만 있다면 생활과 사업을 잘 조직하는 데서 시간을 짜낼 수 있다. 없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옳은 인식이며 옳은 태도일 것이다. 누구보다도 혁명 사업에 바쁜 우리의 지도자들은 여가가 있어서 학습하고 연구하는 것이겠는가.

오늘 《학습은 당 사업이다》. 그것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당적 과업과 같이 학습도 의무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당적 과업이다.

만약에 우리들이 당면한 사업이 바쁘니 우선 발등에 불을 꺼놓고 보자는 식으로만 지나간다면 아마도 혁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러고 보면 죽는 날까지 학습할 시간은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업에서 막히고 있으며 막히기 때문에 사업에서 더욱더 바빠만지고 있다. 사업은 바빠지는데 학습은 하지 않고 사업 능력을 제고하지 않으니 점점 더 바빠질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뿐이다. 사업 조직을 혁신하고 대담하게 시간을 짜내여 무조건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리론의 무기에 날을 세운다면 사업 능력은 제고되여 바쁜 것은 완화되고 사업 성과는 높아질 것이며 독서할 시간도 더 많이 얻어질 것이다.

생산에서 새 기술을 도입하면 일은 헐해지고 시간을 절약하고도 성과는 커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도 사업에서도 학습을 잘 하면 사업 능력이 높아져 일은 헐하게 되고 시간은 절약하면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학습은 물론 용이한 일이 아니다. 세상에는 쉬운 일이란 없다. 하물며 자연과 사회의 비밀을 탐지하며 법칙을 알아내며 진리를 탐구하는 학습이 어찌 용이한 일이겠는가. 학습이란 원래 곤난을 무릅쓰고 꾸준히 독서하며 사색하는 완강한 투지와 인내성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며 고도의 정신적, 육체적 긴장을 요하는 투쟁 과정이다. 적의 요새를 하나하나 돌파하는 전사의 마음이 없이는 학습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더우기 우리 근로자들은 일제하에서 독서와는 인연이 멀었으며 독서하는 습관도 적었다. 오늘 이것은 학습에서 한개의 애로로 된다. 그러나 그 어떤 애로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맑스와 같은 천재도 과학에는 탄탄 대로가 없다고 하였으며 피로를 모르고 기여 오르는 자만이 과학의 절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늘 우리들이 매일 3—4시간의 학습을 꾸준히 계속하자면 비상한 결심과 투쟁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사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대고조의 물'결을 타고 대중과 함께 전진하지 못하고 물'결에 밀려 락오자가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락심하거나 겁을 먹을 필요는 조금도 없다. 과학은 힘들기는 하나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 혁명적 로동자, 농민들은 천지

를 뒤엎고 낡은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개조하며 착취를 없애고 사람들을 개조하여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전변시킨다. 우리들이 어찌 자기 자신을 개조하여 무식을 유식으로 전변시키며 맡은바 사업을 훌륭히 보장할 수 있도록 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을 하지 못하겠는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며 직업, 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며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반드시 일하면서 배우며 배우면서 일하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실천에서 배우며 또 배운 것을 실천에서 검열 받고 실천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며 다방면적으로 발전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향하여 전진하면 할수록 로동이 습관으로 되고 생활상 첫째가는 요구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서도 습관으로 될 것이며 생활에서 없지 못할 요구로 될 것이다. 공산주의적 인간이란 인류가 창조한 모든 가치있는 지식을 소유한 문화적인 인간이다.

우리들이 공산주의자로 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학습하고 다방면적으로 학습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우선 오늘의 혁명 사업을 추진시키는 데서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도덕 교양의 강화를 위하여

리 홍 종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 문제는 더욱 더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였다. 근로 대중의 높은 의식성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된다.

공산주의 교양, 그것은 우선 근로 대중의 계급 의식과 정치적 각성을 제고하는 정치 사상 교양이며 또한 공산주의적 륜리의 정신을 배양하는 도덕 교양이다. 일찌기 웨. 이. 레닌은 《오늘의 청년의 교양, 교육 및 학습의 전 사업은 그들 속에 공산주의적 도덕을 배양하는 것이라야 한다》(전집, 조선문 판, 제 31권, 348페지)라고 교시하였다.

공산주의 교양은 결코 공산주의에 대한 지식을 소유시키는 데만 귀착되는 것이 아니다. 실천을 떠나고 투쟁이 없는 지식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된다는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그것을 실생활과 결부시킬 줄 알며 일상적으로 각이한 조건하에서 공산주의 리론과 방법을 실천에서 적용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교양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 세계관으로, 공산주의 도덕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서의 의지, 성격, 목적 지향성을 굳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 도덕의 최고 규준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이다. 계급 사회가 발생한 이래 정치를 떠난, 계급 투쟁을 떠난 도덕이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른 사회적 의식 형태와 마찬가지로 도덕도 그를 형성 발전시킨 사회 경제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복무의 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 도덕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의 리익에 복무한다.

공산주의 도덕은 선행한 력사적 시기의 인민적 도덕의 모든 우수한 특징들을 체현한 도덕적 진보의 최고 단계이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 도덕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영웅적 항일 빨찌산 투쟁 행정에서 형성 발전되였다. 항일 빨찌산의 고상한 도덕 품성은 우리 인민의 모든 우수한 도덕적 전통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 그를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우리 인민의 가장 고귀한 정신적 재부이다. 이 전통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 발전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 경제 제도의 사회주의적 변혁과 우리 당이 수행하고 있는 꾸준하고도 다방면적인 교양 사업의 결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공산주의 도덕 품성이 흘러 넘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고 있다.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위대한 발기에 의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그 명백한 표현이다. 이 운동 참가자들은 자기들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배워서 자기의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며 동시에 집단주의적 생활 규칙과 도덕 규범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답게 일하며 생활하자》라는 이들의 결의는 공산주의 륜리의 기본 원칙들도 포괄하고 있는바 이 운동은 우리 나라 근로자들 속에 거대한 도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은 사회 경제 발전보다 뒤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민의 사상, 도덕 생활의 구석구석에는 아직 낡은 잔재들이 남아있어 우리의 전진 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 당은 지금 근로 대중과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더욱 강화할 것을 교시하고 있는바 이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사상 전선에서의 계급 투쟁의 한

측면을 이루는 심각한 사상 개조 운동이다.

* *

공산주의 도덕의 기본 원칙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준칙으로 표현되는 집단주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하에서는 사회와 개인의 리익이 일치하며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매개 집단과 전체 근로자들의 동일한 목적, 유일한 의지, 행동의 통일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도덕은 근로자들에게 사회적 리익을 개인적 리익의 최고 표현으로 보며 개인적 리익을 사회적 리익에 복종시킬 것을 요구한다. 집단주의는 사회적 의무에 대한 충실성과 로동과 사회적 소유에 대한 성실한 태도, 사회의 공동 생활 규범에 대한 자각적 준수,일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비타협성 등으로 표현된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공산주의 도덕의 중요한 원칙이다. 애국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리익을 자기 조국과 인민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조국의 륭성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에 헌신성을 발휘하게 한다. 따라서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심각한 도덕적 성격을 가진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애국주의는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표현된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나라에서 로동에 대한 태도는 조국에 대한 충실성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표현이며 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성실하고 자각적인 태도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만큼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은 더욱 촉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도덕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하는 데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로동은 인간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를 창조하는 원천이며 따라서 그것은 가장 신성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수천년의 봉건 사회와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는 로동은 저주롭고 무거운 고역으로 되어 왔다. 사회주의가 승리한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은 사회와 자기 자신을 위한 참으로 자유롭고 영예로운 창조적 로동으로 전화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 천리마 기수들 속에서는 공산주의적 로동의 새 싹이 믿음직하게 자라고 있다. 2월 전원 회의의 축하와 격려의 편지를 받은 삼등—세포, 지하리—평산 간 철도 부설 공사의 공산주의적 발기자들과 6월 전원 회의의 편지를 받은 강계 청년 발전소 운봉 발전소 건설자들의 영웅적 로력 위훈이 그것을 증시하고 있다. 그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회주의 건설 위업에 헌신적으로 참가하는 데서 인간의 참된 의의와 생활의 환희를 감득하는 고상한 도덕적 감정에 불타고 있는 애국자들이다. 바로 이러한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웅대한 사회주의 건물이 급속히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남의 덕으로 살며 남의 불에 게 잡으려는 건달 습성이 완전히 청산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일'군들 속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지는 않고 개인의 출세와 허영만을 추구하면서 과장된 보고를 내는 것을 일삼는 사업에서의 허풍치기 경향이 아직 자취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서의 허풍치기는 당과 인민에 대하여 유해할 뿐이다. 가정에 파묻혀 남편의 덕에 사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녀성들이 있으며 일부 청년들 속에는 육체 로동 특히 농업 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직업의 귀천을 가리면서 어로 로동과 축산 로동에 참가하는 것을 꺼려 하며 상품 류통 및 봉사 기관에 배치되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로동과 직업에 대한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이다. 과거 봉건 사회에서 무위 도식하던 량반 지배 계급은 육체 로동을 천시하였다. 그들은 특히 어로 로동과 축산 로동을 멸시하였으며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하여 상업을 가장 낮은 자리에 놓고 천대하였다.

그러나,우리 사회에서의 로동과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모든 부문의 로동은 다 신성하고 영예로운 일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청년들로 하여금 그가 하는 로동이 작고 또한 어렵고 <어지러운 일>이라고 하여도 그가 자기를 조국 건설의 위대한 부대의 일원으로 인정하며 자기 손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며 자기 조국을 재건하는 영예스러운 역군이라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하겠다》(선집, 제2권 290페지)라고 교시하였다.

지금 우리 당은 혁명의 고조를 계속 견지하기 위하여 전체 근로자들의 긴장되고 더욱 성실한 로동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산 부문에 광범한 청년들이 진출하여 혁신을 일으킬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일'군들이 이 부문에 동원될 것을 교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근로자들로 하여금 로동과 직업에 대한 낡은 관점을 청산하고 모든 부문의 로동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로력 대군의

영광스러운 일원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로동에서 높은 자각성과 최대의 성실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의 질을 제고하고 로동 규률을 준수하며 사회적 소유를 애호 절약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로동 태도의 중요한 요소이다. 로동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회를 위하여 더 많이,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며 로동의 결과를 아끼고 소중히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작품과 불합격품을 내고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으며 전력과 강재, 목재와 쎄멘트 및 수입 연료를 비롯한 귀중한 자재와 원료를 랑비하면서도 량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산주의 건설자다운 도덕적 풍모를 찾아 볼 수 없다. 때문에 사회 여론의 일상적 관심은 로동 규률 위반 행위와 일체 탐오, 랑비 현상을 반대하는 군중적 투쟁에 돌려져야 한다.

근로자들을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로 교양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이 중요한 공간으로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생산력 발전이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전체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로동이 생활상 제 1차적인 요구로 전화되지 못한 조건하에서 로동의 량과 질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의하여 분배하는 원칙은 사회적 생산을 앙양시키며 동시에 근로 대중을 공산주의적 로동 태도와 규률 준수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리기주의적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유력한 수단으로 된다. 일부 농업 협동 조합의 실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원칙의 위반은 공동 로동에 대한 태만과 리기주의를 조장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로자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도덕적 자각성을 제고하는 교양을 강화하는 동시에 물질적 관심의 원칙을 확고하게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산주의 도덕 교양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인간에 대하여 깊이 배려하는 사회주의적 인도주의의 품성을 배양하는 문제이다.

인간을 존중히 하고 인간에 대하여 깊이 배려하는 것은 공산주의 도덕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이 원칙은 인민 대중의 창조적 력량과 능력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은 근로 대중이야말로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의 창조자이며 사회 혁명의 결정적 력량이라고 인정하는 혁명적 군중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혁명적 군중 관점으로부터 우리 당의 인민적 사업 작풍이 필연적 요구로 제기된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 향상에 대한 일상적 배려를 자기 활동의 최고 법칙으로 삼고 있다. 모든 경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은 근로 대중의 장성하는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 충족에 최대의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당은 로동 과정의 기계화에 의하여 로동 조건을 개선하는데 일상적으로 배려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 수준 제고에 심심한 배려를 돌리고 있다. 당은 또한 간부를 당과 국가의 보배로 알며 그들을 아끼고 그들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에 시간을 아끼지 않을 것을 교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근저에는 고상한 인도주의가 놓여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당의 모든 기관과 일'군들에게 있어서 인간에 대한 일상적 배려는 행동상 원칙이며 지도적인 행동 규칙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기의 지난 날의 처지를 잊어 버린 일부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리익에 무관심하고 그들의 요구와 의견에 대하여 관료주의적으로 대하는 비도덕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주택과 합숙, 탁아소, 세탁소를 비롯하여 채소, 두부, 된장, 간장, 기름 공급 등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침식 조건과 문화 생활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돌리라고 우리 당 중앙 위원회가 그렇게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홀히 대하며 군중에게 랭담하고 거만하며 명령과 호령의 방법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아직 있다.

인간에 대한 무관심과 소홀한 태도는 사람의 의식과 행동상에 남아있는 낡은 잔재의 하나이다. 부르죠아 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의 대'가로 자기의 행복과 향락을 추구하는 야수적 원칙이 지배한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무관심과 모욕, 거만과 표리 부동, 관료주의와 공명주의 등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 법칙에 대한 위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의 도덕적 면모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사회 여론의 규탄을 면할 수 없다.

겸손성과 소박성은 혁명자에게 고유한 미덕이다. 인민 대중을 사랑하고 그를 믿으며 그에 의거하는 혁명적 군중 관점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소박하고 겸손하며 인민들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인품과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지 않으며 자기의 공로를 과장하지 않고 우선 그것을 조직과 집단의 공로로 인정한다. 겸손성은 또한 인민 대중과의 련계를 귀중히 하며 대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대중에게서 허심하게 배우며 그들

파 한덩어리가 되는 품성에서, 달성한 성과에 도취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한 요구를 제기하는 품성에서 표현된다.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통하여 근로자들과 일'군들 속에 이와 같은 고상한 품성을 배양 발전시키는 한편 집단에서의 개인의 위치와 역할을 강조하려고 애쓰며 자기의 보잘 것 없는 지식과 공로를 평가하여 주지 않을가봐 걱정하며 대중을 멸시하고 그에게서 배우려 하지 않는 등 일체 겸손치 못한 행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 동지를 아낄 줄 알며 그를 존경하고 호상 신뢰하고 원조하는 것은 혁명 전사의 불가결의 품성이다. 동지애는 무원칙하고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원칙적인 단결을 의미하며 따라서 일체 결함과 비계급적 경향과의 비타협적 투쟁을 전제로 한다. 동지 간의 결함을 호상 융화 타협하며 친척, 친우, 동향, 동창 관계 등을 구실로 가족주의와 지방주의를 조성하는 것은 혁명적 동지애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행동이며 종파의 온상을 만드는 해독적 행동이다.

현 시기 근로자들 속에서 문화적이며 건전한 생활 습성을 배양하는 것은 공산주의 도덕 교양에서 긴절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류의 모든 아름답고 선량한 념원을 실현하는 높은 정의와 미의 사회이며 사람들의 개성과 능력, 정신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되는 사회이다. 이런 문명한 사회를 건설하며 또 그 락원에서 살게 될 사람은 마땅히 문화적인 생활 습성의 소유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과거 일제의 식민지적 압박과 가혹한 착취하에서 매일의 끼니를 걱정하던 우리 나라 근로자들에게는 문화적인 생활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 인민의 빈궁과 비문화적 생활의 근거가 청산되였으며 당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전체 근로자들이 문화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조성되였다.

그러나 건설 확장되는 훌륭한 문화 시설들은 일부 잘 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에는 아직 낡은 비문화적인 생활 인습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현대적 주택과 문화 시설들을 애호하지 않고 불결하게 하며 자기의 주위 환경을 청소 미화하는 데도 무관심하며 공중 장소에서 응당한 질서와 례절을 위반하는 파렴치한 행동은 사회주의 사회에는 용납될 수 없는 비문화적 행동이다. 문화적인 생활 습성의 배양은 우선 자기의 주위를 일상적으로 청소, 정돈, 미화하고 례절을 잘 준수하는 데로부터 시작하여 공중 시설을 애호하고 군중 도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기풍을 확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들 속에서 매일, 매 주일의 로동과 학습과 휴식을 문화적으로 조직하며 수입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등 질서있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습성을 배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는 로동과 학습도 잘 할 뿐만 아니라 휴식도 문화적으로 하는 명랑하고 락천적인 생활의 주인이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자의 도덕적 풍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생활 조직이 질서없고 임금을 망탕 써버리며 휴식일에 아무런 문화 생활에도 참가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지내고 있는가 하면 음주와 불건전한 놀음으로 휴식일과 휴식 시간을 소비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다.

김 일성 동지는 강원도 수산 부문 당 열성자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 수산 일'군들 가운데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 과거의 목재소나 금점판 로동자들 혹은 배'사공들과 같이 되는 대로 살던 룸펜식 생활 관습을 다 버려야 하겠다》라고 교시하였다.

음주 방탕은 착취 제도와 사회적 불평등, 근로자들의 빈궁과 무권리가 빚어 놓은 가장 해독스러운 낡은 잔재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근로자들은 음주 방탕에서 생활의 모든 고통을 잊어 버리려고 한 일제 압박하의 낡은 생활 습성을 지속할 수 없다.

임금과 상금을 받는 날과 휴식일, 그리고 친우들과의 상봉에서 주연을 베푸는 것을 그 어떤 필수적인 것과도 같이 생각하는 낡은 잔재의 표현과 분별없이 만취하여 공중 도덕을 문란케 하는 현상들은 도덕적 규탄을 받아야 한다. 생활은 빈번한 음주가 사업 열성을 저하시키고 로동 규률과 공중 생활 규칙을 위반하게 하며 건강에 해를 주고 가정 생활에 물질적, 도덕적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일'군들을 탐오 랑비와 남녀 간의 부화한 관계, 가족주의의 조성 등 정치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어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계급적 원쑤들은 일'군들을 혁명 대렬에서 리탈시키려고 시도하면서 음주 방탕과 기타 도덕적 타락의 방법을 리용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당 단체들과 근로 단체들은 근로자들에게 남녀 관계와 가정에 대한 공산주의 륜리의 정신을 배양하며 남녀 관계에서 일체 부화하고 순결치 못한 행동, 가정에 대한 공민적 도덕적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비량심적 행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들 속에서 문화적이며 건전한 생활 습성을 배양함에 있어서 정서 교양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정서 교양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회 생활 및 예술에서의 아름답고 고상한 것을 감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일상 생활과 행동에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서 교양은 사람들의 지'적 감정과 도덕적 및 미'적 감정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우리의 도시를 록화하는 원림화 사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에게서 우리는 애국주의와 함께 고상한 미'적 감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감정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정서 교양은 도덕 교양의 중요한 측면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정서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문학과 예술이다. 인간 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내용을 반영하면서 사실주의적 문학과 예술은 근로자들 속에 새로운 심리, 새로운 도덕, 새로운 성격을 형성 발전시키는 거대한 작용을 한다.

* *

공산주의 도덕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을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 공산주의 도덕의 과학적 기초이다. 맑스-레닌주의는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도덕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의지, 성격, 목적 지향성을 단련시키는 사상적 기초로 된다.

공산주의 도덕 교양은 공산주의 도덕 원칙에 대한 선전과 함께 낡은 도덕의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계통적인 투쟁 과정에서 실현된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창조적 로동과 난관을 극복하는 투쟁은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배양하는 위대한 학교로 된다.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당의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공산주의 도덕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그의 맑스-레닌주의 사상 체계를 계승하며 동시에 그의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 겸손성과 소박성, 혁명적 동지애, 혁명적 규률에 대한 자각적 태도 등 공산주의 도덕 품성의 훌륭한 체현자들이였다.

항일 빨찌산의 숭고한 혁명 정신과 고상한 도덕 풍모는 거대한 도덕적 힘을 가지고 우리 인민의 승리적 전진을 고무하고 있다. 이 고귀한 도덕적 품성을 계승하여 빛나게 발전시키는 것은 공산주의 도덕 교양의 중심적 내용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항상 당원들과 당 일'군들이 자기의 도덕적 위신으로써 인민 대중에게 정치 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금년 2월에 있은 산업 기업소 당 조직원 및 당 위원장들, 도, 시, 군 당 위원장들의 강습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당 일'군들이 일체 행동에서 혁명적 도덕 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시면서 도덕적 수양을 강화할 것을 교시하였다.

공산주의 륜리는 사람들의 개인 생활을 사회 생활과 분리된 그 어떤 《순 개인의 일》로 보려는 온갖 시도를 배격한다.

개인 생활이 부화한 사람이 정치 생활에서 견실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경험은 개인 생활에서의 불견실성을 제때에 극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심중한 정치적 타락에로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당원들과 일'군들의 개인 생활에서의 불견실한 현상에 대하여 그것을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없이 하고 그것에 원칙적으로 심중히 대하며 필요한 지도를 주어야 할 것이다.

당 생활의 규범과 당적 륜리의 기본 요구도 표현하고 있는 우리 당의 규약의 준수는 매개 당원들과 당 일'군들의 도덕적 수양에 있어서 기본으로 된다. 규약에 표현된 당적 륜리의 요구를 성실히 실행하며 사상 단련을 부단히 강화할 때 그들의 사상적 및 도덕적 면모는 더욱더 고상하고 풍부하여질 것이며 조선 근로 대중의 선봉대의 성원으로서의 그의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지 운 섭

사회주의 혁명에서 가장 어려운 과업의 하나인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우리 나라에서 지난해에 순조롭게 완성되였다.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은 공업 및 류통 분야에서 일어난 력사적 변혁이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우리 당이 거둔 거대한 성과의 하나이다.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은 우리 나라 도시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최종적으로 청산하였으며 과도기의 기본 문제인 《누가 누구를》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농업 협동화의 빛나는 승리와 함께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으로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전일적인 지배가 확립되였으며 착취와 빈궁의 근원이 영원히 청산되였다.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며 나아가서 공화국 남반부의 전체 상공업자들을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 추동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완성된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가지는 의의는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에서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청산, 특히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청산할 데 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레닌적 협동 조합 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산 모범으로 된다.

*　　　*

과도기 프로레타리아 당의 경제 정책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의 전일적인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의 일체 자본주의적 요소를 청산함은 물론 그의 온상인 소상품 경리까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청산과 기본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확립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를 위한 필수 불가결의 전제 조건이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모든 나라에 있어서 일반적이며 합법칙적인 요구로 된다.

해방 후 우리 당은 인민 정권을 령도하여 제반 민주 개혁을 완수한 토대 우에서 점차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당은 과도기의 기본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경제 형태 특히 국영 부문의 지도적 지위를 확고히 보장하도록 그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며 수공업자들을 직접 협동화하는 한편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을 리용, 제한하면서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개조의 구체적 수단으로써 각종 협동 조합을 리용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도시에서 개인 상공업에 대한 우리 당 정책의 기본 내용이다.

우리 당은 개인 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호상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동시에 추진시켰다. 그러나 우리 당은 인민 경제 발전에서 그들이 노는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개조의 로정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두면서 협동화를 조직 지도하였다. 즉 당은 수공업에 대하여서는 과도기 첫 시기부터 생산 협동 조합(초기는 생산 합작사라고 함)을 통하여 직접 개조하였으며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해서는 그의 리용 및 제한 정책을 선행시키면서 각종 생산 협동 조합을 통하여 점차 전면적인 개조를 실시하였다.

당은 우리 나라 과도기의 특성과 개인 상공업자의

경제적 형편 및 그들의 사상 의식의 발전을 신중히 고려하여 인민 경제 발전의 매 단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제반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적극 추진시켰다.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 우리 당은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락후한 생산력과 파괴된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가져 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한 민주 기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영 경제를 전면적으로 공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각종 협동 조합의 발전에 커다란 주의를 돌리였다. 그리하여 1947년 9월에 도시의 수공업자, 가내 공업자들의 자원적 조직으로서 생산 합작사가 조직되였다(1950년 3월부터 생산 협동 조합으로 개칭됨).

조직된 생산 합작사는 조합의 경리 발전을 적극 도모하면서 온갖 중간 착취로부터 조합에 가입한 개인 수공업자들을 보호하여 그들의 생활 수준을 급속히 높이는 한편 각종 일용품과 식료품을 더욱 증산하여 국영 경공업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당시 생산 합작사 운동에는 첫째로 협동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으며, 둘째로 수공업자들 속에 분산성과 산만성이 아직도 심히 남아있었으며, 세째로 농촌에는 개인 농민 경리가 지배적이였고 도시에는 자본주의적 상공업이 인민 경제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세째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등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애로와 난관들이 있었다.

이로부터 조직 초기에는 아직 독자적인 지도 기관을 가지지 못하고 소비 조합 체계의 한 구성 부분으로 조직되였다.

당시 아직도 우리 나라 도시에서의 협동 조합 운동은 경험적 단계를 경과하고 있었다.

당은 생산 합작사를 조직 지도함에 있어서 협동 조합에 관한 레닌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조직된 합작사를 조직 경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제반 조치를 취하였다. 당은 1947년 12월,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을 채택하여 생산 합작사의 조직 원칙을 제시하고 조합 대렬의 장성을 촉진시키며 생산 품종을 확장할 데 대한 방향을 명시하였고 국가로부터 자재와 자금을 계획적으로 융통하는 대책을 취하였다.

당과 정부의 옳은 시책과 재정적 및 물질적 방조에 의하여 도시의 수공업자 및 가내 공업자의 협동화에서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으며 그의 조직 경제적 토대도 더욱 강화되였다.

1947년부터 1949년까지의 3년 간에 합작사 수는 20배 이상으로, 사원수는 약 77배로 급속하게 장성하였으며 조합의 규모와 생산 품종도 더욱 확대되였다.

당과 정부는 이러한 변경된 정세하에서 생산 합작사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1950년 3월에 생산 합작사를 소비 조합의 체계에서 분리시켜 독립적인 자기의 지도 기관을 가진 생산 협동 조합으로 개편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생산 협동화 운동에는 새로운 단계로 즉 대중적인 협동화 운동의 단계로 발전될 수 있는 토대가 닦아졌다.

개인 수공업자를 망라한 생산 협동 조합의 발생 발전은 류통 분야에서 소비 조합의 계속적인 발전, 농민들의 신용 협동 기관으로서의 농민 은행의 창설과 함께 도시와 농촌 간, 사회주의적 공업과 개인 농민 및 수공업자 등 소상품 경리 간의 경제적 련계를 점차 강화 발전시켰다. 이리하여 도시 및 농촌의 소상품 경리를 국가가 계획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점차 조성되여 갔으며 우리 나라 자본주의적 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성숙되여 갔다.

이 시기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상공업(과도기 첫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자본주의적 상공업은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1947년에 개인 공업은 공업 총 생산액에서 16.8%를 차지하였고 상품 류통에서 개인 상업은 84.5%를 차지하고 있었다)은 개인 수공업과 함께 인민 경제의 복구 발전에 요구되는 자금의 극히 적은 일부를 담당하였으며 경공업 생산이 부족한 조건하에서 인민의 물질 생활의 개선과 향상을 위한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 당은 이 모든 것을 충분히 타산하여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이 공업과 류통 분야에서 기업 활동을 자유로이 전개하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장려하였다.

이것은 1946년 10월에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서 《개인 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 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서 명백하게 표현되였다.

그러나 당은 자본주의적 상공업을 리용하면서도 그가 인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과 통제를 실시하였다.

당과 정부는 1946년 6월에 로동 법령을 발포함으로써 국영 기업소의 로동자, 사무원들의 권리 뿐만 아니라 사기업가들에게 고용되고 있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권리도 보호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자본가들

의 착취를 제한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는 루진적인 과세 체계의 확립, 고리 대금업의 법적 금지, 기업 허가제의 실시, 가격 정책 등등을 통하여 상공업자들의 부정적 측면을 제한하였다.

또한 당과 정부는 자본주의 요소들의 모리, 투기 행위와 일체 비법적 시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단함으로써 그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였으며 인민 경제의 계획화의 실시를 통하여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맹목적인 발전의 경향을 제어하였다.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우리 당의 리용 및 제한 정책의 정당성으로 하여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 사기업가들의 생산은 해마다 장성하면서도 공업 총 생산액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부단히 저하되였다.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 민영 공업 생산고의 장성 정형과 공업 총 생산액 및 소매 상품 류통액에서 개인 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다음과 같다:

분류 \ 년도	1947	1948	1949
민영 공업 생산고	100	148	150

분류 \ 년도	1947	1949
공업 총 생산액에서 개인 기업이 차지한 비중 (%)	16.8	9.3
소매 상품 총 류통액에서 개인 기업이 차지한 비중(%)	84.5	43.5

이것은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우리 당의 리용 및 제한 정책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서와 자본주의 요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지향하여 실시되였음을 의미한다.

보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우리 당의 리용, 제한 정책은 통일된 한 개 정책의 두 측면이며 상공업자들의 점차적인 개조를 지향하면서 그에 선행하여 실시된 정책이였다. 우리 당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하여 일방으로는 그가 나라의 경제 건설에 유익하게 복무하도록 긍정적 측면을 리용하며 타방으로는 인민 경제와 인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을 제한 통제하면서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왔다.

그러나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으며 리용 및 제한 정책이 전면에 나서고 있었다.

그것은 이 시기에 인민 경제에서 자본주의를 부단히 발생케 하는 소상품 경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농업의 협동화가 아직 일정에 오르지 않았던 것과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이 곧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설 수 있으리만치 사상 의식적으로 준비되여 있지 못한 데 기인되였다.

당은 전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을 추진시켰다.

전쟁에 의하여 대 중 공업 기업소들이 파괴되고 인민 생활이 곤난하게 된 조건하에서 당은 협동 단체 공업의 발전에 커다란 주의를 돌려 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가일층 촉진시키는 한편 이미 조직된 조합의 조직 경제적 지반을 더욱 강화하는 데 커다란 힘을 경주하였다.

이리하여 도시에서 사회주의적 개조 수단으로서의 생산 협동 조합은 전시에도 계속 공고 발전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 형태로서의 그의 경제적 내용도 더욱 충실해졌다.

당은 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적극 추진시키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리용, 제한 정책을 전시의 특수한 조건에 적응하게 더욱더 추진시켰다.

전쟁 기간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인하여 인민 경제에서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비중은 급격히 저하되였으며 그의 경제적 토대는 크게 약화되였다.

이러한 특수한 조건하에서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의 일부는 생산 협동 조합에 인입되였으며 또는 국영 기업소의 로동자, 사무원으로 직접 전환되게 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 당은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하여 그들의 생산 협동 조합에로의 가입을 일정한 비률(전체 조합원 총수의 5% 미만)에 국한시켰다.

그것은 전시에 생산 협동 조합이 아직 조직 경제적으로 공고치 못한 조건하에서 착취자적 근성과 투기, 모리적 잔재가 남아있는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을 일시에, 대량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생산 협동 조합의 견실한 발전을 저애할 수 있었기 때문이였다.

이상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전쟁 시기에 있어서 개인 상공업의 전면적인 사회주의적 개조는 일정에 오를 수 없었다.

전후 시기에 들어 서면서 우리 당은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전쟁에 의하여 령락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민 경제 전체 분야에 걸쳐 생산력을 급격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낡은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급속하게 추진시켰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인 추진에 따라 당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을 가일층 촉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당과 정부는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생산 협동 조합들을 급속히 복구 정비하고 조합 대렬을 정비하며 조합들의 관리 질서를 확립하면서 그의 재정적 토대를 급속히 개선시키는 제반 대책을 취하였다.

이에 있어서 당 중앙 위원회 제 5차 상무 위원회 결정 및 1954년 6월 내각 결정 제 78호, 1956년 10월 내각 결정 제 109호 등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이 결정들에 근거하여 생산 협동 조합들에서는 규약 재토의 사업, 규약 수정 채택 사업, 2차에 걸치는 조합 지도 기관 결산—선거 사업 등이 진행되였는바 이 과정을 통하여 조합의 복구 및 조직 정비 사업이 급속히 진척되였고 조합원 대렬이 더욱 튼튼히 꾸려졌으며 조합의 재정 규률이 더욱 확고히 수립되게 되였다.

생산 협동 조합은 3개년 계획에 예견하였던 공업 총 생산액 과제를 2년 4개월에 완수하였으며 1956년 말에 이르러 계획보다 약 53% 초과 수행하였다. 결과 1956년에 협동 단체 공업 총 생산액은 1949년에 비하여 약 5.6배로 장성하였으며 공업 총 생산액 중에서 협동 단체 공업의 비중은 1954년의 7.3%로부터 1956년에는 8.1%로 장성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에 기초하여·조합의 물질적 기초도 공고화되였는바 조합의 자체 자금은 3개년 계획 기간에 342.2%로 장성되였고 그 중 공동 축적금은 1953년을 100으로 할 때 1954년에는 134.8%, 1955년에는 249.5%, 1956년에는 430.4%로 즉 4배 이상으로 장성되였다. 이 결과 조합원들의 수입은 1953년에 비하여 1956년에는 178.2%로 장성하였으며 협동화된 수공업자들은 사회주의 근로자로서의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이것은 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대한 우리 당 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리용 및 제한 정책으로부터 사회주의적 개조 정책의 전면적인 실시에로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되였다.

당은 전후 시기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리용, 제한 정책을 계속 실시하면서 사회주의적 개조 정책을 점차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도 우리 당과 정부는 계속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로 하여금 지방 원료 원천들을 적극 탐구 리용하여 인민들의 생활 안정과 향상에 요구되는 일용품들을 생산 공급케 하며 또한 그들의 경리와 개인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에 있어서 1955년 8월 내각 명령 42호는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으로 하여 전쟁에 의하여 혹심하게 령락되였던 상공업자들의 경리와 생활은 급속히 향상되였으며 우리 당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무한히 증대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요소의 부정적 측면이 전후 시기에 들어 와서는 더욱더 뚜렷하게 되였으며 그의 계속적인 존속은 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우리 나라 생산력 발전을 저애하였다.

그것은 투기와 모리 등 부정 행위를 끊임없이 산생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전후 시기 자본주의적 상공업은 자유 시장을 통하여 소상품 경리에 부단히 자본주의적 영향을 침투시켜 개인농 경리도 포함한 소상품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곤난과 애로를 조성하는 중요한 장애물의 하나로 되였다.

자본주의적 상공업을 전후 시기까지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지 않고 방임하여 둔다면 그것은 나아가서 우리 나라 과도기 기본 문제의 종국적 해결에 지장을 줄 것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지연시킬 것이였다.

전후 시기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 과정은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객관적 필연성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현실적 가능성을 조건 짓고 있었다.

공업과 류통에서 사회주의 경제가 압도적으로 지배하게 되였고 농촌 경리의 협동화가 최종적인 완성 단계에 들어선 조건하에서 자본주의적 상공업은 종전 그대로 사'적 기업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점차 상실하고 있었다.

새롭게 조성된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장래 발전을 오직 협동화의 길에서만 찾게 되였으며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자체를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하기 위하여 진출하게 되였다.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전면적인 실시가 당면 문제로 제기되게 되였다.

때문에 당은 지난 시기의 실제적 경험, 우리 당과 정부의 모든 시책에 대한 상공업자들의 지지와 신뢰의 증대, 그들의 사상 의식의 제고 등을 고려하여 상공업에 대한 리용, 제한 정책으로부터 그를 점차 전면적으로 개조할 데 대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우리 당 제 3차 대회는 농업 협동화의 최종적인 완성에 보조를 맞추어 도시에서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할 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특성과 사회주의 건설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된 국내 계급적 력량 관계를 심중하게 타산한 기초 우에서 우리 당이 이 과업을 제시한 것은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갖는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는…중 소 상공업자, 자유 직업자 등 광범한 계층과의 단결을 도모하며 그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방조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겠다. 특히 그들을 농업 협동 조합, 생산 및 수산 협동 조합들에 참가시켜 그들의 물질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선진적 사상 의식을 주입시킴으로써 그들을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통일 전선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 것이다》(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진술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우리 당 제 3차 대회가 제시한 개인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 방책은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1956년) 결정과 1957년 1월 24일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 및 공화국 정부의 일련의 시책들에 의하여 더욱 구체화되였다.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협동 조합을 통하여 실현된 것은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현재까지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에 의하여 그러하다) 특성이다.

자본주의적 상공업을 협동화의 길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개조할 데 대한 우리 당 정책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혁명의 성격과 우리 나라 민족 부르죠아지의 력사적 지위에 의하여 규정되였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우리 나라의 중 소 상공업자들은 일제 독점과 예속 자본가들로부터 부단한 위협과 억압을 당하면서 정치적으로 무권리하였고 경제적으로 부단히 몰락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제국주의와 국내의 지주, 예속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한개 동력으로 되였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시장을 독점하여 중 소 상공업자들을 부단히 대중적으로 파산 령락시키고 있는바 이것은 그들 간의 심각한 모순을 더욱더 격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상공업자들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과도기에 들어선 조건하에서도 자기 생존과 발전의 길을 오직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한 강력한 물질적 기초를 구축하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찾게 되였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이 결정적으로 우세한 환경 속에서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가 진행된 사정은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적 개조를 쉽게 접수할 수 있게 한 담보의 하나였다.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이 사회주의적 개조를 접수할 수 있었던 둘째 요인은 과도기의 초기부터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 그 중에서도 국영 경제 부문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한 사정과 관련되여 있었다.

인민 경제의 생산 및 류통 분야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가일층의 급속한 발전은 자본주의적 상공업에 대한 그의 지도적 역할을 더욱더 비상히 제고하였으며 상공업자들의 투기 행위와 모리 및 경제의 자연 생장성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바로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급속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였다.

협동화를 통하여 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순조롭게 개조할 수 있었던 세째 중요한 요인은 우리 나라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경리 규모가 원래 소규모적이고 취약한 점이다.

특히 조국 해방 전쟁 과정에서 더욱더 령세화된 공화국 북반부의 상공업자들은 그 경리 규모에 있어서 수공업자 및 소상인과 류사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례컨대 1957년 5월 현재 공화국 북반부에 존재한 자본주의적 사기업과 그의 종업원 수 및 제품들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등록된 사기업에 한함):

사기업 및 종업원 수

기업소 수 (개소)	기업가 수(명) (동업자 포함)	고용 종업원 수(명)		
		총수	로동자	기술자
633	1,140	1,580	1,136	444

자본주의적 사기업이 생산한 제품 구성(%)

부문	총액에 대한비중	부문	총액에 대한비중
식료품	29.6	방직	5.2
유지	12.6	화학(화장품)	9.0
문방구	10.0	문화용품	7.7
철공	13.6	잡화	2.4
제지	6.2		

상기 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1957년에 우리 나라에서 개인 기업가 한 사람은 평균 약 1.4명밖에 안되는 인원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5명 이상의 고용 로동자를 가진 기업소는 전체 기업소 수의 14%에 불과하였다.

또한 사기업이 생산한 제품도 주로 식료 및 기호품, 유지, 문방구 등 거의 전부 경공업 제품이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의 경리 규모가 극히 령세하였으며 보잘 것 없었다는 것을 잘 말하여 준다.

사기업의 기술적 장비도 매우 락후하였다. 전체 기업 중 5마력 정도의 동력을 가진 기업소 수는 약 75%이고 25%는 그 이하의 작은 동력 설비를 가졌거나 또는 전연 동력 설비를 갖지 못한 소규모의 기업소들이였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나라에서 사기업이 비록 자본주의 경제 형태를 대표하였으나 공업 발전에서 마누팍뚜라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서 그들은 타인 로동의 착취에 기초하여 경리를 운영하는 면에서 자본가 일반이 갖는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실제에 있어서 수공업자에 류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상인들의 처지도 사기업가의 처지와 마찬가지로 령세하고 소규모적인 경리를 운영하며 그 대부분이 소상품 경리에 속하는 소상인의 처지에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대다수의 상공업자들은 고용 로동자를 착취했다는 그 점에서는 착취자이지만 직접 생산에 참가했다는 그 점에서는 근로자적인 측면을 겸해 가지고 있었다.

당은 우리 나라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의 이와 같은 제반 특성을 충분히 타산하면서 상공업에 대한 평화적 개조 정책을 제시하고 자원성에 엄격히 의거하여 점차 협동화를 추진시켰다.

이것은 당이 협동 조합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가장 알맞게 적용하여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을 독창적으로 지도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의 생활 조건을 보장해 줄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래 나아갈 유일한 길을 열어 준 우리 나라에서의 협동화 운동은 기본적으로 생산 및 생산—판매 협동 조합을 통하여 급속하게 추진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나라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의 전부가 이를 통해서만 개조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은 상공업자들의 희망, 경제적 형편과 소유한 기술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개조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리하여 상공업자의 일부는 농업 및 수산 협동 조합원으로 개조되였으며 다른 일부는 국영 경제 부문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으로 전환되였고 또한 일부 소상인들은 위탁(특약) 판매와 위탁 수매의 형식을 통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였다.

생산 협동 조합의 년도별 장성 동태는 다음과 같다:

생산 협동 조합의 장성(%)

년도 / 분류	1955	1956	1957	1958
조 합 수	100	101.3	151.5	172.6
조합원 수	100	150.8	277	396.9

우리 당은 상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시기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적용하는 한편 협동 조합에 가입한 상공업자들의 생산 수단과 자금을 사회화함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 실정에 적응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당은 생산 협동 조합에 가입한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의 생산 수단과 자금을 출자금으로 인정하며 일정한 기간까지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불하면서 점차 그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협동적 소유로 전환시켰다.

생산 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소유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수탈을 통하지 않고 매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사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일찌기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에 의하여 강조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맑스가 바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규모 생산의 조직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성된 정세로 말미암아(례외로서——그리고 영국은 그 당시 그러한 례외였다) 자본가들이 평화적으로 복종하며 매상의 조건하에서 교양있는 자답게 조직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자본가에게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으며 그들로부터 매상을 할 수 있다고 로동자들에게 교시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였던 것이다》(레닌 전집, 제 32권, 조선문 판, 442폐지).

우리 당이 취한 이 대책은 상공업자들의 개인적 리익을 보장하면서 그들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협동화 행정에서 이러저러하게 나타난 좌우경적 편향들을 극복 시정한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는 개인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우리 당은 자원성과 점차적 발전의 원칙을 위반하고 조급하게 고급 형태와 대규모의 조합만을 조직하려는 경향과 함께 또한 협동화 운동을 자연 생장성에 방임하는 편향들을 동시에 엄격히 배격하였다.

또한 당은 일부 생산 협동 조합들에서 조합에 가입한 상공업자들이 출자한 생산 수단과 자금에 대하여 출자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결함들을 시정하였다.

여기서 1957년 9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의 결정 《생산 협동 조합을 조직 경제적으로 공고히 하며 조합원들 속에서 사상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는 조직된 생산 협동 조합을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이리하여 개인 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실시된 이 모든 당의 현명한 정책으로 하여 그의 전면적인 개조가 전후 년간 특히 최근 년간 급속한 템포로 진척되였으며 농촌 경리의 협동화의 완성과 거의 동시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였다.

현존하는 생산 협동 조합들과 생산—판매 협동 조합들의 형태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 협동 조합의 제 1 형태는 도시의 극히 령세한 소생산자들이 망라된 생산 협동반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에로의 인입을 준비하는 극히 초보적 형태이다. 이 형태는 오늘 전체 생산 협동 조합의 0.47%에 불과하다.

제 2 형태는 생산 또는 편의업, 운반업 등을 경영하던 수공업자, 자유 직업자 및 중 소 상공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생산 수단과 자금의 출자를 토대로 하여 조직된 반(半) 사회주의적 형태이다.

이 형태에서는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사'적 소유에 속한 출자 몫에 대하여서는 조합 규약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그 리익액 중에서 출자에 의한 분배가 실시된다. 오늘 우리 나라 전체 생산 협동 조합들 중 제 2 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은 33.9%에 달하고 있다.

생산 협동 조합의 제 3 형태는 생산 수단을 비롯한 일체의 재산이 조합의 공동적 소유로 된 완전한 사회주의적 경리이다. 이 형태에서는 오직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만이 실시된다. 오늘 우리 나라의 생산 협동 조합중 제 3 형태의 조합들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판매 협동 조합에는 제 1 형태와 제 2 형태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은 대체로 생산 협동 조합의 제 1, 제 2 형태와 류사하게 되여 있으며 그의 대부분은 생산 협동 조합으로 전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 상공업, 특히 자본주의적 상공업이 평화적으로 순조롭게 개조되였다 하여 그것은 결코 계급 투쟁을 배제한 것은 아니였다.

평화적 개조도 결국 계급으로서의 자본가를 청산하는 것만큼 그 자체가 치렬한 계급 투쟁을 동반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 남반부에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둥지를 틀고 있으면서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려고 갖은 음모와 파괴, 암해 공작을 감행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진행된 이 자본주의적 요소의 개조 과정은 첨예한 계급 투쟁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적 개조 정책에 대하여 적극 접수하는 상공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 환영하며, 동요 분자에 대하여서는 교양하는 동시에 반항적 태도를 취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계급 정책에 의하여 과도기의 기본 모순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투쟁이 사회주의의 승리로써 성과적으로 해결되였다.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은 우리 당 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거대한 성과의 하나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공업 및 류통 분야에서 우리가 거둔 큰 성과의 하나는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이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 *

오늘 우리 나라에서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이미 완성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곧 개인 상공업자들이 낡은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와 낡은 생활 풍습, 낡은 도덕까지도 완전히 청산한 새로운 근로자로 전화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공업자들의 경리 형태는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였으나 그들의 사상 의식에는 아직도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으며 이러저러한 면에서 부정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어제'날의 상공업자이였던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공동 재산의 관리, 로동 규률 및 사회 도덕의 준수 등등에서 부정적 현상들을 발로시키고 있으며 일부 로동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집단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앞세우는 등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현 시기 우리 앞에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이미 개조된 상공업자들에 대한 사상 개조 사업을 계속 강화하는 문제이다.

원래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경리 형태의 개조와 함께 사람 그 자체의 개조가 병행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가 더욱 앙양되고 있는 현 시기에 있어서 협동화된 상공업자들의 사상 개조 사업은 더욱더 긴절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낡은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혁명의 고조를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때문에 최근 당 중앙 위원회는 생산 협동 조합, 편의 협동 조합, 지방 산업 등에 대한 지도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특히 이에 망라되여 있는 지난날의 자본주의적 상공업자, 수공업자, 자유 직업자들 속에서 사상 개조 사업을 더욱더 강화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오늘 이 사업에서 표현되고 있는 일부 편향은 그들이 각종 협동 조합원으로 개조되였다고 하여 사상 개조도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등한히 하거나 또는 개조된 상공업자들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측면을 과소 평가하는 것들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편향들을 극복하고 개조된 상공업자들에 대하여 두터운 배려를 돌리면서 사상 개조 사업을 목적 지향성있게 추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교양 사업을 꾸준하고도 계획성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그들에게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인식시키면서, 새 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낡은 것은 멸망한다는 진리를 체득시키는 동시에 개인 리기주의를 극복하고 집단주의 사상과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그들을 꾸준히 교양, 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상공업자들의 사상 개조 사업에 있어서 중요하게 강조할 문제는 꾸준한 교양과 설복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낡은 사상 잔재의 극복은 완강하고도 인내성있는 교양과 장기간에 걸친 사상 투쟁을 요구한다.

때문에 상공업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에서 조급성을 퇴치하며 목적 의식적으로 꾸준하게 교양과 설복을 진행하여야 한다.

생산 협동 조합을 비롯하여 편의 협동 조합, 지방 산업 등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공산주의 교양 사업의 성과적 수행은 어제'날의 개인 경리 성원들에게 남아있는 일체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을 자각적이며 애국적인 사회주의 건설자로 개조할 것인바 이것은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적 대고조를 가일층 촉진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될 것이다.

우리 혁명은 계속 전진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산 협동 조합들에서는 지방 원료 원천에 튼튼히 립각하면서 온갖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각종 일용품과 식료품을 더욱 증산하여 장성하는 인민들의 수요를 더 원만히 충족시키게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생산 협동 조합들에서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2월 전원 회의(1959년) 결정 정신을 높이 받들고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하여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백방으로 제고하며 제품의 원가를 저하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낡은 수공업적 기술을 선진 기술로 교체하며 중 소 기계화와 창의 고안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다종 다양한 일용품과 식료품을 쓸모있고, 아름답고 맛있게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생산 협동 조합들을 조직 경제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면서 낮은 형태의 조합에 일부 남아있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소유로 완전히 전환시키며 보다 높은 단계로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조합 앞에 나서고 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또한 생산 협동 조합의 물질적 기초가 공고화되고 조합원들의 공산주의적 사상 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자원성에 튼튼히 립각하여 조급성을 경계하면서 점차 지방 산업 공장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 당 및 정권 기관 일'군들 앞에는 생산 협동 조합을 조직 경제적으로 강화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1959년 5월) 결정을 심오하게 연구하고 생산 협동 조합 지도 사업에서 일부 발로된 조급성과 안일성을 극복하여야 할 과업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문제

김 홍 신

재일 동포들의 공화국에로의 귀국을 위한 조 일 량국 적십자 대표단 간의 제네바 회담은 우리측의 시종 일관한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이미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또다시 부당한 구실하에 합의된 협정 문건에 대한 조인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재일 동포들의 귀국 실현을 가로 막고 있다. 조선 인민은 물론 오늘 전 세계 사회 여론은 일본측의 이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견결히 규탄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일 동포들의 공화국에로의 귀국이 실현될 것을 한결같이 촉구하고 있다.

재일 동포들의 공화국에로의 귀국 문제는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결코 우연하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 하루 속히 조국에 돌아 오려는 재일 동포들의 일치한 념원에 의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며 오늘날에 와서는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재일 동포들의 귀국 문제에 대한 구체적 리해를 위하여 그들이 걸어 온 험난한 행로와 그들의 생활 처지, 온갖 박해와 책동을 박차고 그들이 전개하여 온 불요 불굴의 귀국 투쟁, 또한 과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들에게 감행한 전대미문의 죄악의 력사와 패전 후 일본을 강점한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들과 야합한 일본 정부의 박해 책동들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자.

* *

우리의 수 많은 동포들이 일본으로 건너 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에 의하여 초래되였다.

재일 동포들의 절대 다수는 과거 일본 침략자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조국에서 삶'길을 잃고 일본에 류랑하였거나 또는 놈들의 태평양 전쟁 시기에 강제로 억울하게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대다수는 마지 못해 또는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정든 고향 산천을 떠났으며 눈물을 머금으면서 현해탄을 건넜던 것이다.

우리의 수 많은 동포들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일본에 건너 가기 시작한 것은 1910년 일제가 우리 나라를 완전히 강점한 이후 시기부터였다. 그후 일본으로 건너 가는 우리 동포들의 수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의 강화와 전쟁에 의한 일본 자본주의의 팽창과 더불어 더욱 증가되였다. 이러한 정형은 일본 정부 《내무성 경보국》이 발표한 조사 자료(루계 수'자)에 의해서도 엿볼 수 있다.

년 대	인 구	년 대	인 구
1915	3,989	1930	298,091
1916	5,638	1931	318,212
1917	14,501	1932	390,543
1918	22,262	1933	466,217
1919	28,272	1934	537,576
1920	30,175	1935	625,678
1921	35,876	1936	690,501
1922	59,865	1937	735,689
1923	80,617	1938	799,865
1924	120,238	1939	961,591
1925	133,710	1940	1,190,444
1926	148,503	1941	1,469,230
1927	175,911	1942	1,625,054
1928	243,328	1943	1,882,456
1929	276,031	1944	1,936,843

상기 조사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일 동포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 일로를 걸어 왔다. 그 수는 특히 1914—1918년 간의 제 1차 대전 시기와 1930년 이후 시기인 중일 전쟁 시기와 태평양 전쟁 시기에 급격히 증가되였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

1915—1918년 간에 있어서 재일 동포들의 급격한 량적 증가는 1910년 8월부터 1918년 10월까지의 기간에 실시된 일제의 조선에 대한 토지 수탈 정책으로서의 소위 《토지 조사 사업》과 1914—1918년 제 1차 대전에 의한 일본 자본주의의 급격한 팽창과 관련되여 있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이 당시 야만적인 헌병—경찰적 무단 정치를 배경으로 하여 토지 수탈을 중심으로 식민지 초과 리윤 보장을 위하여 조선을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 시장, 자본 투하지, 값싼 로동력의 공급지로,나아가서는 대륙 침략의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모든 략탈적 경제 제도를 확립하며 강화하는 데 광분하였다. 이리하여 일제는 우선 토지 수탈을 위한 《토지 조사 사업》을 강행하였는바 그 결과 일제 수중에는 거대한 토지가 집중되게 되였고 일제 자신은 조선에서 최대의 지주로 등장하게 되였다. 몇 가지 자료만 보더라도 1910년에 일본인 지주가 조선에 약 2,000명이 있었다면 1918년에는 1만 여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일본인 토지 회사들의 소유 토지는 1910—1916년 간에만 하여도 8만 7,000 여정보로부터 20만 여정보로 격증하였다.

일제에 의한 이와 같은 방대한 토지 수탈은 더욱 많은 조선 농민들로 하여금 소작인으로 전락되게 하였고 2중 3중의 혹독한 착취와 압박을 받게 하였다. 농민들은 고률 소작료와 과중한 지세,각종 공과금과 기타 경제외'적 착취에 시달리게 되였으며 그리하여 《춘궁기》마다 초근 목피로 겨우 아사를 면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군 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당시 일부 농민들은 리농하여 도시로 진출하여 임금 로동자 및 기타로 전업하였고 그 일부는 삶'길을 잃고 마지 못해 일본, 중국 동북 지방 등지로 류랑하게 되였다.

다른 한편 이 시기 일제는 제 1차 세계 대전으로 막대한 리윤을 획득함으로써 채무국으로부터 일약 채권국으로 되였다. 일본 자본주의는 이 시기에 와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었으며 특히 로동력의 부족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일제는 국내 로동력의 부족을 타개하며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당시 삶'길을 잃고 헤매는 수 많은 우리 동포들을 유인 협박하여 일본으로 끌어 갔던 것이다.

1920년대에 들어 서면서 일본 경제는 점차 공황에 빠지게 되였다. 그 후 그것은 1927년의 금융 공황, 1929년의 세계 공황의 개시 등으로 하여 더욱 심각화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일본 독점체들은 공황의 출로를 로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대외적으로는 식민지에 대한 가일층의 략탈, 그리고 대륙 침략에서 찾으려고 발광하였다. 이리하여 일제는 이 당시 앙양되고 있던 자국 내 로동 운동을 탄압하며 침략 전쟁 준비를 위하여 자기의 독재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는바 이는 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적 압박에서도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는 이 시기에 이르러 조선에 대한 새로운 략탈 정책으로 이행하게 되였다. 왜냐 하면 지난 날에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직접적인 략탈이 가능하였다면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의 강화로 말미암아 그러한 정책을 실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일제는 조선에서 토지의 직접적인 수탈을 엄폐하면서 수리 조합의 설치에 의한 《산미 증식 계획》을 수립하였다.

《산미 증식 계획》은 제 1차 대전을 계기로 일본에서 공업 및 농업 간에 일정한 불균형의 확대, 1918년 8월에 일어난 《쌀 폭동》으로 말미암아 일본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식량 문제를 조선에서 해결하려는 것이였다. 이와 동시에 일제는 이 사업을 계기로 자국내에 축적된 자본을 조선의 토지—농업에 투하함으로써 자기들의 자본 수출의 출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식민지 초과 리윤을 얻으려고 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의 강행은 대일 식량 방출의 증가를 촉진시켰으며 조선 농촌에서의 상품 화페 관계의 발전, 미곡의 상품화의 촉진, 소작료의 고률화, 농민의 빈궁화를 촉진시켰다. 특히 수리 조합의 설치는 일제 자본의 투하 대상으로서 또 그들의 식량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이루어진 것만큼 압박 받던 조선 인민의 리해 관계와는 하등의 공통성도 없었다. 이것은 소토지 소유자—경작자들의 토지 상실을 촉진시키는 한편 일제 수중에로의 토지의 집중을 더욱 촉진시켰을 뿐이였다.

이와 같이 일제에 의한 식민지적 략탈이 강화되는 조건하에서 조선 농촌에는 반농노적 농민, 반노예적 고농이 더욱 증대되였다. 령세 농민들은 《품팔이'군》으로 되거나 또 가장 비참한 각종 부업에 종사하게 되였는바 이것으로써도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다수의 농민들은 도시 및 일본으로 더욱 많이 류랑하게 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상기 조사 자료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1920년대에 있어서도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동포들의 수는 계속 증대되였던 것이다.

1930년대 이후 시기부터 재일 동포들의 수는 더욱 더 증가되였다. 특히 그것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이후 시기에 대량적으로 증가되였다.

일제는 이 시기 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 산업

을 급속도로 확장시켰는바 이러한 군수 산업의 강행적인 확장은 식민지 략탈에 의존함이 없이는 실행될 수 없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더욱 더 일제의 집중적인 략탈을 당하게 되였다. 특히 일제에 의한 농산물 및 토지 략탈의 가일층의 강화, 조세 및 신용 체계를 통한 농촌 수탈의 강화는 조선 농촌에서의 반농노적 경리의 급격한 증대를 초래하였으며 농촌 경리의 가일층의 령세화, 농촌 과잉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일제는 이 당시 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닥치는 대로 우리 인민들을 일본에 끌어 갔다. 일본 정부 《후생성 로동국》이 발표한 축소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39년부터 1944년까지의 기간에 일제는 《징병》으로 36만 5,000명에 달하는 조선 청년들과 67만 여명에 달하는 조선 로동자들을《강제 징용》으로 일본에 끌어 갔다. 이리하여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까지 재일 동포들의 총수는 실로 300 여만 명에 달하였던 것이다.

일제 패망 전 시기에 있어서 재일 동포들의 생활 처지는 실로 몸서리칠 정도로 비참하였다. 일제의 기만적인 유인 강압으로 일본에 건너간 우리 동포들 앞에는 오직 극심한 민족적 멸시와 학대, 빈궁과 기아와 실업이 가로 놓여 있었을 뿐이다.

일제는 재일 동포들의 사소한 언행에 이르기까지 구속 억제하였으며 부당한 구실을 붙여 검거, 투옥, 살해하였다. 지어 그들은 재일 동포들에 대한 대중적 학살을 감행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우리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1923년 일본에서의 《관동 대진재》 때에 일제는 실로 수만명에 달하는 재일 동포들을 잔인하게 타살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또 로동 조건이 가장 렬악하며 과격한 장시간 로동에는 의례히 조선 로동자들을 헐값으로 부렸다. 그들은 주로 재일 동포들을 광산 로동과 턴넬 공사, 대토목 공사에 배치하여 문'자 그대로 우마와 같이 부렸으며 혹사하였다.

특히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더욱 혹독하였다. 일제는《강제 징용》으로 대량적으로 우리 동포들을 일본의 군수 공장과 탄광 등에 끌어다가 헌병과 경찰의 삼엄한 경계 밑에 무상으로 살인적 고역을 시켰으며 또 군복을 입혀 《농경대》라는 명칭하에 사실상 농노와 같이 부렸다. 이로 인하여 수 많은 우리 동포들은 무참하게 쓰러졌는바 그 결과에 일본의 군수 공장과 탄광 등을 비롯한 일본 각지에 우리 동포들의 뼈가 묻히지 않은 곳이란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빚어낸 천추에 씻지 못할 엄중한 죄과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혹독한 처지에서 재일 동포들은 일제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의 설움을 뼈저리게 겪으면서 오직 일제가 패망하여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가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였으며 일일 천추로 조국에로의 귀국을 열망하였다.

* *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한 8.15 조선 해방은 재일 동포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일대 전환점을 이루어 놓았다. 과거에 이국 땅에서 혹독한 민족적 멸시와 정치적 무권리, 비인간적인 학대와 기아 속에서 헤매던 재일 동포들은 이제는 해방된 자기 조국을 가진 당당한 인민으로 진출하게 되였다. 오래 동안 조국에서 떨어져 갖은 고생을 겪은 그들의 심정은 일치하게 해방된 조국에 하루 속히 돌아와 자유롭고 행복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였다.

이리하여 일제 패망 직후 일본 각지에 산재하여 있던 재일 동포들 속에서는 귀국 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였다.

그러나 재일 동포들의 앙양된 귀국 운동은 일본에 상륙한 미제 침략자들과 그와 야합한 일본 당국의 방해 책동으로 인하여 용이하게 실현될 수 없었다. 더우기 재일 동포들의 공화국 북반부에로의 귀국의 길은 미제와 일본 지배층의 방해와 리 승만 도당의 책동에 의하여 애당초부터 막혀 있었다.

일본을 강점한 미제는 그 초기부터 일본을 아세아 침략을 위한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일본 군국주의를 재생시키는 책동을 하는 한편 《반공》의 기치 밑에 일본 국내에서의 모든 진보적 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한 미제 침략자들에게 있어서, 하루 속히 귀국하여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고 귀국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재일 동포들의 투쟁은 자기 비위에 맞지 않았다. 이로부터 미제는 직접 간접으로 재일 동포들의 귀국 운동을 억제하였다. 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리 승만 도당과의 결탁하에 재일 동포들을 새로운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한 대포'밥으로 만들려고 계통적으로 기도하였는바 이것은 그 이후의 모든 사실들이 확증하여 주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 당국은 해방 후 일본 각지에서 광범히 전개된 재일 동포들의 귀국 운동에 대하여 아무러한 편의도 도모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재일 동포들의 귀국 실현을 저애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재일 동포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어는 귀국하려고 떠난 수 많은 우리 동포들을 살해까지 하였다. 례컨대 1945년 9월 홋까이도에서 귀국하기 위하여 수 많은 우리 동포들이 승선한 《우끼지마마루》를 마이즈루 근해에서 폭파시킨 사건은 바로 그에 대한 명백한 실증으로 될 것이다. 이 폭파 사건에 의하여 실로 2,000 여명이나 되는 우리 동포들이 무참히 몰사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제와 일본 당국의 이러한 악착한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귀국 열의에 불타는 재일 동포들의 투쟁은 완강하게 전개되였는바 그 결과에 일부는 집단적으로 귀국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귀국하였다. 지어 일부 사람들은 생사를 무릅쓰고 쪽배를 타고 일본해를 건너 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수 많은 동포들은 귀국하지 못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비인도적이며 비법적인 방해 책동에 의하여 오늘날까지도 고난에 찬 생활을 겪게 되였던 것이다.

미제와 일본 정부의 방해 책동에 의하여 귀국하지 못한 수 많은 재일 동포들은 그 후 귀국 운동을 계속 전개하는 한편 장기간 유린 당하여 온 생활상 권리와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민주주의적 조직체를 창설하고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재일 동포들의 이러한 투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민주주의적 및 사회주의적 력량의 급격한 장성 강화와 일본의 민주 력량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 발전에 고무되여 더욱더 앙양되였다.

1945년 10월 재일 동포들은 《재일 조선인 련맹》 (이하 《조련》이라고 략칭함)을 비롯한 기타 대중 단체들을 창설하고 외국인으로서의 자기의 법적 지위와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위하여, 조국에로의 귀국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지향하여 나섰다.

그러나 미제와 일본 정부는 과거와는 그 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재일 동포들에 대하여 생활적 권리와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부여할 대신에 도리여 부당하게 박해 탄압하였다. 그들은 재일 동포들의 언론, 출판, 결사, 집회 등 민주주의적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재일 동포들 간의 민족적 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백방의 모략과 도발을 감행하였으며 반인민적 《법령》을 조작하여 빈번히 야수적 박해를 가하여 왔다.

1946년 4월에 일본 정부는 《금융 기관 조치령》을 비롯한 각종 금융 조치들을 조작하여 재일 동포들에 대한 융자의 자유를 억제하였으며 동년 9월에는 《밀입국》 취체를 구실로 재일 동포들에게 《거주 증명》을 강요하였다. 이리하여 도꾜에 거주하는 1만 여명의 재일 동포들은 이를 반대하여 동년 12월에 외국인으로서의 자기의 법적 지위와 생활적 및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요구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미군 사령부와 일본 당국은 수백명의 무장 경관들과 땅크를 동원하고 기관총을 란사함으로써 10 여명의 시위자들을 살해하고 12명을 불법 검거하였으며 그 후 그들을 남조선으로 강제 추방하였다. 이 사건은 일제 패망 후 미제의 반동적 본질이 백일하에 폭로된 사건이였다.

미제는 재일 동포들의 투쟁 력량이 강화되는 조건하에서 1946년 초에 벌써 리 승만 도당과의 결탁하에 《조련》에 단합된 재일 동포들의 력량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그를 내부로부터 파괴하려는 음흉한 책동을 감행하는 한편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규합하여 반동 단체인 《신 조선 건설 동맹》과 그의 폭력 행동대적 존재로서의 《조선 건국 촉진 청년 동맹》을 창설하였다.

그 후 미제는 직접으로 또는 《재일본 한국인 거류 민단》을 리용하여 부절히 《조련》의 파괴를 획책하며 또한 그 간부들에 대한 테로를 감행하여 왔다.

1948년 9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은 재일 동포들에게 대해서도 커다란 민족적 자부심을 주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긍지와 영예를 간직하면서 공화국의 번영 발전과 자기의 생활적 및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위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가일층 강화하였으며 더욱더 공화국에로의 귀국을 열망하여 나섰다. 공화국 창건을 계기로 재일 동포들은 그 경축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미제 침략군의 무력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일본 각지에서 일제히 공화국기를 게양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이에 대하여 수백 여명의 애국 청년들을 검거 투옥하는 것으로써 대답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미제는 일본 반동 정부를 조종하여 일본의 재군국화에 더욱 광분하는 한편 또한 조선의 영구 분렬과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 도발 준비를 더욱 로골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일본 인민들의 온갖 진보적 운동은 물론 재일 동포들에 대한 략탈 정책을 가일층 강화하였으며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한 투쟁을 더욱 억

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1948년 1월 24일 일본 정부는 재일 동포들의 민족 교육을 말살할 목적으로 조선인 학령 아동은 일본의 《공립 학교》에 입학하여야 하며 조선인들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본 《교육령》에 의한 《사립 학교》 설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오사까, 고베의 조선인 학부형들은 이를 반대하여 동년 4월에 항의 대회와 시위를 단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미군은 일본 점령 후 처음으로 되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3,500명의 재일 동포들을 불법 검거하는 한편 150명의 부상자를 내게 하였다. 그 후 미 일 반동들은 또다시 조선인 학교 전부를 강제로 페쇄하였으며 그 소속 재산들을 전부 몰수하기까지 하였다.

1949년 1월에 미제와 야합한 일본 정부는 《외국인 재산 취득령》을 공포하여 재일 동포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재산을 반출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일본에서는 그들이 광산과 선박 및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유하였던 것까지도 모두 박탈하였다. 이리하여 근근한 로력으로 황무지를 개간하여 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재일 조선인 농민들은 엄연한 자기의 토지를 앉아서 강탈 당하였다.

미제는 이와 같이 재일 동포들에 대한 탄압 조치를 강화하면서 1949년 4월에 이르러서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단체등 규정령》을 조작케 하여 그를 휘두르면서 동년 9월에는 《조련》을 비롯한 민청 기타 재일 동포들의 대중 단체들을 모조리 해산시켰으며 《조련》 간부 19명과 민청 간부 9명을 공직에서 추방하고 재일 동포들의 사소한 집회에 대해서까지도 류혈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조련》을 해산시킨 후 미제와 일본 정부는 재일 동포들에 대하여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욱 야수적으로 박해 탄압하는 한편 리 승만 도당파의 결탁하에 재일 동포들의 남조선에로의 강제 송환을 발광적으로 책동하였다. 조선 전쟁 직전인 1950년 2월 2일 리 승만이 도일하여 미제 및 일본 정부와 재일 동포들을 동족 상쟁의 대포'밥으로 투입하기 위한 음모를 밀약하고 재일 동포 30만을 강제 송환할 계획을 공공연히 발표하였다. 그러나 재일 동포들은 이 음모를 즉시 폭로하고 일본 반동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는 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 계획의 실현을 저지시켰다.

조선 전쟁이 개시된 후 재일 동포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격멸하는 조국 인민들과 보조를 같이 하여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였다. 그들은 미 일 반동의 혹독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선에로의 미군 군사 물자들의 수송을 방해하며 전쟁 승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원호금을 모집하는 등 수다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미제와 리 승만과 결탁한 일본 반동 정부는 더욱 재일 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을 동족 상쟁의 대포'밥으로 몰아넣기 위하여 남조선에로의 대량적인 강제 송환 계획을 추진시켰다.

1951년 10월 일본 정부는 《외국인 출입국 관리령》을 조작하여 조선인까지도 포함한 외국인들 중 《일본에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강제 출국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이와 보조를 같이 하여 일본의 치안을 교란하는 것이 마치 《북조선계 조선인》이라고 날조하면서 《즉시 강제 송환할 것》이라고 소란스럽게 떠들었다. 미제는 1952년 2월부터 《한일 회담》을 조작하면서 이 《송환 문제》를 적극 알선하였다.

일본 정부는 1952년 4월 28일 《외국인 등록법》에 의하여 실시한 재일 동포들에 대한 강제 등록 사업에 있어서는 《재일본 한국인 거류민단》 및 《주일 한국 대표부》와 야합하여 재일 동포들에게 《한국적》을 강요하면서 등록 거부자는 강제 송환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 결과에 많은 재일 동포들이 부당한 리유로 일본 각지의 수용소들에 억류되여 비인도적인 박해를 당하였다.

이와 같은 살인적인 수용소들로부터 남조선으로 강제 송환 당한 재일 동포들은 리 승만 도당에 의하여 사형 당하거나 재판에 회부되였으며 또는 괴뢰군에 강제로 편입되였다.

조선 전쟁 시기 일본 정부는 또한 《강제 송환》을 위하여 이를 반대하는 재일 동포들의 부락을 더욱 빈번히 습격하였으며 그들의 재산을 닥치는 대로 략탈하며 검거하는 등 온갖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례하면 1952년 11월 30일부터 1953년 3월까지의 4개월 간에만 하여도 일본 정부는 17개 현에서 9,202명의 무장 경관과 170대의 트럭을 동원하여 242명의 재일 동포들을 검거하였고 약 1천 110만 원의 재산을 략탈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전쟁 시기에 미제와 일본 정부가 재일 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며 그들을 남조선에로 강제 송환하려고 하였으나 절대 다수의 재일 동포들은 이를 견결히 거부하며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조선 전쟁의 즉시 정전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조선 정전 후에도 일본 정부는 미제의 조종하에 재일 동포들을 탄압하면서 남조선에로의 강제 송환을 더욱 로골적으로 추진시켜 왔다.

1953년 12월 일본 정부는 도꾜도에 있는 재일 조선인 학교에 대하여 민족 과목의 수업을 제한하며 일본 《교육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 《6개 항목》을 강요하였는바 이를 항거하여 재일 동포들은 4개월 간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재일 동포들의 투쟁이 확대되자 일본 당국은 1954년 신학기를 무기 연기하는 등 각종 위협 공갈로써 악착하게 탄압하였다.

이러한 탄압을 감행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에 실시된 《외국인 등록법 갱신》을 리용하여 재일 동포들의 《재류 자격》을 비법적으로 제한하며 또는 전혀 그 자격을 주지 않음으로써 《밀입국자》, 《법령 위반자》로 취급하여 그들을 강제로 오무라 수용소 등에 억류하며 리 승만 도당에게 넘겨 주려고 하였다.

특히 그들은 등록 갱신에 있어서 재일 동포들에게 일률적으로 《한국적》을 강요하였으며 이와 함께 일본 경찰은 일본 각지에서 《외국인 등록법》과 《출입국 관리령》 위반이란 명목으로 수천명의 재일 동포들을 또다시 오무라 및 기타 수용소들에 억류하였다.

그러나 수용소들에 억류된 재일 동포들의 대부분은 공화국에로의 귀국을 념원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들을 《한일 회담》의 재개를 위한 정치적 미끼로 리용하였으며 부산에 억류되여 있는 일본인 어부들과의 교환 조건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일본 정부는 억류된 재일 동포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1,000여명에 달하는 재일 동포들을 남조선으로 강제 송환하였던 것이다.

기시가 정권을 잡은 후 재일 동포들에 대한 박해 책동은 더욱 간교하게 진행되였다. 기시 정부는 재일 동포들을 《한일 회담》의 미끼로 삼으면서 공화국에로의 그들의 귀국 실현을 각방으로 방해하였으며 《재일본 조선인 총 련합회》와 그 산하 단체들 및 그 성원들을 소위 《파괴 활동 방지법》의 주요 대상으로 간주하고 항상 감시 미행하며 각종 암해 공작과 악선동을 감행함으로써 그의 활동을 억제하려고 하여 왔다. 이와 함께 기시 정부는 재일 동포들에 대한 략탈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는바 그것은 세금 징수와 조선인 실업자들에 대한 《생활 보호》 정형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기시 정부는 1957년도에 재일 동포들에게서 13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략탈하였다면 1958년도에는 그것이 200억원으로 격증되였다. 반면에 조선인 실업자들의 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략탈한 세금의 8.4%에 불과하였다. 《생활 보호비》 지출이 비교적 많았다는 1955년 12월에도 대상자 13만 8,972명(전체 《보호》 대상자의 24.1%)에 지출한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1957년 6월에 와서는 대상자는 8만 1,000명(대상자의 13.6%)으로, 금액은 1억 4천만 원으로 감소되였다. 기시 정부는 이러한 《생활 보호비》 대상자들을 각종 구실을 붙여 계속 삭감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비법적인 탄압과 략탈에도 불구하고 재일 동포들의 투쟁은 조선 정전 후 가일층 강화되였다. 이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의 국내적 위력의 급격한 장성과 국제적 위신의 제고, 세계 사회주의 력량의 미증유의 공고 발전, 일본 국내에서의 로동 운동의 급속한 장성은 그들의 투쟁을 가일층 고무하였다. 이리하여 1955년 5월 《재일본 조선인 총 련합회》(이하 《총련》으로 략칭함)가 창설된 후부터 그 투쟁은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되였다.

《총련》은 재일 동포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박해 책동의 부당성을 추구하며 재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및 생활적 권리를 쟁취하며 오무라 수용소에 억류된 동포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일 회담》을 반대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였으며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으로부터의 즉시 철거와 매국 배족적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 남조선에로의 원자 무기 도입을 반대하는 투쟁, 남조선 절량 농가 구호 운동 등에 재일 동포들을 한결같이 궐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총련》은 재일 동포들을 공화국 정부 주위에 집결시키기 위하여 광범한 정치 조직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그를 옹호 지지하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이 결과에 절대 다수의 재일 동포들이 《총련》의 산하에 집결되게 되였다.

특히 《총련》은 공화국 정부의 배려와 일본 각계 인민들의 지지 성원에 고무되면서 재일 동포들의 일치한 념원인 공화국에로의 귀국 운동을 강력히 조직 전개하여 왔으며 귀국 열의에 불타는 그들의 애국적 열의를 옳게 조직 동원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재일 동포들의 투쟁은 귀국 사업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앙양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제 패망 직후부터 미 일 반동들의 부당한 박해 탄압 정책은 재일 동포들의 생활을 나날이 악화시켰다. 특히 이것은 최근 년간 기시 정부의 략탈 정책의 강화로 인하여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전체 재일 동포 중 그의 절대 다수인 80% 이상은 실업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일본 출판물들에 의하더라도 일본인 회사나 공장에 고용된 재일 동포들은 없다. 이러한 형편에서 재일 동포들의 절대 다수는 오물 적치장을 대상으로 하는 누더기 줏기, 고철 수집, 밥찌꺼기 모으기 등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은 재일 동포들의 가장 보편적인 생계의 수단으로 되고 있다. 간혹 직업을 가진 동포들이란 험준한 산악 지대의 토목, 발전 공사 등 생명의 위험을 걸지 않고서는 일할 수 없는 중로동 부문에 종사하고 있을 뿐이다.

아오모리현 고소가와하라에 거주하는 재일 동포들의 실례만 보더라도 74세대 중 3호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도꾜도 미나도구 다까하마에서도 60호의 재일 동포들 중 55호가 정상적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재일 동포들은 《지상 최저의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오사까시 이즈미기다 지구의 재일 동포들의 생활 실태만 보더라도 57세대의 1인당 월 생활비 평균은 2천 33원으로서 기아선상의 생활을 하고 있다(현재 일본에서 식구 5명을 가진 세대의 최저 생활비는 3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많은 재일 동포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생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가 류산하여 산간 지대의 험한 공사장을 찾아 류랑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처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거나 기타 무의 무탁한 자녀들을 고아원에 의탁하는 현상이 속출되여 그 수는 현재 조사된 수만 하여도 1천 300 여명에 달하고 있다.

생활의 위협은 소규모의 상업을 경영하는 형편이 좀 낫다고 하는 재일 동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상업은 주로 고물상, 음식점 등 극히 상업적 기반이 약하고 수입이 일정하지 못한 부문이다. 이러한 상업도 세금과 융자의 곤난, 특히 일본의 경제 공황과 관련하여 파산하는 수가 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비법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재일 동포들은 결혼, 출생 신고조차 간단히 하지 못하며 시영, 현영 주택에도 조선인들은 들어갈 권리가 없다 하여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화재 보험 신청조차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생활 처지로부터 재일 동포들은 날로 번영 발전하고 있는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로의 귀국을 절실히 요구하여 나서게 되였다.

재일 동포들은 자기들의 체험을 통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에 의하여 감행되고 있는 전쟁 도발 정책과 략탈 정책의 본질을 똑똑히 알고 있으며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반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조적인 현실을 똑똑히 보고 있다.

자기들에게 항상 동포애적 배려를 돌려 주며 날로 륭성 발전하고 있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와 빛나는 전망, 이와 반면에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리 승만 도당의 매국 배족적 정책이 빚어낸 남조선 경제의 전면적 파산, 남조선 인민들이 처하고 있는 정치적 무권리와 전대미문의 생활적 고통, 그로 인하여 수 많은 남조선 인민들이 일본에 밀항하며 남미주에 종신 노예로 팔려 가는 참상 등——이 모든 것은 절대 다수의 재일 동포들로 하여금 고향을 남조선에 두고도 공화국 북반부에로의 귀국을 일치하게 요구하여 나서게 하였으며 남조선에로의 강제 송환을 견결히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게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오직 공화국만이 자기의 후손 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유일한 보금자리로 확신하고 있다.

* *

우리 당은 그 창건 첫날부터 시종 일관하게 재일 동포들도 포함한 모든 재외 공민들의 민족적 및 민주주의적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자기의 숭고한 의무로 간주하고 그를 위하여 거대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공화국이 창건된 후부터 당과 정부는 시종 일관 재일 조선 공민들이 외국인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합법적 권리를 보장 받게 하여 주며 그들의 생활을 안정케 하기 위해서와 재일 동포들의 귀국을 보장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여 왔다.

이로부터 당과 정부는 재일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와 생활적 권리를 유린 억제하며 부당한 구실로써 그들을 남조선에 강제 송환하려는 일본 정부의 립장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폭로 규탄하였으며 그들을 하루 속히 귀국시킬 것을 요구하여 왔다.

이와 함께 당과 정부는 빈궁과 기아와 무권리 속에서 헤매는 재일 동포들에게 직접 물질적 방조를 주었으며 그들을 받아 들이기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1956년 1월 16일 공화국 정부는 내각 결정 7호로써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매국 통치와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반부 청년 학생들과 함께 재일 조선 청년 학생들에게도 북반부에 들어와 학습한다면 모든 취학 조건을 즉시 보장할 것을 공포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재일 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을 방조하기 위하여 5차에 걸쳐 약 6억 원(일화)에 달하는 금액을 보내 주었다.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이러한 동포애적 배려는 재일 동포들의 귀국 운동을 고무하여 주었는바 이에 있어서 특히 작년 9월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경축 대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보고는 그들의 투쟁을 가일층 고무하여 주었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 보고에서 《공화국 정부는 재일 동포들이 조국에 돌아와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 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 민족적 의무로 생각한다》고 지적하였는바 이것은 재일 동포들에 대한 극진한 배려의 표시였다.

김 일성 동지의 보고에 근거하여 공화국 정부는 재일 동포들을 언제든지 받아 들일 준비가 되여 있으며 그들의 귀국 후 생활 안착과 자녀 교육을 전적으로 보장할 것을 천명하며 또한 귀국에 필요한 수송 수단과 려비까지도 부담할 것을 표명하면서 일본 정부가 재일 동포들의 귀국을 위하여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화국 정부가 취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재일 동포들의 귀국 운동을 더욱 고무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 속에서는 일찌기 볼 수 없는 규모로 집단적 귀국 운동이 전개되게 되였다.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던 그들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기다리는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있는 데 대하여 더없는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오직 귀국 실현에 의탁하게 되였으며 일상 생활 계획을 귀국과 관련시켜 세웠다. 이러한 비등된 귀국 운동 속에서 《재일본 한국인 거류민단》에 속해있던 많은 동포들도 오직 공화국만이 자기의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공화국에로의 귀국을 요구하여 나서게 되였다. 귀국 실현을 위한 재일 동포들의 이러한 비등된 투쟁은 광범한 일본 인민들의 지지를 받았는바 일본의 각 정당, 사회 단체 및 각계 인사들은 귀국 협력회를 조직하였으며 또 각 지방에서도 귀국 협력회를 조직하였다.

이와 같이 재일 동포들의 귀국 실현을 위한 공화국 정부의 시종 일관한 동포애적 조치와 전체 조선 인민의 견결한 투쟁, 재일 동포들의 비상히 앙양된 귀국 운동과 그를 지지 성원하는 일본 각계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의 확대 발전, 그리고 인도주의적 립장에서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광범한 국제 여론의 비등은 기시 정부의 립장을 난처하게 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그 압력에 못 이겨 부득불 각의에서 재일 동포들을 귀국시킬 것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기시 정부는 재일 동포들의 귀국 문제를 결정하면서 최초부터 이 기회를 리용하여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즉 그들은 재일 동포들의 귀국 문제의 결정으로써 자기들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으며 그를 《한일 회담》의 정치적 흥정꺼리로 삼으며 여론을 오도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본 인민들의 환심을 얻어 참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유리한 지반을 조성하며 또 닥쳐올 일 미 《안전 보장 조약》을 개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고 타산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시 정부는 애당초부터 재일 동포들의 귀국 문제를 인도주의적 립장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재일 동포들의 귀국 문제의 제기는 리 승만 도당의 발광적인 소동을 일으켰다. 이 추악한 매국 배족적 도당들은 수십만 재일 동포들이 빈궁과 기아 속에서 헤매며 살'길을 찾아 공화국 북반부에로 돌아 오려는 바로 그 일본으로 남조선 인민을 밀항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면서도, 남조선을 인간 생지옥으로 만들어 놓고도, 또한 남조선 인민을 남미주에 종신 노예로 팔아 먹으려고 책동하면서도 몰렴치하게 재일 동포들의 공화국에로의 귀국을 방해하여 나섰다. 그들은 재일 동포들의 공화국에로의 귀국을 막음으로써 그들을 《한국적》으로 규정하고 자기의 《법적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바 이것은 재일 동포들을 오늘과 같은 처지에 영원히 얽어매 놓으려는 배족적 본질을 적라라하게 전 세계에 폭로하여 줄 뿐이다.

재일 동포들의 공화국에로의 귀국은 근본적으로 미제의 비위에 맞지 않았다. 그리하여 미제는 배후에서 재일 동포들의 귀국 실현을 파탄시키려고 각방으로 획책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최초부터 재일 동포들의 귀국 문제를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리용하려고 지연 책동을 하여 온 기시 정부로 하여금 더욱 귀국 실현을 저해하는 데로 나아가게 하였다. 이것은 제네바에서의 조 일 량국 적십자 대표단 간의 쌍방 회담 과정에서

일본 대표가 취한 태도에서도 뚜렷이 표현되였다.

일본측은 제네바 회담에서 처음부터 인도주의적 원칙과는 모순되는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부당한 립장과 황당한 주장을 내 놓음으로써 회담을 복잡화하고 회담을 지연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회담 시초부터 재일 동포들이 이미 표시한 의사를 재《확인》하며 그들을 《선별》하려는 부당한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 제기 자체가 벌써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자기 조국에 귀국하려는 사람은 보내고 사정에 의하여 귀국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내지 않으면 그만인데 《선별》이니 의사 《확인》이니 할 필요는 추호도 없다. 더우기 이미 귀국 의사를 표시한 재일 동포들에 대하여 의사를 재《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재일 동포들에게 어떤 외부적인 압력을 가하며 그들의 귀국 문제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재일 동포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인도주의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우리측의 정당한 주장에 못 이겨 말로써는 의사 《확인》이니 《선별》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더욱 간교한 방법으로 《선별》을 하려고 획책하여 나섰으며 회담을 지연시키는 인공적인 장애를 조성하여 놓았다.

일본측이 회담 초기부터 완강하게 고집하여 온 적십자 국제 위원회의 개입 문제에 대하여 말하더라도 우리의 주장은 처음부터 명백하였다.

원래 재일 동포들의 귀국 문제는 보내고 받는 당사자들인 조 일 량국 적십자 ,간에서 응당 인도주의적 립장에서 해결되면 그만인 것만큼 여기에 제 3자의 개입은 필요치 않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 관례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재일 동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하루 속히 덜어 주려는 동포애적 념원과 인도주의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적십자 국제 위원회의 관찰에 관한 중요한 조치를 포함한 새 방안을 제기하였다. 즉 적십자 국제 위원회의 개입은 《기계적》《형식적》 개입이 아니라 그의 위신과 권위를 존중하여 귀국 사업 전반을 관찰할 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회담에서 합의의 기초가 이루어지자 일본측은 당황망조하게 되였는바 이것은 그들의 간교한 회담 지연 책동이 파산되게 되였기 때문이였다. 그리하여 일본측은 전후 관계가 모순에 찬 주장을 늘어 놓으면서 회담을 지연시키려고 하였다. 례컨대 그들은 심지어 재일 동포들의 귀국 문제가 일본 《국내 문제》라고 하면서 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까지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한 일이다. 만일 재일 동포들의 귀국 문제가 일본의 《국내 문제》라면 쌍방 회담을 할 필요성조차 없는 것이다. 재일 동포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당당한 공민이다. 따라서 그들의 귀국 문제가 결코 일본의 《국내 문제》로 될 수 없다.

일본측은 우리측의 정당한 주장에 의하여 자기들의 주장의 부당성이 폭로된 후 회의를 지연시킨 끝에 제 1차 회담 시기보다 후퇴한 주장을 늘어 놓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첫 계획에서 내놓았던 적십자 국제 위원회의 《원조》와 《조언》이란 말을 《감시》와 《비준》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적십자 국제 위원회의 권위를 악용하여 재일 동포들을 귀국시켜야 할 자기들의 회피할 수 없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시도하였으며 《불평 처리》를 위하여 제 3자까지 개입시킬 것을 기도하였다.

일본측의 이러한 소위 《건설적 방안》은 결국 일본측이 적십자 국제 위원회의 《감시》라는 미명하에 귀국 의사를 표시한 재일 동포들을 더욱 철저히 《선별》하며 《불평 처리》라는 구실을 붙여 리 승만 특무들에게 재일 동포들의 귀국 사업을 파괴할 수 있는 합법적 길을 열어 주려는 그들의 종래의 책동의 재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은 일본측의 부당한 립장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하루 속히 결속 짓고 고통 받는 재일 동포들을 하루 속히 귀국시키기 위하여 17차 회담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기하였다.

수정안에는 일본측이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일련의 장애를 제거할 목적으로 그들의 요구대로 대폭 양보하는 성의를 표시하였다.

즉 적십자 국제 위원회의 조언 문제, 조선 적십자 대표의 입국 문제,《재일본 조선인 총 련합회》의 명단 문제,첫 귀국선 출발 기간 문제,화물 60키로그람 운임 문제 등에서 일본측의 요구대로 양보하였다.

이와 같이 기시 정부가 재일 동포들의 귀국 문제를 지연시키면서 회담을 파탄시키려 하였으나 우리측의 시종 일관한 진지한 노력과 합리적 방안에 의하여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그들은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제네바 회담에서 우리측이 일본측의 간교한 책동을 물리치고 그들로 하여금 협정 문건 작성에 동의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 사실은 실로 우리의 외교 정책의 거대한 승리다.

회담을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재일 동포들의 귀국 실현을 위하여 시종 일관 온갖 성의와 노력을 경주한 공화국 정부의 동포애적 립장과 인도주의를 다시 한 번 내외에 보여 주었으며 그리하여 공화국 정부만이 재일 동포들의 절박한 념원의 구현자이며 그들의 진정한 리익의 수호자라는 것을 더욱 뚜렷이 보여 주었다. 이와 반면에 회담을 통하여 일본 정부의 비인도적인 립장과 부당한 주장들이 낱낱이 폭로되였으며 리 승만 도당의 매국 배족적 본질이 더욱 똑똑히 세계의 면전에서 폭로되였다. 이리하여 공화국은 더욱 많은 전 세계 선량한 사람들의 지지와 동정을 받게 되였다. 이 모든 것들은 재일 동포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고무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학정하에서 신음하는 남반부 인민들을 더욱 각성시키며 그들의 투지를 더욱 고무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오늘 일본측은 합의된 협정 문건에 대한 조인을 지연시킴으로써 또다시 자기의 부당한 립장을 자체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측의 책동은 바로 일본 당국이 재일 조선 공민들을 하루 속히 공화국에로 돌려 보내려는 성의가 없으며 그들의 귀국에 계속 장애를 조성하려는, 이미 계획된 책동임을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일본측이 적십자 국제 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협정 문건에 조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실로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쌍방 간에 이미 합의된 협정의 내용과 정신에 전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며 회담 과정에서 한 그들의 언약까지도 거역하는 배신 행위이다.

조 일 쌍방 간에 합의된 협정 문건에는 사전에 적십자 국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그에 조인할 수 있다는 문구는 한마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이러한 부당한 주장으로써 협정 문건에 대한 조인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일본 출판물들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미국 및 남조선과의 일본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 데 있는 것이다. 특히 그것은 미제의 압력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사태를 똑똑히 분간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재일 동포들의 귀국 운동이 더욱 앙양되고 있고 일본 인민들의 지지 성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의 공정한 여론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이 때 일본 정부는 그 어떠한 술책으로써도 성숙된 재일 동포들의 귀국 문제 해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늘날 재일 동포들의 귀국 실현을 위한 투쟁은 그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막을 수 없다. 재일 동포들은 반드시 공화국에로 돌아 오고야 말 것이다.

민주주의의 회복 및 갱신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자 및 공화주의자들의 력량을 단합하자

——불란서 공산당 제 15차 대회에서 진술한 보고——

모리스 토레즈

불란서 공산당 총 비서 모리스 토레즈는 불란서 공산당 제 15차 대회에서 의안 첫째 문제 《민주주의의 회복 및 갱신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자 및 공화주의자들의 력량을 단합하자》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다음에 그 보고의 요지를 게재한다.

경제의 쇠퇴

《복구》에 대하여 떠벌리는 공식적 활동가들의 온갖 연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불란서 경제는 불안정하고 불견고한 상태에 놓여 있는바 그 원인은 우선 자본주의 세계의 전반적 정세에 의하여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알제리아 전쟁의 후과로 말미암아 더욱 우심하여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동 시장》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더 악화될 수 있을 따름이다.

구라파의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미국에서의 경제 공황의 결과 생산의 쇠퇴가 일어났다. 불란서에서 생산의 쇠퇴는 처음에 방직 공업, 피혁 공업, 농기계 제작 공업, 자전거, 모터찌클 및 가구 생산 부문을 휩쓸었다. 공업 총 생산 지수는 1958년 4—5월에 158이었던 것이 1959년 1월에는 152로 저하되었다. 특히 직물 생산은 12%, 화물 자동차 생산은 20%, 모터찌클 생산은 35—40%, 농기계 생산은 40%씩 각각 감소되었다. 일련의 기업소들에서의 주문 대상자들의 축소는 앞으로 닥쳐 올 곤난들을 예상케 한다. 보조를 받는 실업자들의 수는 적어도 3배로 증대되었으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배로 늘었다.

마치 불란서 대외 무역 발란스의 개선이 엿보이는듯이 말하는 공식 기관들의 주장은 무근거하다. 무역 발란스의 개선을 둘러 싸고 소동을 일으키면서도 그 원인이 원료 수입의 축소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또한 공황의 결과이며 따라서 그의 앞으로의 첨예화의 요인으로 된다는 것을 망각하고들 있다. 경제 발전의 결정적 요인으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내 시장의 확장이다. 그런데 매일 30억 프랑씩 지출되고 있는 알제리아 전쟁에 대한 지출 예산에 부과되는 중하는 불가피적으로 국민 소비에 대한 지출액의 부족을 초래하며 국내 수요의 저하와 대중의 구매력의 계통적 축소를 초래케 한다. 불란서 경제는 알제리아 전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산의 현대화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생활 수준의 제고는 고사하고 현존 수준의 유지도 보장할 수 없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였는데 정부는 로동 계급, 농민, 중간층의 생활 수준을 저하시키는 길을 택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경제의 온갖 현실적이고 조화된 발전은 불가능하다.

《공동 시장》의 효력 발생은 그 위험한 후과들을 불란서에 가져 올 것인바 그것은 불가피적으로 독점체들 간의 경쟁을 격화시키며 서부 독일과 같이 이 경제 쁠럭 내에서 가장 강대한 참가국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서부 독일은 인구수에서나 경제적 및 공업적 잠재력에 있어서나 가장 강대하다.

현재 불란서에서는 자본의 집중화가 급속한 템포로 진행되고 있는바 몇 개의 금융 자본 그루빠가 불란서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문들을 지배하고 있다. 례를 들어서 호상 련결된 다섯 개의 트레스트가 강철 생산의 72%를 통제하고 있으며 두 개의 트레스트가 전체 알루미늄 생산을 장악하고 있으며, 네 개의 기업 련합체가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며 한 개의 트레스트가 파린산업 생산의 80%를 통제하고 있다. 전자 공업, 석유 화학 공업, 합성 섬유 공업과 같은 새로운 공업 부문들은 전적으로 자본주의적 회사들에 종속되고 있다.

부단히 리윤을 높이고 있는 대독점체들은 국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 자본의 직접적 대표자들이 국가 기관, 불란서 은행과 기타 은행들, 국유화된 기업체들, 최고 행정 기관들, 외교계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드 골 정권이 수립된 후로 더욱 광범위하게 국가 관리의 공간들을 탈취하고 있다. 죠르쥬 퐁피두나 샬란동과 같은 새 정권의 유력한 활동가들의 이름은 대은행들의 위력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다는 데 대한 상징이다. 현재 불란서에는 《방크 드 파리 에 드 페이 바》, 라자르 형제 은행, 로트쉴드 은행, 구라파 동맹 은행과 같은 대은행들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경제 활동 분야는 거의 하나도 없다. 과거에 비시 도배였던 헌법 위원회 위원장 레온 노엘리는 대석유 회사 《스탄다드 오일》의 관리자인 동시에 《콤파니 제네랄 드 아슈란스》의 부사장이며 남부 철도와 《론—풀랑크》 화학 공장의 관리부 성원의 한 사람이다.

이러한 실례는 무수히 들 수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국민 소득에 대한 자본가 집단의 몫이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희생시키며 농민과 도시 소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저하시킴으로써 증대된다는 사실이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본가들의 수입이 1958년에는 1957년에 비하여 약 20—25% 증대되었다. 자본주의적 대회사들의 주권의 대부분이 전체 불란서 인구의 1%도 못 되는 소수 분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조건하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로동자들의 로력의 경감과 그들의 생활 형편의 개선을 가져 오지 못한다. 그와는 반대로 자본가들은 로동자 수의 축소, 착취의 강화, 산업 예비군으로서의 실업자 대군의 형성을 위하여 새 기술과 자동화를 적용한다.

현 정부의 사회 정책은 페탕 원수와 라발의 집권 당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반동적이다. 이 정책은 근로자들이 수십년 간의 투쟁에 의하여 쟁취한 초보적 권리들마저 빼앗으려는 금융 자본의 완고한 노력을 말하여 주고 있다. 현 정부는 근로 대중의 리익을 무시하고 그들의 생활 수준을 저하시키는 반(反)민주주의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원쑤들은 마치 자본주의 조건에서 로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고되며 따라서 계급 투쟁의 첨예화,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한 맑스주의와 맑스주의 리론이 전복된 듯이 말하였다. 그러나 사건의 전 행정은 이러한 테제들의 무근거성과 사회주의에로의 자본주의의 점차적, 자연 발생적 진화에 대한 모든 예언들의 허위성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소위 《인민적 자본주의》 리론은 마치 계급들이 《용해되며》 따라서 로동자들이 자본주의적 착취자들을 반대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로동 계급을 기만하기 위하여 전파되고 있다.

불란서의 새 제도의 파멸적 후과들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처지는 곤난해지고 중 소 기업들은 령락되고 있다. 소수공업자들과 소상인들은 미래를 위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과거의 생활을 옹호하려고 한다. 도시의 소생산자들의 직접적 리해 관계를 위해서 투쟁하는 공산당원들은 도시 소생산자들과 농민들을 향하여 로동 계급과의 협조의 길, 독점체들의 압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길만이 그들 앞에 미래를 열어주며 그들을 행복한 생활에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정부의 정책으로 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주민층 속에서 불만이 커가고 있는바 새 정권은 이들의 반항을 분쇄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러한 목적 밑에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통제를 전횡적인 지도와 개인 숭배로 대체하는 일련의 반민주주의적인 변혁이 실시되였다.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며 사법 기관의 사업을 변경하려는 대책들과 군사 개혁은 인민들의 격분을 야기하였다. 1월 7일부 드 골, 수스텔, 기 몰레 및 레장의 서명으로 발포된 법령에 의하여 예견된 소위 군사 개혁은 례를 들어서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전반적 군사 교육과 전체 남녀 주민들의 동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군사 독재를 설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여 있다. 뿐만 아니라 알제리아에서 식민지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군대는 자연히 공민 전쟁 즉 불란서 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의 군대로 전변된다.

근로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공격은 교육 체계의 민주주의적 원칙들에 대한 몽매주의적, 교권주의적 공격을 동반하며 비종교적 국립 학교들을 희생으로 하여 사립 종교 학교들의 강화를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 정권은 야당들을 청산하겠다고 위협하며 반동 분자들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주어 파씨즘에로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오늘날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의지에 의존하며,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책을 규정하는 한 활동가에 의해서 국회 의원들이나 대신들이 교체되는 이러한 형편을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불란서는 절망적인 알제리아 전쟁을 즉시 중지해

야 하는바 이 전쟁은 《불란서의 고질》인 것이다.

그 원인은 대부르죠아지가 식민주의 청산에 대한 기본 문제 해결에 무력함에 있다. 알제리아 전쟁은 불란서의 민주주의 정체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이 전쟁은 인종론과 배외주의를 발전시키며 무수한 만행을 동반하고 있다. 이 전쟁은 불란서와 뜌니샤, 불란서와 모로코의 관계의 정상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반동의 모험적 대외 정책

드 골 정권의 대외 정책은 우리 인민의 념원에 배치된다.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 안전, 군비 축소——이러한 것이 우리 나라 수백만 보통 사람들의 념원이다. 그러나 정부의 목적은 긴장 상태의 유지 및 격화에 있다. 긴장 상태의 격화는 《랭전》에 필요한바 그 목적은 알제리아에서의 군사 작전을 계속하며 불란서의 반동 정권을 강화하며 독점체들의 리익을 위하여 구라파 및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려는 데 있다. 불란서 정부는 서부 독일, 교권주의적 이태리 정부 및 서반아의 프랑코 정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얼마 전에 불란서 정부는 구라파에서의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 즉 대륙 중심지에서의 정세의 정상화, 적대적 무력들의 분리, 독일과의 강화 조약 체결,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중심지에서의 음모와 도발의 발원지인 서부 베를린 정세의 정상화 등등의 문제의 해결을 반대하여 나섰다.

변천된 현 세계 정세하에서 불란서 정부의 모험적 대외 정책은 긴장 상태의 완화를 지향하는 국제 정세 발전의 전반적 추세와 부합되지 않는다. 세계의 면모는 변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 체계는 평화와 진보와 인민들의 자유에 유리하게 국제 정세에 더욱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할 것은 제네바 외상 회의에서의 불란서 대표의 역할이다. 불란서 대표는 《현상》 유지를 즉 제국주의적 서부 독일로 하여금 지금 당장 구체적인 령토적 요구를 들고 나오게끔 고무하는 정세의 유지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란서 대표는 회의의 성과를 방해하려고 애썼다. 불란서 정부는 구라파의 중심에 원자 무기없는 지대를 창설할 데 대한 파란 정부의 제의를 거부하였으며 수뇌자 회담에로의 길에 각방으로 장애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불란서 정부는 수뇌자 회담이 미국, 쏘련 및 영국 간의 핵 무기 시험 금지에 관한 협정을 달성케 할가봐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다.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불란서의 원자 폭탄을 시험하려는 요구에 의하여 고무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은 우리 나라를 고립시키며 그 위신을 저락시키고 있다.

쏘련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과 7개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기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도 큰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쏘련은 우주 공간의 신비로운 길을 인류 앞에 열어 주면서 과학, 기술의 진보와 문화의 선봉에 서서 나아가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와 반동 세력이 파씨즘을 재생시키기 위해 진력하고 있는 때에 쏘련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꽃피고 있다. 사회주의는 인간의 개성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자본주의는 인간을 노예화하고 모욕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이 강화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모순이 첨예화되고 식민지 체계가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은 더욱 강화되였다. 공산당들은 83개국에 존재하며 3천 300만 명 이상의 당원을 망라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상은 비할 바 없이 큰 힘으로 인민 대중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독점체들이 지휘하고 있는 한 반동 정객들도 존재할 것이며 그들은 《랭전》을 지지하고 강화하며 쏘련에 대한 증오심을 류포시키며 군국주의를 발전시키고 긴장 상태 완화와 군비 축소를 반대하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란서의 큰 불행은 그 통치자들이 평화를 반대하는 자들의 선두에 서 있는 데 있다.

대중을 단합시키기 위한 로동 계급의 투쟁

로동 계급과 공산당의 기본 과업은 평화와 자유와 행복한 생활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단합시키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 농민, 인테리 및 도시 소부르죠아지와의 동맹은 긴급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독점체들의 정책을 반대하는 이 계층들의 모든 조직들을 단합할 데 대한 사상이 전파되고 있다.

불란서 근로자들은 자기의 경제적 요구의 관철을 위하여, 사회적 권리의 옹호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이 투쟁 행정에서 행동 통일에 대한 지향이 장성하고 있는바 각종 로조 련합체들의 성원으로 들어 있는 로동 조합들 간에 체결된 수 많은 협정들이 그것을 증시하여 주고 있다. 각이한 사회적 처지와 각이한 정치적, 철학적 견해를 가진 남녀 인사들을 자기 대렬에 망라하고 있는 평화 옹호 운동이 불란서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 있다. 평화——이는 자기의 노력으로써 보장할 수 있는 수백만 보통 사람들의 사업이다. 평화 옹호 운동의 호소에 의하여 수십개의 대표단이 외상 회의 기간에 제네바를 방문하였다. 이러한 대표단들이 공장들에서 수 많이 선출되였다.

그들은 독일의 현재의 국경선을 확인하는 강화 조약의 체결 그리고 베를린 정세의 정상화를 요구하였다.

알제리아에서의 평화를 위한 투쟁은 개인 정권의 대표자들의 약속에 의해서 산생된 환상의 영향으로 하여 일시 침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환상이 깨뜨러지기 시작하였으며 지금 불란서에서는 알제리아 인민들의 대표들과 회담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 평화를 달성할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중에게 주는 여론 수집 운동을 평화 옹호 운동자들이 전개하고 있다. 이 깜빠니야는 전쟁 중지를 위한 투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정권이 갖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동자, 농민, 인테리겐챠, 청년들, 전선 귀환병 및 기타 주민층의 투지를 마비시킬 수 없었는바 주민들은 드 골 정치의 진면모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차츰 이 운동에 들어 서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운동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며 민주주의의 회복과 갱신을 위한 투쟁에 최대한의 위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인민의 모든 력량을 집결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우선 로동 계급의 대렬을 강화하고 그의 단결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불란서 사회당이 실시한 각 분야에서의 계급적 협조 정책으로 말미암아 당내에 심각한 위기를 조성한 이 당의 분렬 정책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당 내에서는 로동자들의 수가 더욱더 적어지고 있는바 이것은 이 당 내부에 각종의 썩어 빠진 사상들이 전파되고 있는 데 그 원인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사회당원인 로동자들은 더는 당내의 현 상태에 만족할 수 없으며 그들은 이 당 지도자들이 진행하는 드 골 정권파의 음모 정책을 빈번히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하부 조직들에서 사회당원인 로동자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자기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서 우리들 공산당원들 앞에 어떤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공산당원들은 사회 당원들을 설득하여 그들을 공동 투쟁에 참가시킬 줄 알아야 한다. 이 단결은 협동 동작으로써 동맹 창설에 대한 온갖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서 매우 강력해야 하며 매우 적극적이여야 한다.

독립적 사회당의 창설은 기 몰레의 정책과 손을 끊으려는 많은 사회당원인 로동자들의 념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다. 공동 행동에는 일체 민주주의 력량, 일체 자유주의자들, 카톨릭 단체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인입되여야 한다. 이들은 모두가 불란서 국제 로동 총 련맹 산하 로동자들과의 통일 전선 결성을 지지하며 경제적 요구의 관철을 위한 공동 투쟁에 참가하기를 원하고 있다. 공동 행동은 정치 분야에서도 필요하며 자유와 평화를 위한 투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산당 강령 초안

이 강령은 근로 농민, 인테리, 도시 중간층들과의 로동 계급의 동맹을 위한, 공산당과 기타 민주주의적 당들과의 동맹을 위한 구체적인 정강으로 될 수 있다. 정치 분야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기초한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인 통치 체계를 승인할 헌법 제정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하는 바이다.

최고 주권은 공화제 국가를 통하여, 비례 대표제에 의한 직접적, 일반적 투표로써 선출되고 유일한 국민 회의를 구성하는 인민의 대표들에게 속하여야 한다. 국민 회의에 의하여 창설된 정부는 그 앞에 책임을 진다. 비례 대표제는 일체 선거에 적용되여야 한다. 모든 대의원들은 소환될 수 있다.

자유와 인권은 법령에 의하여 보장되여야 하며 이 법령을 위반하는 정무원들은 엄격히 처벌되여야 한다. 경찰을 민주화하며 그 구성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폭력 단체들은 금지되여야 하며 직업적 군대는 폐지되여야 한다. 군대는 전적으로 민족에게 복무하여야 하며 단기 군사 복무에 토대하여야 한다. 군대는 전적으로 주권에 종속되여야 한다. 군대 내에서 일체 정치적 및 사회적 차별 대우는 금지되여야 한다. 정무원들에 관한 민주주의적 규정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며 동시에 그들을 기관 관리 사업에 적극 참가시킬 것이다. 지방 자치에 관한 자유는 회복되고 확장되여야 하며 지방 장관들의 지위는 폐지되고 선거제 지방 의회에 그 권한을 이양하여야 한다. 재판관은 인민에 의하여 선거되며, 공화국은 국가와 교회, 학교와 교회의 엄격한 분리를 기본법

으로써 확인하며, 라지오 방송과 텔레비죤은 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통제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강령은 나라의 독립과 권위, 현대적 경제의 발전 및 일체 국가 자원의 리용을 위한 경제적 토대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광범한 강령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탐구된 자원과 재부들을 불란서 및 외국 트레스트들이 점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공산당은 독점체들 특히 원자 공업, 석유 공업, 대야금 공업 및 화학 공업, 상업 은행 및 보험 회사들을 국유화할 것을 제의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의 국영 기관과 기업소들——탄광, 불란서 철도 전국 협회, 《엘렉트리시테 에 가즈 드 프랑스》 회사, 신용 기관 및 국유화된 은행들의 관리에 대한 지도를 민주화하여야 한다. 경제 생활의 모든 고리들에서 근로자들의 지배와 통제, 그들의 조직이 확립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이전에 기업소 위원회들에 부여되였던 기능이 회복되고 확장되여야 한다.

국유화된 기업소들이 전력과 철도 수송 분야에서 자본주의 독점체들에게 허용하였던 특전적 료금률이 재검토되여야 한다. 1947년 이후에 있었던 것처럼 독점 자본이 국유화된 기업소들에 또다시 음흉한 방법으로 손을 뻗치는 것을 절대로 용허할 수 없다. 국회는 기본 투자의 방향을 통제하여야 하며, 경제 생활을 좌우하는 주요 상품 가격을 규정하여야 한다.

청년들의 장래와 문화의 혁신은 국가 주권의 제1차적인 배려 대상으로 되여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일반 교육 및 18세까지의 청년 남녀들에 대한 기술 교육의 확장으로써 특징 지어지는 민주주의적 개혁이 실시되여야 하며, 각급 학교들에서의 무료 교육 및 물질적 방조를 줄 필요가 있는 일체 아동들에 대한 장학금과 보조금의 급여, 국내 전체 지역에서 비종교적 교육의 완전한 실시, 민주주의적 정신에 기초한 교수 요강의 수정, 교육 기관 지도에서의 교원과 학부형의 권한의 확장, 교원들의 물질적 및 도덕적 처지의 개선이 보장되여야 한다.

불란서는 과학이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서 영예로운 한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 국가는 예술과 문학, 인민 문화 및 스포츠를 결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요한 생산력인 로동 계급의 생활 수준은 제고되여야 한다. 임금과 년금을 인상하여야 하며, 농업 로동자, 자유 로동자, 알제리아 근로자들과 모든 이주민들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한 특전과 권리를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임금을 감소시키지 않고 1주 40시간 로동제를 회복하여야 하며 앞으로는 기술적 진보에 적응하여 로동 시간을 점차 단축시켜야 한다. 사회 보장, 년로 보조금 제도 및 가족 수당 제도가 개선되여야 한다. 유아 때부터 어린이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며 수 많은 탁아소, 유치원들과 충분한 설비를 갖춘 학교들과 야영소들을 건설함으로써 가정에 대한 방조와 아동 보호가 보장될 것이다.

심각한 주택난은 대대적인 주택 건설과 도시 및 농촌에서의 주택 수리로 말미암아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로동 계급의 중요한 동맹자인 근로 농민은 산업 독점체, 대뿌로카와 지주들 및 기타의 모든 착취자들로부터 보호되여야 한다. 온갖 형태의 협동·조합을 물질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특히 저률의 장기 대부를 제공함으로써 농기구 리용 협동 조합의 조직을 장려하여야 한다. 인민 대중의 구매력의 장성은 광범한 농산물 판매 시장을 보장할 것이다. 국가는 빈농과 중농의 리익을 고려하여 비료와 농기구의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사회적 농업 법령들은 개정될 것인바 특히 그것은 보다 민주주의적인 융자 체계를 확립하며 대규모의 자본주의 경리에 대하여 더 많은 요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통하여 개정될 것이다. 지대는 인하되여야 하며 소작인들의 소작 조건은 개선되여야 한다.

수공업자들의 처지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들에게는 신용 체계를 확장하며 충분한 전문 기술 교육을 조직하며 사회 보장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군사 지출을 대폭적으로 축소함과 함께 수입이 많은 자들, 사회의 자본주의적 특권 계층에게 부과되는 직접세에 주로 기초하는 민주주의적 세금 체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불란서가 자기의 권위와 위신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식민지 체계로부터 해방되였거나 어느 정도 해방되고 있는 모든 인민들과 진정한 자주권 인정, 평등권과 호상 리익의 존중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각이한 경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평화적 공존이 대외 정책의 법칙으로 되여야 하는바 이것은 곧 우리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 정책은 원자 무기 및 대량 살륙 무기의 금지 그리고 군비 축소를 자기의 목적으로 한다. 이 정책은 결정적으로 독일 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할 것이다. 불란서는 어떠한 례외도 없이 모든 인민들과 협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불란서는 어떠한 차별 대우도 없이 모든 나라들과의 무역 및 문화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이 강령은 민족의 기본적 리해 관계와 합치된다. 이 강령은 자유롭고 강력하고 또 행복한 불란서를 창설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산당원—근로자들은 가장 광범한 프로레타리아적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옹호자들인바, 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는 부르죠아 민주주의에 고유한 모순들, 형식적인 자유와 사실상의 예속 간의 모순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따라서 사람마다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의하여 지도되면서 공산당원들은 모든 민주주의 운동을 항상 지지하여 왔다.

물론 계급 사회하에서의 민주주의는 그것이 대중에게 있어서 아무리 광범하다고 하더라도 결코 사회주의를 자체에 내포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앙 위원회가 이 대회에 제출한 테제는 광범하게 전개되는 민주주의 운동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의 변경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정당하게 상기시키고 있다. 이리하여 혁신된 불란서 민주주의는 인민과 민족의 기본적 리해 관계에 적응하여 독점체들의 활동 무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독점 자본을 고립시킬 수 있고 그의 침해로부터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보여 줄 것이다.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형태들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일반적 력사적 필연성인바 그러나 그 이행 형태들은 매개 인민의 민족적 특수성에 적응하여 또 력사적 조건의 변동과 국제적 규모에서의 계급적 력량 관계의 변동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또 달라야 한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 후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는 부단히 심각화되였으며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토대는 확대되였다. 사회주의의 영향과 위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아직 자본주의의 기반하에 있는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수립은 보다 확실한 것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평화적 방법에 의한 혁명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다. 혁명적 폭력 그 자체는 공산당원들의 목적이 아니다. 사실상 로동 계급은 혼란과 생산력의 파괴를 피할 수 있게 하는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혁명을 수행할 것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폭력의 사용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근로자들의 취미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것은 아닌바 그것은 인민의 의사에 대한 착취자들의 반항 정도, 그들이 사용하는 투쟁 형태에 의존하는 것이다.

불란서와 같이 국회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민 대표들의 민주주의적 대회를 리용할 수 있다. 그러한 대회로서는 대중이 자체 투쟁을 통하여 소집한 헌법 제정 회의에서 제정한 새로운 선거 규정에 기초하여 비례 대표제에 의한 직접적 선거로써 선출된 의회가 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회적 방법은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 방법의 하나이다. 의회 투쟁이 로동 계급과 그의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강력한 인민 운동과 결합되는 조건하에서 지금 의회를 부르죠아적 지배로부터 나라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수단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로동 계급, 농민 대중 및 도시 중간층들이 대독점 자본을 반대하여, 반동을 반대하여 광범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인민 력량들의 광범한 동맹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개량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눈에 뜨이지 않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 이행은 항상 혁명적 비약으로 되는바 혁명적 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진행되든지 간에 첨예한 계급 투쟁의 결과이다. 혁명은 필연적으로 낡은 국가 기구, 군사 및 경찰 기구, 최고 행정 기관 등의 청산에서 표현되며 또한 이 국가 기구가 인민의 힘으로 창건되고 전체 근로자들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와 기본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수립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복무할 수 있는 강력한 다른 기구로 교체되는 데서 표현된다. 상승하는 계급과 민족적 갱신을 위한 위대한 력량의 당인 공산당의 종국적 목적은 이러하다. 공산당은 대중의 단결과 행동만이 불란서를 민주주의적 길로 돌아 오게 할 수 있으며, 인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개인 주권을 반대하는 어려운 투쟁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현 계단에 있어서나 그리고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게 될 다음 단계에 있어서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대중 운동이다. 국가 관리에서의 일체 주요 고리들을 장악하고 있는 전횡 제도 앞에서 인민은 아직 약하며 따라서 첫 성과에 도취하여서는 안 된다. 튼튼하게 뿌리를 박은 반동 정권을 대상으로 투쟁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광범한 대중을 운동에 인입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공산당원들, 사회당원들, 모든 공화주의자들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알제리아에서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자유와 비종교적 교육 원칙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궐기시키기 위하여 온갖 필요한 노력들을 경주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적, 군국주의적 및 교권주의적 반동의 지배를 반대하는 뿔럭을 형성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적 반격을 전개하며 그것이 점차 불가극복적인 힘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힘을 단합하여야 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로동 계급의 통일 전선을 달성하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로동 계급과 중간층의 통일을 쟁취하자——이것이 공산당의 구호이다. 불란서에서의 제 사건의 진행 과정은 최초부터 불란서의 개인 주권 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한 공산당의 총로선이 정확하였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당은 가장 복잡한 시기에 인민의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투쟁에 나서도록 조직할 수 있었다. 당 정치 로선의 확고성 및 정당성과 함께 공산당원들의 용감성과 충실성, 그들의 이니샤티브와 조직적 수완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들은 힘을 아끼지 않고 헌신 분투하였으며 경찰의 폭력에 대항하였고 그들 자신이 용감하고도 진정한 자유의 수호자들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최근에 진행된 지방 참사회 선거는 공산당에 커다란 승리를 가져 왔는바 이 선거는 인민이 공산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익 및 극우익 정당들, 특히 새 공화국 옹호 투쟁 동맹은 패배를 당하였다. 공산당 대렬의 불패의 통일이 제 15차 당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표현되였다. 불란서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하고 있다. 공산당은 주되는 편향으로 되는 우익 기회주의를 반대하여, 그리고 쎅트주의를 반대하여 경각성있게 투쟁하고 있다. 생활 자체와 사건들의 진행 과정은 기회주의적 사상과 수정주의적 사상을 폭로할 수 있게 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본주의가 자체의 성격을 변경시킬 능력이 없으며, 자체 모순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그들은 자기 경험을 통하여 빈궁화의 혹심한 후과를 체험하였다. 알제리아 문제에 관한 공산당의 명확한 립장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그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족적 리익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제국주의 전쟁의 연장에 대한 효과적 반항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립장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정주의자들은 참패를 당하였다.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정직한 공산당원들은 지금 정당한 립장으로 다시 돌아 왔다. 당의 원쑤들, 부화하고 타락한 자들의 소수 집단만이 당의 조직을 버리고 떠나 갔다. 이와 같은 이색 적대 분자들을 숙청함으로써 당은 강화되였다. 당은 지금 강대한 적들과의 투쟁에서 로동 계급을 지도하며 모든 민주 력량을 통일시켜야 할 자기 기능을 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튼튼히 무장하였다.

사상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당은 심각한 사상 투쟁에 들어 서면서 리론적 및 실천적 로선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있다. 두 개의 기본 세력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충돌은 우리 시대의 전체 력사를 충만시키고 있는만큼 두 개의 기본적 개념——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의 투쟁은 우리 시대의 일체 사상 생활을 특징 짓고 있다. 대중에게 주는 맑스주의의 영향이 더욱 장성하면 할수록 낡은 세계의 모든 옹호자들과 충복들이 더욱더 맑스주의를 반대하여 나설 것이다.

공산주의적 인테리들이 진보적 역할을 놀고 있다. 우수한 공산주의적 인테리들은 몽매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고 있다. 현 시기에 있어서 리론 연구 사업을 전개하여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진보적 사상을 옹호하는 데 새로운 인테리들을 인입하기 위하여 새로운 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불란서 공산당 중앙 위원회 도서관에 맑스주의 과학 연구 중앙 기관을 부설하기로 하였다. 작가들, 예술가들, 그리고 금융 자본의 파렴치한 지배, 전쟁, 독재 및 교권 제도를 배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산당을 우러러 보고 있다. 그들은 공산당을 반동파의 투쟁에 대한 중요한 지주(支柱)로 보고 있다. 지배층들의 도덕적 부패가 지금 알제리아 전쟁과 관련하여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명백하게 나타난 적은 일찌기 없었다. 가혹한 소탕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전쟁은 전체 인민을 반대하여 진행되고 있다. 청년들 속에 인종론을 부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알제리아 전쟁은 무서운 도덕적 외곡을 초래하고 있다. 공산당원들은 이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고립되여 있지 않는바 그들은 인권의 존중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의 선두에 서서 나가고 있다.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은 보다 높은 생활 수준, 보다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인류의 높은 도덕 발전 수준, 사람들 간의 우의, 매개 사람들의 개성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투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당원들의 과업은 반동 사상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며 근로 대중의 의식을 오도하려고 시도하는 대독점 부르죠아지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나서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산당의 선전은 또한 인민이 제기하는 정치 문제에 해답을 주어야 하며 견실하고 경험있는 로동자 간부들을 육성하여야 한다.

불란서 공산당은 제 15차 당 대회에 이르는 기간에 자기 대렬을 더욱더 강화하였다. 매년 당원 문건을 교환해 주다가 금년 6월 1일에 와서 중앙 위원회는 42만 5천 매의 당증을 교부하였는바 이것은 작년 동기에 비하여 12만 매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당 앞에 제기된 과업은 새로운 당원들 즉 가장 적극적인 로동자, 청년, 녀성, 농민 및 인테리들 가운데서 새로운 력량을 당에 받아 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원들은 기업소들 뿐만 아니라 가두, 기관, 농촌들에도 당 세포를 조직하기 위하여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실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의하며 모든 주민층의 대표들을 참가시켜 토론들을 조직하면서 주민들 가운데서 당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의 각급 당 단체들은 젊은 당열성자들을 대담하게 사업에 인입함으로써 보다 용감한 간부들을 등용하는 정책을 관철시켜야 한다.

당은 또한 수백만의 당 지지자들 속에서 자기 사업을 적극화하여야 한다. 투쟁의 모든 령역에서의 공산당원들과 비당원들의 동맹의 강화는 우리의 항구적인 제 1차적 과업으로 되여야 한다. 공산당원들은 로동 조합, 녀성 단체, 이전에 전선에 참가하였던 군인들의 운동, 스포츠 단체 및 중간층들의 각종 단체들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현 조건하에서 평화 옹호 운동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공산당원들은 기업소들과 가두에 평화 위원회들을 조직하도록 방조하면서 이 운동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거대한 정치적 과업으로 제기되는 것은 불란서 청년들을 공산당 편으로 끌어 들이는 문제인바 일체 낡은 세력들은 청년들을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투쟁으로부터 물러 서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제 14차 당 대회 이후 그와델루프, 마르티니카 및 레유니옹 도(島)의 불란서 공산당 현 위원회들이 각각 자립적인 당을 조직하였다. 불란서 공산당은 그들과 해당한 관계와 새로운 련계를 설정할 것인바 이것은 호상 유리할 [illegible].

나는 이 대회에 참가[illegible] 수 많은 형제 당 대표들 특히 우리 대회에 두번째로 참가한 엠. 아. 쑤쓸로브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영광스러운 쏘련 공산당 대표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결산 기간에 불란서 공산당은 사회주의 국가 및 자본주의 국가들의 형제적 당들의 모임에 수차 참가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서구라파 나라들에서의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에 대한 자본의 공격, 이 나라들에서의 반동의 공격과 위협, 평화 옹호,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 및 로동 계급의 통일 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토의할 회의들을 또한 예견하고 있다.

공산당과 불란서 인민 앞에는 간고한 전투가 놓여 있다.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로동 계급과 련결되여 있는 불란서 공산당은 현 제도의 계급적 본질에 관한 진실을 선전하며 환상과 허위를 폭로하며 될수록 빨리 민주주의를 회복, 갱신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당은 지금 광명한 사회주의 전망을 열어 주고 있는 진보와 자유의 전통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정력을 다 바쳐 싸울 것이다.

우리는 로동 계급의 정치적 통찰력, 자기 동맹자들을 동원시킬 수 있는 그의 능력, 반동 세력의 손에서 나라를 떼여 내려는 인민의 결의를 충분히 믿고 이 간고한 투쟁을 개시하고 있다.

전횡과 압박에 대하여 승리를 달성하여 온 불란서 인민은 자기 력사를 새로운 영광스러운 페지로써, 자유의 새 승리로써 더욱 빛내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로동 계급의 통일 만세!

민주주의의 회복과 갱신을 위한 투쟁에서의 모든 공화주의자들의 단결 만세!

불란서 인민의 동맹 만세!

불란서 공산당 만세!

혁명 전통 연구를 위한 자료

항일 유격대의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

최 만 호

오늘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항일 유격대의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의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이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당적 원칙에 립각한 동지들 호상 간의 협조와 방조를 강화하고 혁명적인 동지적 단결을 강화 발전시킬 수 있으며 당의 통일 단결을 일층 공고히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정신의 강화는 북반부의 전체 인민을 우리 당 주위에 통일 결속하고 혁명 력량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의 강화는 당원들 뿐만 아니라 로동자, 농민,인테리들 간의 단결과 호상 협조를 가일층 강화하며 그들 속에 아직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리기주의, 개인주의 등 비동지적인 낡은 사상과 관습, 생활 태도들을 청산하고 집단주의 사상을 배양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는 그의 사상과 목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이룩되는 로동 계급의 결합 관계를 표현한다. 부르죠아지의 지배를 전복하고 자기의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 계급의 투쟁에 있어서 그 대렬의 원칙적 단결과 동지 호상 간의 우애의 정신은 어느 때 어떠한 조건하에서나 필수적이다. 왜냐 하면 로동 계급은 그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함으로써만이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정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조직 이외에 다른 무기는 없다≫라는 레닌의 유명한 명제는 조직을 통한 로동 계급의 통일과 단결이 가지는 중요성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실로 로동 계급은 전국적인,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계급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함으로써 총검에 의지하고 있는 자본의 지배를 전복하고 자기의 전 세계사적 사명을 실현할 수 있다.

로동 계급의 원칙적인 계급적 단결은 혁명적 동지애와 밀접히 관련되여 있으며 튼튼한 동지애에 의하여 안받침된다. 왜냐 하면 혁명적 집단, 계급을 구성하는 성원들 호상 간의 동지적 우애가 없이는 그 집단 또는 계급 전체의 공고한 통일과 단결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혁명적 동지애는 동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동지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배려하며 동지를 방조하여 주며 동지의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며 동지를 위험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떠한 희생도 서슴치 않는 고상한 품성으로서 표현된다.

혁명적 동지애는 원칙적 단결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진보, 인류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사상과 목적의 공통성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곳에서 그리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의 투쟁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사'적 소유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기초하고 있으며 약육 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착취 사회의 지배 계급 내부에서나 적대적 대립 관계에 놓여 있는 지배 계급과 근로 대중 사이에서는 단결과 동지애란 있을 수 없다. 착취 사회의 조건하에서는 오직 피압박 대중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선진 투사들 가운데서 진정한 단결과 동지애가 형성된다.

혁명적 동지애는 사회의 진보, 피압박 근로 대중의 해방이라는 위대한 사상과 목적의 공통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만큼 협소한 개인적 리해 관계를 훨씬 초월한다. 따라서 동지애는 개인적 리해 관계에 기초하는 무원칙한 ≪우정≫과는 공통성이 없다. 더우기나 지방주의, 가족주의와는 공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대립된다. 왜냐 하면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착취 계급의 사상, 착취 계급의 처세 방법으로서 부르죠아적 리기주의와 출세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배타성과 분렬주의를 그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된 동지애는 무원칙한 ≪우정≫을 반대하는 동시에 동지의 사소한 결함에 대하여도 용화 묵과하지 않으며 그를 제때에 비판하고 고쳐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동지애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상한 풍모를 가지도록 하며 그들의 자각성과 능력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더 나아가 전 집단의 원칙적인 단결과 통일을 공고한 기초 우에서 강화 발전시킨다.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는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 과정에서 이룩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30년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 지도된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이러한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의 전형이 창조되였는바 이것은 오늘 우리 당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 전통 중의 하나로 되고 있다.

항일 유격대원들 사이에서의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는 본래 우리 나라 근로 인민이 력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상한 풍모, 미풍과 일정하게 관련되여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조선 인민에게는 ≪이웃 사촌≫이란 말도 있는 것처럼 고래로부터 서로 화목하고 이웃간에 서로 돕고 도와 주는 미풍이 강하였으며 의리를 지키는 관념이 강하였다. 이와 같은 풍모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김 일성 동지는 ≪풍속상으로 보아도 조선 사람은 매우 화목하여 살기를 좋아 한다. 어떤 집에서 잔치를 하면 온 동리 사람들이 다 부조하고 다같이 모여 떡 치고 지짐 지지고 또 다같이 노나 먹는다≫(≪당 검열 사업과 관련하여≫)라고 말씀하였다.

이러한 미풍은 본래 우리 나라 인민이 단일 민족으로서 한가정과 같이 오래 동안 함께 살아 왔으며 외래 침략자들과 반동 통치배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것이다. 이리하여 력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인민의 단결과 호상 원조의 미풍은 1930년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조직 령도한 항일 유격대에 의하여 계승되고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확고한 토대 우에서 새롭게 발전되였다.

그러면 항일 유격대의 혁명적 동지애는 실생활과 투쟁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였는가?

항일 유격대의 혁명적 동지애의 명백하고 특징적인 표현은 우선 전투 마당에서의 자기 희생적인 정신과 혁명 동지 호상 간의 전투적 우의 등에서 표현되였다.

열렬한 동지애로 결합된 항일 유격대원들은 동지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겼으며 혁명 동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고상하고 영예로운 일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동지를 사랑하고 애호하였으며 곤난하고 위험한 일을 서로 앞을 다투어 맡아 했으며 어려운 전투 마당에는 서로 먼저 들어가 싸움으로써 부대의 전투 승리를 보장하였다. 유격대원들은 동지를 위험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험도 가리지 않았으며 동지를 위하여 자기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고상한 의리로 생각하였다.

1938년 여름 어느 날 밤 련대장으로부터 임무를 받고 떠난 세 명의 습격조원은 자기들의 전투 임무를 끝마치고 적의 집요한 추격 속에서 급히 귀로에 들어 섰다. 이때 김 충진 동무와 김 자린 동무는 부상당한 한 동무를 번갈아 업으면서 적의 추격을 피해 산'등성이로 올리 뛰지 않으면 안 되였다. 적은 이미 수십 메터 뒤에 육박해 오고 있었다. 세 동무는 매우 위험한 형편에 빠지게 되였다. 이때 등에 업힌 부상 당한 동무는 아직 자기에게는 적과 싸울 힘이 있으니 부디 내려 놔 달라고 몸부림을 하였다. 그러나 김 충진 동무와 김 자린 동무는 마지막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동무를 내리울 수는 없으며 심장이 뛰는한 그와 함께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내달리였다. 이미 가까이 접근해 온 적들은 ≪항복하라 !≫고 소리치며 달라 붙었다. 이 순간 김 충진 동무는 마지막 수류탄을 적들에게 내던진 다음 부상자를 업고 앞에서 달리는 김 자린 동무에게 부탁한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가던 곳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달리면서 적들에게 총질을 하여 놈들을 자기에게로 유인하였다. 김 충진 동무는 동지를 위하고 련대를 위하여 서슴없이 자기 희생의 길을 택하였던 것이다. 그는 적에게 일부러 자기를 알리기 위하여 총을 쏘면서 계속 내달렸다. 적들은 김 충진 동무에게 사격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김 충진 동무는 결국 자기의 고결한 희생으로써 동지를 구원하였으며 련대에 정찰한 자료를 보내여 전투 승리를 보장하였다.

이러한 자기 희생성과 전투적 우의 정신의 발휘는 항일 유격대원들이 모두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자유 독립을 쟁취하며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고상한 사상과 목적으로 결합되여 있었으며 생사와 고락을 끝까지 같이 하는 혁명적 동지애로 단합되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항일 유격대의 혁명적 동지애는 또한 **학습과 훈련, 일상 생활에서의 동지 호상 간의 두터운 방조에서 표현되였다.**

로대원은 신입 대원들에게, 앞선 동무는 뒤떨어진 동무들에게 성심으로 방조를 주었고 혁명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서로 돕고 받들면서 모두가 훌륭한 혁명 투사가 되기에 노력하였다. 실로 유격대의 일상 생활은 동지애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쉴사이 없이 덤벼드는 적의 《토벌대》를 무찌르는 전투의 나날도 힘든 일이였으나 먹을 것, 입을 것도 충분히 없이 동북의 그 모진 엄동 설한을 이겨내는 문제도 매우 간고한 투쟁이였다. 겨울에 유격대원들을 따뜻하게 포옹해 주며 그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은 오직 우등'불과 동지애였다. 뼈'속까지 얼어드는 듯한 추운 겨울에도 밤마다 유격대원들은 우등'불 주위에 모여 앉아 서로 배우고 가르쳐 주면서 앞으로 진행할 전투 계획들과 부대 내 생활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학습 담화들과 래일의 투쟁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다. 배고파 하는 동무에게 자기 밥을 덜어 주며 행군할 때에는 서로 무거운 짐을 날라다 주며 힘들어 하는 동무의 보초를 대신하여 서 주군 하였다. 동지를 사랑하고 동지를 위하는 마음은 일주일 이상 식사를 못한 30 여명의 대원이 한 그릇의 밥을 나누어 먹고도 반 사발이나 남은 사실, 살을 찌는 듯한 여름날 장시간의 전투 후 한 잔의 물을 수십명 대원이 마시고도 남은 사실들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유격대원들은 서로 동지의 곤난과 아픔을 자기의 곤난과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자진하여 돕고 도와 주었다.

1938년 이른 봄 돈화현 일대에서 가렬한 전투를 진행한 제 6사 9련대 지휘부는 김 명화 동무에게 부상 당한 동무를 치료해 줄 것을 위임하고 떠나 갔다. 김 명화 동무는 전우들이 떠나 가면서 자기들의 배낭을 털어 모아 준 두 되의 강낭'가루와 두 가치의 성냥을 가지고 련대가 다시 돌아 올 때까지 수림 속에서 환자를 간호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리하여 김 명화 동무는 나무 열매와 잣송이, 풀잎, 풀뿌리 등 초근 목피로 식량을 해결하면서 약초를 캐여 환자를 적극 치료하여 주었다. 실로 77일 간에 걸친 눈물 겨운 희생적인 투쟁과 전우를 방조하고 구원하려는 열렬한 동지애는 드디여 모든 곤난을 극복하고 전우를 구원해 낼 수 있게 하였다.

항일 유격대의 혁명적 동지애는 또한 **대원들이 자기의 간부들을 존경하고 옹호하며 간부들이 자기의 부하들을 혈육같이 사랑하는 옹간 애병(擁幹愛兵)의 정신에서 표현되였다.**

항일 유격대는 착취 계급에게 복무하는 제국주의 군대와는 달리 상관이나 부하가 다같은 로동자, 농민의 자제들로 구성되였고 리해 관계에서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상관은 친 어머니와도 같이 부하의 일상 생활에 대하여 항상 깊은 배려와 관심을 돌렸으며 그들이 아파하는 점과 곤난해 하는 점들을 제때에 알아내여 해결해 주는 데 세심한 주의를 돌렸다. 또한 부하는 상관을 존경하고 존중히 하였으며 전투 마당에서는 상관을 자기 목숨으로 옹호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항일 빨찌산 부대에서는 상하부 간에 굳은 단결이 이루어져 있었다. 즉 자산 계급 군대와 같이 장관이 부하를 억압 모욕하는 고용병 제도의 군대가 아니였다. 항일 유격 투쟁시에 장관과 병사와의 리익과 의지는 일치하였다. 그 때 장관들은 모두가 전사들 속에서 즉 인민의 자제들 속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과 병사들 간에는 추호의 간격도 있을 수 없었으며 같이 싸우고 같이 살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일치 단결》(조선 인민군 324 군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하게 되였다.

유격대 내에서 하부에 대한 상관의 사랑과 배려, 상관에 대한 하부의 존경과 옹호의 정신을 제고함에 있어서 김 일성 동지의 일상적인 교시와 생활에서의 실천적 모범은 특히 결정적 의의를 가졌다.

김 일성 동지의 생활에서 하부에 대한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의 수 많은 모범적 실례들 중 하나만을 보기로 하자.

1938년 12월 인민 혁명군 부대가 국경 일대와 국내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몽강으로부터 장백 지구에로 나오던 도중에서 있은 사실이다.

집요하게 추격해 오는 적과 련일 전투를 진행하면서 부대는 실로 간고한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 때 식량 사정은 점점 더 어렵게 되였다. 행군 도중의 어느 날 아침이였다. 지휘부에 같이 따라 오던 전령병들은 자신이 굶는 것은 고사하고 김 일성 동지께 식사를 보장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슴 아팠던 것이다. 전령병들은 배낭을 뒤져 한데 모은 한 홉 가량의 비상용 미시'가루를 사령관 동지께 드리였다. 김 일성 동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전령병들을 둘러 보시다가 그것을 그 중 나이 어린

지 봉손 동무에게 주시였다. 지 봉손 동무는 사령관 동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지 않았다. 미시'가루는 다시 배낭 속에 들어 갔다.

하루의 간고한 행군이 끝나고 숙영하게 되자 전령병들은 보관한 미시'가루를 적당히 갈라 다음 끼니분을 보관하고 사령관 동지께 내놓았다. 김 일성 동지는 전령병들이 귀중한 미시'가루를 자기에게만 권한다는 것을 짐작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배낭 속에 깊이 간직하였던 나머지 미시'가루마저 털어 놓게 한 후 자기 몫을 념두에 두지 않으시고 《이것을 한 말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배가 부를 것이요, 어서 받으라구》 하시면서 고루히 나누시였다. 전령병들은 각각 자기 몫을 덜어 사령관께 드리니 김 일성 동지는 다시 그를 고루히 나누어 주시였다. 이리하여 김 일성 동지께는 가장 적게 차례지였다. 김 일성 동지는 전령병들이 그 미시'가루를 물에 타는 것을 보시고야 자기도 그를 물에 탔다. 부하에 대한 육친적 사랑과 깊은 배려가 깃든 이 한 숟가락의 미시'가루는 실로 대원들의 힘을 백배 천배로 돋구며 그들의 혁명적 투지를 무한히 고무한 혁명의 량식이였다.

김 일성 동지께서 직접 보이신 이러한 하부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모범은 항상 전 유격대의 구감으로 되였으며 원칙적 단결과·동지애를 강화하게 한 커다란 힘으로 되였으며 전 유격대를 김 일성 동지의 주위에 튼튼히 통일 결속시키는 중요한 힘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김 일성 동지의 모범을 따라 유격대의 상관들은 일상 생활에서는 물론 가렬한 전투 마당에서나 적탄에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부대와 자기 부하들을 념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정을 금치 못하였다.

열렬한 혁명 투사 권 영벽 동무는 함흥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되여 가면서도 자기와 같이 피검되여 장기 체형을 당하게 된 동지들을 념려하고 그들이 쇠약한 몸으로 어떻게 형기를 견디여 내겠는가고 걱정을 하였다. 그는 자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 광복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싸우면서 동지들을 념려하였고 고무 격려하여 주었다.

상관들로부터 항상 자애로운 사랑과 배려를 받은 유격대원들은 또한 언제나 목숨으로써 자기 상관을 보호하고 옹호하였으며 굳게 단결하였다.

항일 유격대 내에 있어서 상하부 간에 맺어진 이와 같은 동지애에 대한 이야기는 끝없이 많다.

1940년 항일 무장 투쟁이 가장 간고했던 시기 유격대의 한 부대의 지휘부가 적의 불의의 습격을 받게 되였다. 이 때에 부대 지휘관은 병중에 누워 있어 자기 몸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였다. 이 위급한 순간에 황 정해 소대장은 우선 자기 소대원들을 적과 대전하도록 포치한 후 직접 자기가 지휘관을 구출하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였다. 그는 병중에 있는 지휘관을 업고 적의 집중 사격과 추격 속에서 단숨에 5리를 내달려 지휘관을 무사히 구원해 내였다.

항일 유격대의 혁명적 동지애는 **자기의 혁명적 조직과 집단을 열렬히 사랑하고 옹호하며 조직의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자기 개인을 희생시키면서도 조직과 집단의 비밀을 고수하여 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혁명 조직에 대한 충실성에서도 표현되였다.**

유격대원들은 자기의 부대와 조직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였으며 자기 개인의 리익을 조직의 리익에 완전히 복종시켰다. 그리하여 유격대원들은 조직의 요구, 상부의 명령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조건하에서도 무조건 복종하고 실행하는 엄격한 혁명적 규률을 확립하였다. 유격대원들은 조직의 요구, 상관의 명령을 제때에 실행하는 것이 곧 혁명에 충실한 것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조직과 집단의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였다.

유격대원들은 또한 조직과 집단의 비밀을 철저히 수호하였다. 조직과 집단의 비밀을 적 앞에서 루설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한 개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지를 팔며 혁명을 배신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조직 규률에 충실하며 혁명적 동지애에 불타는 유격대원들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조건하에서도 정치적 경각성을 높여 동지들의 비밀, 조직의 비밀을 수호하였으며 이를 위하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열성적으로 사업하던 청년 공작원 림 춘익 동무는 1932년에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였다. 일제 경찰은 그로부터 조직의 비밀을 알아 내려고 갖은 고문을 다하였다. 그러나 혁명에 충실하며 동지애에 충만된 림 춘익 동무는 끝까지 조직의 비밀을 고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동지들이 한 사업까지도 다 자기가 하였다고 고집함으로써 함께 체포되였던 동지들을 석방케 한 후 18세의 나어린 몸으로 장렬하게 희생되였다. 이러한 실례는 수 많이 있다.

일제 경찰의 어떠한 고문도 두려울 것이 없었으나 의식을 잃었을 때에라도 혹시 자기도 모르게 조직의 비밀을 루설할 것을 념려하여 스스로 자기 혀를 끊고 벙어리가 됨으로써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고수하고 장렬하게 희생된 마 동희 동무나 원쑤들의 창에 찌끼울대로 찌끼우고 화형을 당하여 죽게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입을 다물고 비밀을 고수한 지하 공작원 일 손 동무의 실례들은 그의 모범으로 되였다.

항일 유격대의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는 또한 전투와 일상 생활에서 동지의 결함에 대하여 제때에 비판하고 시정해 주는 데서 표현되였으며 일제의 적대적인 사상 요소들과의 원칙적이고 비타협적인 투쟁 속에서 더욱 강화 발전되였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동지의 사소한 결함에 대하여 묵과하거나 융화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동지의 결함을 제때에 비판하고 시정하여 주지 않는다면 동지의 결함을 점점 조장시켜 나아가서는 동지를 시정해 줄 수 없는 더 큰 잘못에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동지의 결함에 대한 융화 묵과는 혁명 대렬 내에 가족주의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격대의 원칙적인 단결을 파괴하며 혁명에 커다란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결함을 시정하며 유격 대오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귀중한 무기로서의 비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였다: 한시라도 비판의 분위기가 무디게 된다면 사람은 침체에 빠지게 되고 전진이 멎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비판은 항상 대상에 알맞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정확히 료해해야 하며 그런 결함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대상이 알아 듣도록 결함을 지적해 주고 그것이 왜 나쁜가를 일깨워 주고 그가 결함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방조하여야 한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혁명 동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때문에 동지의 과오와 결함을 가장 아프게 생각하였고 그가 잘못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제때에 성실한 비판과 방조를 주었다. 항일 유격대원들의 비판 사업은 항상 결함을 가진 동지에 대한 설복 및 교양과 밀접히 결합되였고 대상이 진심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시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진행되였다.

1936년 인민 혁명군 주력 부대가 무송 동강 지구에로 진출하던 때에 있은 일이다. 부대는 식량도 없이 여러 날 강행군하였다. 어느 날 한 소대에 식량으로 해'밀이 분배되였다. 유격대원들은 극도로 피로하였으나 다같이 망을 갈아 가루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이때 소대에는 신입 대원 한 동무가 있었는데 그는 피곤에 못 이겨 망을 갈 차례가 되자 다른 동무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 대신 갈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때 그 동무도 매우 피로하였으나 돈을 신입 대원에게 도루 넣어 주면서 앉아 휴식하라고 하고 그를 대신하여 망을 갈았다.

이리하여 망을 다 간 후 그 동무는 신입 대원의 그릇된 경향에 대하여 엄격한 비판을 주었다. 《돈 몇 푼으로써 형제 간보다 더 다정한 우리의 혁명적인 동지애를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을 맹세한 사람이다. 다른 동지가 곤난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 주는 것은 응당한 동지적 의리인데 동무의 그 행동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그에게 잘못을 시정하도록 설복 교양하였다. 그리하여 그 신입 대원은 자기 잘못을 심각히 깨닫게 되였으며 그 후 훌륭한 대원으로 발전하였다.

유격대 내에서의 이와 같은 원칙적인 비판의 전개는 그들의 혁명적 동지애를 더욱 깊고 의식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며 원칙적 단결을 더욱 확고하게 하였다.

항일 유격대의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는 일제의 적대적이며 비원칙적인 사상 요소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 속에서 더욱 강화 발전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의 첫 시기에 원쑤들은 유격대를 내부로부터 와해할 목적으로 《민생단》이란 스파이 단체를 조직하여 유격대와 혁명 조직들의 내부에 잠입시켰다. 원쑤들이 파견한 이 적대 분자, 이색 분자들은 온갖 모략과 책동으로써 항일 유격대를 와해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유격대원들은 《민생단》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조직 전개하게 되였다. 그런데 유격대 내에 잠입한 각종 종파 분자, 이색 분자들은 반《민생단》 투쟁을 기회로 하여 유격대 내에 호상 불신임과 대렬의 불통일을 조성하면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생단》이란 루명을 들씌워 그들을 모해하고 살해하여 대렬을 파괴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의 옳은 령도하에서 혁명적 동지애로 굳게 단결된 유격대원들은 원쑤들과 그 앞잡이들의 교활한 책동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면서 비타협적인 원칙적 투쟁을 전개하여 무장 대오의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였다.

이와 함께 항일 유격대의 원칙적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은 당내에 발생한 좌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량조 전선(兩條戰線)》 투쟁이였다. 당 단체들은 당 조직 문제에 있어서 좌경적 관문주의 경향을 나타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당 조직 사업에서도 통일 전선을 적용하려는 우경적 경향을 발로시켰었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반대하여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당내의 《량조 전선》 투쟁의 결과 당 단체의 사상 의지의 통일과 규률이 강화되였으며 이는 유격대의 규률과 단결을 일층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항일 유격대원들은 일제의 반쏘 반공 사상과 부르죠아 민족주의, 민족 개량주의, 종파주의 등 일체 불건전한 사상 요소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였으며 자기 대렬의 강철같은 통일과 원칙적 단결을 일층 강화하였다.

항일 유격대의 혁명적 동지애는 동지 간에 맺어진 의리를 고수하는 고상한 인도주의 정신에서도 표현되였다.

유격대원들은 어떠한 곤난한 환경,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자기와 생사 고락을 같이 하여 온 동지들과의 의리는 결코 저바리지 않았으며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조선 인민의 이 고상한 인도주의 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였다.

1941년 항일 무장 투쟁이 소조 활동으로 이행하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정치 공작을 진행하고 있던 한 소조에서 있은 일이다. 3명으로 조직된 이 소조는 식량과 기타 문제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형편에 빠졌다. 그렇게 되자 소조 내의 한 사람은 곤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상적으로 동요하게 되였다. 어느 날 아침 동요한 이 자는 동무들이 벗어 놓았던 총을 걷어 쥐고 하는 말이 승리의 희망은 보이지 않으며 또한 《토벌》은 더욱 심하고 산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당장 굶어 죽게 되였으니 같이 투항하자는 것이다.

이때 두 대원은 《혁명의 전망이 설사 막연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 량심을 짓밟고 너를 따라 갈 수 없다. 하물며 10 여년 간이나 춥고 배고픔 속에서 적과 피흘려 싸우면서 오늘까지 시종 일관하게 온갖 난관과 신고를 영웅히 물리치고 우리 혁명 승리의 기초를 쌓아 올린 김 일성 장군과 여러 혁명 동지들을 어떻게 배반하며 어떻게 조국과 인민을 식민지 노예의 암담한 처지에 두고 우리가 제목숨 하나 살아 보겠다고 너를 따라 가겠느냐? 차라리 죽더라도 우리는 김 일성 장군과 전우들을 찾아 가다 죽겠다. 가겠으면 너나 혼자 가고 우리 총을 내놔라. 우리는 계속 싸우겠다》고 변절자를 규탄하면서 산에 남아 끝까지 싸웠다. 그들에게는 난관이 중중첩첩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혁명 동지들을 저바리고 목숨 하나 살리려고 적 앞에 투항하는 더러운 길은 결코 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혁명 동지를 믿고 의리를 지켜 싸운 이 두 동무는 결국 김 일성 동지께서 파견한 련락병에 의하여 무사히 구원되였다.

이상 간단히 항일 유격대의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의 발현들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그러면 항일 유격대의 이와 같은 강력한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는 무엇에 기초하여 이룩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항일 유격대원들의 사상과 목적의 공통성이다.

항일 유격대의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였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의 기치 밑에 최후 승리를 확신했으며 일제와 지주, 예속 자본가 등 인민의 원쑤들을 타도하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며 장차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한 가지 사상으로 튼튼히 단합되였다. 바로 이 고상한 사상과 목적의 유일성이야말로 그러한 원칙적 단결과 동지 우애의 정신을 발현시킬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그것은 항일 유격대의 계급적 구성에서의 공통성이다.

항일 유격대는 모두가 제국주의를 미워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써 조직되였다. 착취 계급의 군대와 달리 상관과 부하가 다같이 로동자, 농민의 출신이였으며 가장 잘 싸우는 우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상관이 나왔다. 이와 같이 항일 유격대는 그의 구성이 가장 압박 받고 착취 받아 온 근로자들의 선진 투사들이였다는 계급적 공통성에 기초하여 단결과 동지애가 발현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유격대원들은 강제에 의하여 들어 온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일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자유 해방을 위하여 자원하여 혁명 투쟁에 참가한 투사들이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혁명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서로 굳게 단결하며 고상한 동지 우애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한 조건의 하나였다.

항일 유격대의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를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된 것은 김 일성 동지의 솔선 수범과 부대 내에서의 원칙적 단결과 동

지애를 강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교양 사업이였다.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을 조직 지도하면서 대원들을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의 사상으로 부단히 교양하였으며 자기들의 실제 생활에서 그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이리하여 모든 대원들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김 일성 동지의 동지 우애심의 모범을 자기들의 생활에 구현하였으며 목숨으로써 혁명 조직과 동지 호상 간의 통일 단결을 고수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가 높이 발양되고 의식적인 것으로 된 것은 또한 우리 나라에서의 유격 투쟁의 간고성과 장기성으로 설명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항일 무장 투쟁은 정규군과 후방의 원호가 없이 단독적으로 진행된 유격전이였다. 더우기 세계 제패를 호언하던 강대한 일제 군대를 상대로 하여 15개 여 성상이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항일 무장 투쟁은 그의 간고성을 더욱 가중하였다. 이러한 간고한 투쟁의 조건은 그 자체가 유격대 내에서의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를 절실히 요구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간고한 투쟁 행정은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를 형성시키고 강화 발전시키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 것이다.

* *

이상에서 항일 유격대의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에 대하여 간단히 고찰하였다.

바로 이러한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가 있음으로 하여 항일 유격대는 장기간에 걸친 간고한 무장 투쟁 행정에서도 유격 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불패의 것으로 강화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혁명 력량을 부단히 집결 확대하면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항일 유격대의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는 해방 후 우리 당과 전체 인민에게 계승되여 당의 공고 발전에서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전통은 그를 계승한 우리 당의 투쟁에 의하여서와 인민들의 실천 투쟁 행정에서 더욱 강화되고 발전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동지 호상 간에 원칙적으로 단결하며 서로 돕고 받드는 우애의 정신이 더욱 높이 발양되면서 있다.

오늘 사회주의 건설에서 근로자들의 단결과 동지적 협조와 방조의 구체적 발현인 집단적 혁신 운동은 그의 월층 높은 형태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로 발전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더욱 촉진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당 앞에 제기되여 있는 위대한 혁명 과업의 더욱 급속한 촉진은 우리 당원들로 하여금 1930년대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을 더욱 철저히 계승 발전시키면서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의 정신을 가일층 높이 발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 하면 우리 당 대렬의 통일 단결의 가일층의 공고화와 당 주위에의 더욱 광범한 인민 대중의 단결만이 혁명 승리의 가장 강력한 담보로 되기 때문이다.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면서 자기의 결정서에서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당적 원칙을 튼튼히 고수하면서 동지들 사이에 호상 방조하며 호상 신임하며 사랑하는 혁명적인 동지적 단결을 강화하도록 교양하는 것은 당의 단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된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각급 당 단체와 당원들, 전체 근로자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가일층의 촉진을 위하여 항일 유격대의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의 전통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 체득하며 그것을 실 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근 로 자》 제 7호 (루계 164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근 로 자 사　　인 쇄 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1959년 7월 15일　　인 쇄•1959년 7월 10일

ㄱ—30434　　값 50 전

서적 안내

레닌 전집 제 27권

4×6판, 예정 페지 820페지, 예정 값 1원 70전,
발행 부수 12,000부, 발행 예정 8월.

본 권은 1918년 2월부터 7월까지의 레닌의 론문, 보고, 연설, 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요한 문헌으로는 《쏘베트 정권의 당면 과업》, 로씨야 공산당(볼쉐위크) 제 7차 대회에 관한 문헌, 제 4차 림시 전로 쏘베트 대회, 제 5차 전로 쏘베트 대회에 관한 문헌들이 수록되여 있다.

위대한 10월 혁명의 직후, 외국 무력 간섭자들의 공세와 국내 반혁명의 집요한 반란이 계속되였으며 극도에 달한 식량 곤난의 환경하에서 레닌은 당내의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하면서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을 조직 동원하여 사회주의에로의 정확한 로선을 따라 전진케 하였다.

독자는 본 권에서, 브레스트 강화를 둘러싸고 당을 반대하여 나선 뜨로쯔끼, 부하린 기타의 반당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레닌의 비타협적 투쟁을 볼 것이며, 기아를 극복하기 위하여 초인간적 정력과 예지로써 하나하나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위대한 모습을 볼 것이다.

공산주의 교양에 관하여

4×6판, 예정 페지 160페지, 예정 값 35전,
발행 부수 30,000부, 발행 예정 8월.

이 책은 1958년 11월 20일 전국 시, 군 당 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를 조목별로 해설한 책으로서 간부들의 공산주의 교양을 돕기 위하여 출판한다.

이 책에서는 현 시기 우리의 혁명 과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의 필요성,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우월성과 새 것의 불가극복성의 사상으로의 교양, 우리 당의 혁명 전통으로의 교양,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의 교양, 집단주의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부단 혁명과 계속 전진의 사상으로의 교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 서적들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1959년 7월